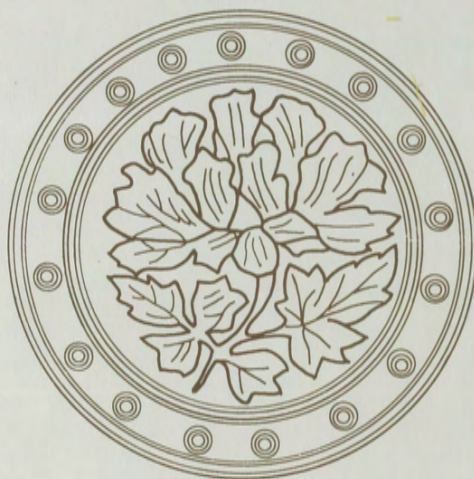


제 1 회 東垣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 韓國磁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日時：1990年 12月 1日(土)～2日(日)

場所：國立中央博物館 大講堂

主催：韓國考古美術研究所

主管：韓國陶磁史研究會

後援：文化部 國立中央博物館

제 1 회 東垣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 韓國磁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 제1회 東垣기념 학술대회

### 韓國 靑磁發生에 關한 諸問題

---

#### 대회순서

첫째날 1990. 12. 1 (토)

○ 개회사 (09:00~09:15) .....대회장 • 정양모 (한국도자사연구회)

#### I. 공동주제발표

- 오전 (09:20~12:00) ..... 사회: 이상기 국민대학교
  - 1. 羅末・麗初 靑磁 및 白磁研究의 諸問題 ..... 정양모 • 국립중앙박물관
  - 2. 羅末・麗初 韓・中交易과 西南海岸地域 ..... 이기동 • 동국대학교
    - 高麗靑磁의 起源問題에 關하여 -
  - 3.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繼承과 中國陶磁文化의 受容에 關하여
    - 특히 韓國靑磁發生時期를 중심으로 -..... 최 건 • 해강도자미술관
  - 4. 우리나라 출토 해무리굽 중국도자 ..... 강경숙 • 서울산업대학교
- 점심 (12:00~13:00)
- 오후 (13:00~17:00) ..... 사회: 강경숙 • 서울산업대학교
  - 5. 初期靑瓷窯址의 分布와 特色 ..... 윤용이 • 원광대학교
  - 6. 龍仁初期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 김재열 • 호암미술관
  - 7. 景西洞을 중심으로 한 綠靑磁問題 ..... 김영원 • 국립중앙박물관
  - 8. 日本出土의 中國陶磁 ..... 龜井明德 • 日本專修大學
  - 9. 9~10世紀 日本 灰釉陶 ..... 檜崎彰一 • 日本名古屋大學

둘째날 1990. 12. 2 (일)

## II. 종합토론

### ● 오전 (09 : 00 ~ 12 : 00)

사회 : 정양모 • 국립중앙박물관

토론자 : (토론참가자)

나선화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박영복 • 국립중앙박물관

이전무 • 국립중앙박물관

이상기 • 국민대학교

이호관 • 문화재연구소

최병현 • 한남대학교

(주제발표·토론참가자)

강경숙 • 서울산업대학교

김영원 • 국립중앙박물관

김재열 • 호암미술관

윤용이 • 원광대학교

이기동 • 동국대학교

최 전 • 해강도자미술관

龜井明德 • 日本專修大學

檜崎彰一 • 日本名古屋大學

### ● 제 1 회 동원기념학술대회 폐회





## 「羅末・麗初 青磁 및 白磁研究의 諸問題」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

### I. 序

우리나라의 陶磁史에 있어서 羅末・麗初는 陶器質窯業에서 磁器質窯業으로 전환되어가는 변혁의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古代的 中央集權의 貴族社會가 解体되면서 地方分權化가 진행되어 後三國으로 형성되어가는 시기이며, 高麗의 統一以後 中央集權體制가 완비되기 以前까지의 時期로서 정치, 사회, 경제, 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던 時期이기도 하다. 또 統一新羅前期에 慶州를 중심으로 하였던 구조에서 後期를 지나는 동안 西南海岸地域의 세력이 부상하면서 地方分權의 體制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들 지역에서 初期青磁窯址가 分布하고 있어서 青磁의 發生問題와 함께 관심을 끌어왔던 문제였다.

이 발표에서는 羅末・麗初의 상황을 특히 西南海岸地域을 고려하면서 밝혀내고, 우리나라 青磁 發生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中國의 磁器를 소위 햇무리굽碗의 編年을 중심으로 하면서 현재까지의 資料를 종합하여 보겠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統一新羅後期에 陶磁를 포함한 工藝의 狀況과 함께 中國陶磁와의 影響問題가 포함되어 있을것이다. 이어서 韓國青磁 發生에 관한 기존의 研究成果를 研究史의 立場에서 서술한 후 發表者의 見解를 披瀝하겠다.

### II. 羅末・麗初 의 時代的 背景

#### 1. 政治

이 時期는 統一新羅의 自体 矛盾이 深化되면서 강력했던 王權에 대항하여 貴族聯合的 體制가 형성되고 王位繼承을 위한 끊임없는 爭奪戰이 계속되었던 때이다. 한편 地方에서는 中央의 統制力이 약화됨에따라 새로운 地方分權의 體制가 형성되면서 羅末에 와서는 豪族의 時代라고 불리는 後三國時代를 맞게 된다.

統一新羅의 中央集權力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惠恭王(766~799)에

全國의 96角干이 서로 싸웠다는 大恭의 亂 이후 부터이다. 실질적 권력을 차지했던 金良相(후에 宣德王, 780~784)의 등장은 專制政權을 무너뜨리고 貴族聯合的体制의 시작과 함께 끝없는 王位爭奪戰의 시작을 의미했다. 특히 哀莊王(800~808) 이후에 王位爭奪戰은 神武王(839)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비극적 政治面과 함께 民生面에서도 8世紀末과 9世紀前期에 끊임없는 천재지변과 大饑饉으로 民心은 遊離되고 西海岸地方民들이 中國海岸地方으로 難民하는 예도 증가되고 있었다. 王位繼承問題로 中央政府에 불만을 품은 金憲昌의 亂(822~825)에 中西部인 忠靑·全羅·慶尚등 광범한 지방세력이 이에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세력의 형성과 함께 中央政府에 대한 불만이 慶州를 제외한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다.

## 2. 社會

中央의 混亂과 달리 地方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지방세력이 확장되는 여건중에는 신라후기부터 진행되는 국토개발사업과 농업장려사업이 발전되어 농업생산력이 증가하는 한편, 西南海岸地方에 설치되는 軍鎮, 즉 湔江鎮에 長城 築造(826), 淸海鎮 설치(828), 唐城鎮(829), 穴口鎮(844)등의 설치는 地方社會에 농업생산력 증가에 따른 경제적 성장과 軍鎮에 의한 武力的 실력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다. 더구나 中央集權이 약화되는 시기에 이러한 地方實力者들은 독자적인 정치·경제·군사의 실력을 키워나가 後三國時代 豪族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이 時期는 서아시아, 中國, 新羅, 日本을 연결하는 貿易의 성행과 함께 張保皋, 王建의 先祖, 晉州長軍등의 西南海岸地方의 實力者들은 外國의 先進文物에 익숙해 있었고 특히 貿易, 商業, 産業에 대한 인식이 높았었다. 渡唐留學生과 禪僧들의 귀국과 居遊民들의 귀국으로 西南海岸地方은 보수적인 慶州地方보다 先進文化의 受容의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3. 思想

이러한 농업생산력, 상공업으로 축적된 경제적 기반 위에 군사적 실력과 先進文化까지 受容한 西南海岸地方은 禪宗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정신세계에서까지 경주지방보다 앞서게 되었다. 道義(821)의 귀국부터 시작된 禪僧의 귀국과 地方勢力과의 결합은 地方의 꾸준한 성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實相山派를 세운 洪陟(827년), 師子山派의 道允은 847년에 귀국하고 이어서 掘山寺派의 梵日, 聖住寺派의 無染이 귀국하여 禪宗九山을 세우게 된다.

특히 佛像의 造成도 慶州를 중심으로 하던것이 이 시기가 되면 光州 長興에



宝林寺鉄佛(859)이 造成되고 聖住寺의 佛像과 강원도 철원의 到彼岸寺鉄佛(865), 醴泉의 石佛立像 등 각지방에 佛像이 造成되는 것도 이시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西南海岸地方의 勢力들은 당시 中國에서 대량생산되어 실용성, 산업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었던 磁器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직접 생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 III. 中國陶磁의 햇무리굽碗의 編年

우리나라에서 靑磁發生에 관한 문제는 靑磁碗의 굽을 깎아내는 形式 중에 하나인 햇무리굽의 出現에 초점을 두고있으며 이러한 形式을 中國 唐代後期에 만들어졌던 同形의 靑磁와 白磁의 영향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햇무리굽은 崔淳雨先生이 “日暈形”굽이라고 했던 것을 “햇무리”라고 한 것으로써, 中國은 “玉璧形”, “璧形”이라 하고 日本에서는 “蛇目高台”라고 부르는 特徵的인 굽의 形式이다. 굽이 낮으며 接趾面의 폭이 약 1cm가량 넓어서 일반적인 굽의 形式과 곧 구분되는 形態이다.

이 햇무리굽완은 中國의 唐代 遺跡이나 窯址에서 주로 出土하고 있으며 馮先銘은 이 形式이 中唐代에 出現한 새로운 것이라 하며 諸暨縣 牌頭茶場(唐, 貞元10年(794))과 上虞縣 帳子山(唐, 貞元17年(801))의 墳墓의 出土 靑磁를 근거하고 있다. (馮先銘外, 『中國陶瓷史』, 文物出版社, 1982, PP.193~194). 李知宴도 햇무리굽碗은 8~9世紀前半에 성행하며 9世紀中半부터 줄어들다가 五代에는 소멸하고 일반적 형식의 굽으로 변했다고 하였다(李知宴, 「唐代瓷窯概況與唐瓷的分期」, 『文物』, 1972年 3期). 이외에 中國의 編年資料는 浙江省 寧波市에서 발견된 唐代 古窯址에서 발견된 碗·盤에 햇무리굽이 있으며 窯道具도 우리나라 初期靑磁窯의 特徵인 耐火匣, 匣鉢받침이 함께 出土하여 影響關係와 함께 編年에 근거가 되고 있다. 이 窯址에서는 與嵊縣出土의 唐元和14年(819年) 瓶과 같은 瓶이 있어서 9世紀初의 상황을 설명해준다(林士民, 「勘察浙江寧波唐代古窯的收穫」,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 文物出版社, 1984)

寧波市와 叉路唐城址에서 出土한 靑磁碗은 “壽, 大中二年(848)”의 文字가 印刻되어 있는데 越州窯의 靑磁 햇무리굽碗으로 판단하고 있다(馮先銘, 앞책 P134).

葉喆民(「唐代北方白瓷与邢窯」, 『貿易陶磁研究』7号 1987)은 唐人 李肇의 『國史補』를 인용하고 內丘窯와 臨城窯의 특징중에 햇무리굽완을 들고 唐代의



특징이라 보았고, 李輝柄(『唐代邢窯窯跡の考察と 初步的検討』, 『古代文化』34 卷11号,)에서 邢窯와 햇무리굽완을 설명하며 唐代後期에 쇠퇴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1982年 出光美術館의 『近年發見の 窯址出土 中國陶磁展』의 圖錄에서 햇무리굽완을 唐代로 編年하고 있어서 窯址와 墳墓등의 出土例로 想定할 때 햇무리굽의 形式은 8世紀後期에서 9世紀前期의 特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出土한 中國의 햇무리굽완에 대해서는 이미 三上次男의 「朝鮮半島出土の 中國唐代陶磁とその歴史的意義」(『朝鮮學報』, 8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彌勒寺址에서는 「大中12年(858)」銘大甕片과 同一層位에서 出土된 中國産 햇무리굽磁器가 있어서 中國의 편년을 뒷받침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長谷部樂爾(『日本出土の 中國陶磁展』, 1975)가 8世紀後期부터 9世紀동안에 中國産 햇무리굽완이 수입되었다고 하였다.

이상과같이 中國側 資料와 韓國, 日本의 자료를 종합하면 中國에서 햇무리굽 形式의 제작기간은 10世紀·五代를 내려오지않는 唐代後期の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4. 햇무리굽완의 出現으로 본 우리나라 靑磁의 發生時期에 관한 諸說

이제까지 우리나라 靑磁의 發生時期에 관한 研究는 中國側의 研究성과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했었다. 더구나 햇무리굽완을 韓國 初期靑磁의 特徵으로 보는 관점에서 中國의 編年는 가장 軸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들어 中國側의 研究성과가 쌓이고 國內의 調査가 꾸준히 진행된 최근의 상황에서 研究者들의 時代的, 資料的 限界를 고려하면서 韓國靑磁 發生에 關한 諸說을 살펴보면,

① 韓國靑磁의 發生時期를 9世紀前半으로 추정하는 學者는 尾崎洵盛(『高麗靑磁の 起源に關する 問題の 考察』, 『陶說』, 82-88)으로 그는 盛唐代 越州窯靑磁가 완성되었고 韓國에서 그를 倣造하여 新羅 興德王(826-836)代 9世紀前半에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吉岡完祐(『高麗靑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1979)에서 淸海鎮大使 張保阜의 역할을 軸점으로 하면서 中國 越州窯靑磁 햇무리굽완과 연관해 9世紀全半發生을 추정하였다. 崔健(『韓國靑磁發生에 關한 背景的 考察』, 『古文化』 31輯, 1987)은 中國唐代後期和 統一新羅後期の 社會와 工藝的 狀況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兩國에서 햇무리굽완이 出土하는 窯址의 特徵에 관심을 두면서 狀況的 資料를 제시하여 9世紀前半 發生을 想定하였다. 金載悅(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1980)은 龍

仁白磁窯址發掘調査에서 堆積層의 層位를 근거로하여 最下層은 靑磁製作層이며 初期靑磁窯址인 元興里, 釜谷里, 道通里, 梧沙里窯址의 影響으로 보고, 上層의 白磁햇무리굽완이 늦어도 9世紀末에 발생하였다고 규정한 다음 靑磁는 그보다 앞선 9世紀前半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견해는 中國에서 햇무리굽이 줄어드는 時期 以前에 韓國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視角이다. 이와 함께 中國의 下限을 고려한 견해로는 長谷部樂爾(「高麗靑磁の出現」, 『陶器講座』8・高麗, 1971)가 햇무리굽완을 중심으로 中國과의 관계 속에서 9世紀後半頃 發生하였다는 것과, 鄭良謨(「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는 햇무리굽완을 中國唐代의 特徵으로 보고 同時代나 조금 늦은 時期인 9世紀後半으로 編年하고 있다.

崔淳雨(「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18・高麗, 1978)는 仁川景西洞 綠靑磁를 初步的 靑磁로 보고 9世紀末에서 10世紀初로 制作時期를 추정하였다.

이어서 三上次男(「高麗靑磁の 起原と その歴史的 背景」, 『朝鮮學報』・99・100, 1981)은 五代 越州窯와의 관계, 淳化四年(993) 銘壺가 五代 長沙瓦渣坪窯의 黃釉双耳壺와 유사한 점을 들고 越州窯의 匠人이 직접 來韓하여 10世紀中半頃 靑磁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10世紀後半說은 小山富土夫(『高麗의 靑磁』, 陶器講座22卷, 1937), 野守建(『高麗 陶磁의 研究』, 1944)의 경우이며 당시에는 越州窯에 관한 知見이 미미했었고 淳化四年銘壺를 初步的 靑磁로 본는 視角에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경우였다. 최근에 尹龍二(「高麗陶磁의 變遷」, 『濶松文華』31, 1986)는 淳化四年銘壺가 발생시기의 現狀이라 하고 10世紀後半 發生을 想定하였다. 특히 高敞郡 龍溪里靑磁窯址에 햇무리굽碗을 窯址出土品인 太平壬戌二年(1022)銘平瓦片과 함께 고려하면서 下限을 11世紀前半까지로 보았다. 또 종래 先驅的 靑磁로 추정되어온 綠靑磁를 11世紀後半부터의 地方産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韓國靑磁 發生에 관한 諸說들은 研究 當時의 資料的 限界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影響이 컸었다. 더우기 연구자의 視角에 따라 결과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中國側의 資料가 축적되고 國內外 研究者들의 視角도 다양성을 갖게되어 靑磁 發生問題에 관한 종합적인 규명이 가능해졌다.

## 5. 結論

韓國에서 靑磁의 發生時期를 정확히 糾明할만한 絶對編年資料가 없는 限



界에서는 中國의 狀況과 그와의 影響관계, 時代的 背景, 出土資料등 多角의 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로 編年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또 그것이 美術史의  
研究方法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앞章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서  
發表者의 意見을 披瀝함으로서 結論에 대신하고자 한다.

統一新羅後期の 社會는 中央集權의 專制王權이 強化되고 실질적인 권력은  
강력한 귀족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한편, 地方에서는 瓦解된 貴族과 地方의  
실력자들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地方分權의 体制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 실력자들은 保守的인 慶州地域보다 西南海岸을 통한 中國의 先進文物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중에서도 때마침 크게 盛行하는 磁器文化에 대한  
認識도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中國은 安·史의 亂 以後 地方의 商工業이 발달하고 일반백성의 身  
分이 格上되는 등 전국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더욱이 中唐以後에는  
磁器의 高級化는 물론 우리나라와 日本에까지 활발한 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의 특징적 形式인 햇무리굽완이 中國의 全域과 韓國·日本에  
강하게 影響을 끼칠수 있었다.

中國의 社會와 磁器의 狀況은 우리나라의 狀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中國에서 日常生活用品으로 또는 海外輸出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磁器에 대한 인식과 산업성, 경제성은 보수적인 慶州의 貴族社會에서보다  
오히려 진취적이며 中國의 先進文物에 익숙해 있던 西南海岸地方의 實力者  
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고 곧 硬質陶器의 傳統的 製作技術을 바탕으로하여  
中國式 햇무리굽완을 비롯한 傳統的 形式의 靑磁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初期靑磁의 特徵들 중에 소위 先햇무리굽완이 出土하는 窯址는 高陽郡  
元堂面 元興里, 楊州郡 長興面 釜谷里, 龍仁郡 二東面 西里의 最下層, 瑞山郡  
聖淵面 梧沙里窯址로서 耐火軀으로 築窯한 점, 匣鉢받침, 先햇무리굽완의 出  
土가 특징이어서 구분이 가능해진다. 또 中國式 햇무리굽완은 康津郡 龍雲里9  
号窯址最下層과 高興郡 頭原面 雲垌里窯址에서 높은 굽의 鉢과 함께 발견되고  
있다. 특히 先햇무리굽완과 中國式햇무리굽완은 中國의 경우와 같이 內低圓  
刻이 없는 둥근 바닥이다. 韓國式 햇무리굽완은 器形이 작아지며 內低圓刻이  
있기 때문에 앞에 두가지 形式과 쉽게 구분된다. 龍仁郡 二東面 西里窯址의  
白磁群,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康津郡 大口面, 七良面窯址가 韓國式햇무리  
굽완의 窯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높은굽의 鉢도 함께 발견되고 있어서 中  
國式햇무리굽, 先햇무리굽과의 先後관계는 앞으로 조사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靑磁의 發生時期를 中國에서의 下限인 9世紀末頃으로 추정

했던것이 종래의 發表者의 意見이었다. 즉 中國에서 햇무리굽이 없어졌던 10世紀에서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 古式의 것을 다시 들추어내 만든다는 점이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고 더구나 햇무리굽 窯址의 靑磁片에서는 거의 文樣이 없고 그의 퇴화된 形式의 窯址에서 菊唐草文系陰刻文樣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中國 越州窯의 狀況과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中國은 唐代에 거의 文樣이 없으며 唐末・五代에 가서야 문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五代에는 굽의 形式도 接地面이 좁고 外反된 굽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10世紀에 韓國靑磁가 發生하였다면 中國 越州窯의 10世紀 樣式을 보여야 하는데, 실지 우리나라의 初期靑磁窯址에서는 越州窯의 唐代後期の 特徵인 無文 위주에 햇무리굽완을 포함한 器皿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햇무리굽완의 形式을 調査한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先햇무리굽과 中國式햇무리굽을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 이 형식들은 中國式에 더 밀접해서 韓國式햇무리굽보다 이른시기로 판단되고 있어서 文樣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그의 始原을 9世紀中頃까지 소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햇무리굽系의 완은 모두 匣鉢에 넣어서 燐造한 良質의 高級靑磁이다. 이것과 함께 出土되는 器皿으로는 높은 굽의 鉢로서 대부분 포개서 구워낸, 즉 匣燐이 아닌 常燐으로 燐造한 低級磁器가 있다. 이들의 形態는 統一新羅時代의 硬質陶器의 鉢, 전접시, 油瓶, 귀달린 작은 항아리 등이며 靑銅器皿의 形式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傳統的 造形의 繼承의 側面에서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햇무리굽완은 良質의 高級磁器로 9世紀後半頃부터 10世紀까지 계속 생산되었다고 생각하며 10世紀末頃부터는 햇무리形이 변화하면서 接地面이 좁아지고 일반적 형태의 굽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때 陰刻菊唐草文이 일부 시문되기 시작하게 된다.

白磁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資料에 의하면 韓國式햇무리굽碗만 확인되고 있으며 窯址의 狀況이나 出土品의 特徵, 無文의 傾向 등으로 9世紀後半, 즉 靑磁의 韓國式 햇무리굽완과 비슷한 시기로 생각되고 있다.

中國에서 8世紀後半부터 磁器質窯業이 보편화되고 日本에서도 磁器質의 전단계인 灰釉陶, 鉛釉陶가 9世紀에 盛行을 보게 된다. 이러한 中國, 韓國, 日本의 상황에서 韓國의 靑磁發生과 盛行의 시작을 9世紀後半으로 編年하는 것은 三國의 文化交流의 성향으로 보아도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소위 綠靑磁에 관한 최근의 研究動向은 기존에 崔淳雨(「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18・高麗, 1978)의 9世紀末~10世紀初期에 발생한 初步的 靑磁라는 견해에 대해 尹龍二(「高麗陶器의 變遷」, 『濶松文華』31, 1986)는



綠靑磁가 햇무리굽의 良質磁器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粗質靑磁라 하고 11世紀後半으로 編年하고 있다. 仁川市 景西洞, 海南 珍山里窯址는 匣鉢을 사용하지 않고 포개어 구워낸 粗質靑磁로서 10世紀後半頃부터 시작하여 11世紀前半頃까지 많이 제작되었으나 점차 良質靑磁에 흡수되어 綠靑磁는 소멸되었다고 생각된다 (鄭良謨, 「高麗靑磁」, 앞 圖錄 참조).

# 羅末麗初 韓・中交易과 西南海岸地域

## －高麗青磁의 起源問題에 關하여－

李 其 東

(東國大)

### I. 머리말

高麗青磁가 中國 越州窯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발생한 것이라는 데는 종래 學界에서 대략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開窯시기를 둘러싸고서는 아직까지 견해가 紛紛한 실정인데, 諸說의 大綱은 일찍이 高裕燮씨의 『朝鮮의 靑瓷』(日文, 1939. 뒤에 國譯되면서 『高麗靑瓷』로 改題)에 소개 정리된 바 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뒤 이 문제를 새롭게 論한 것은 故 三上次男씨의 「高麗陶磁의 起源とその歴史的 背景」(『朝鮮學報』99・100合輯, 1981)이었다. 씨는 이 논문에서 고려청자의 原型이 中國陶磁, 즉 浙江省地區의 名産인 越州窯 청자로 짐작되고 있고, 9세기 중엽 張報皐의 貿易船이 직접 明州(寧波)에까지 가서 이를 輸入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高麗時代 청자생산의 중심지가 淸海鎮(莞島)과 같은 地域圈에 속해 있는 康津郡 大口面일대였던 데서, 고려청자의 역사적 배경을 10세기 前期로까지 遡及 推察해 볼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시했다. 동시에 씨는 고려청자 생산의 지휘자는 고려 초기에 浙江지방의 吳越國 등지에서 渡來한 中國人 陶工이 아닐까 想定하는 등 실로 대담한 의견을 開陳바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자료의 잇따른 발견으로 말미암아 三上次男의 推論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提高되었다. 즉 1976년에 慶州 雁鴨地에서 出土된 靑磁 類品을 뒤늦게 분류 조사하는 과정에서 越州窯 햇무리(日暈文)굽청자와 同一 技法의 신라청자 破片이 일부 확인된 것은 이 계통의 청자가 이미 9세기 후반경 신라에서 제작되었을 蓋然性을 강력히 示唆하고 있다. 這問의 경위에 대해서는 鄭良謀씨가 『概說・高麗靑磁』(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에서 詳論하고 있으므로, 필자의 贅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같은 학계의 新知見에 留念하면서 新羅末, 高麗初에 있어서 韓・中

海上交易의 推移를 概觀해 보고, 특히 이 時期 西南海岸 지방이 갖고 있던 몇가지 社會經濟的 特殊性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즉 당시 中國과의 海上交易을 통해서 擡頭한 서남해안지방의 세력가들의 존재, 또한 交易에 隨伴하여 中國 특히 江南地方 吳越國에서 來投한 中國系 歸化人의 動向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人文地理的 견지에서 前近代 시기에 서남해안지역이 韓半島의 다른 지역에 比해서 生利面에서 남다른 特長을 지니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II. 羅末麗初 韓・中 海上 交易 概觀

新羅는 삼국통일 이후 약 1世紀間에 걸쳐 국제적인 평화와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확보하여 이른바 中代의 全盛時代를 謳歌하였다. 안으로는 민족의 力量이 하나로 집결되고 밖으로는 唐과의 關係가 한층 더 긴밀해진 결과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部分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문화의 向上과 더불어 산업경제의 발달은 刮目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처럼 一變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1)삼국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말미암아 신라가 가혹한 生存 戰爭에서 벗어나 국내외적인 평화를 누릴수 있게 된 점, (2)역시 삼국통일로 말미암아 한반도 내 각지의 物貨 交通이 圓滑하게 되어 산업 및 流通經濟가 발달한 점, (3)唐과의 해상교통이 크게 열린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中國을 빈번하게 來往하게 된 결과 中國의 발달된 制度와 文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등을 들수 있다.

이같은 산업경제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新羅人의 생활상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中國의 발달한 物品에 대한 需要擴大 현상을 초래하여 交易活動이 종전에 비하여 한층 더 활발하게 되었다. 하긴 삼국통일 이전에도 이른바 朝貢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土產品과 中國의 특산물을 公式으로 교환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新羅와 中國과의 關係가 8・9世紀의 羅唐關係 만큼 긴밀하지는 못했고, 또한 海上交通 자체도 黃海 橫斷航路가 개척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兩國間의 교섭에는 커다란 制約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런던 것이 삼국통일 후 朝貢의 回數가 급격히 증가했고, 더욱이 朝貢 使節에 附帶한 무역행위가 발생하여 公貿易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기에 들어와서는 공무역 이외에도 民間의 私貿易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무역만으로써는 充足시킬 수 없을 만큼 해외무역에 대한 慾求가 커졌기 때문이다. 唐은 民間의 사무역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安史의 大亂 이후에는 지방통제가 弛緩되어 朝廷의 禁令은 실제 死文化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형편은 新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신라에서는 8세기 후반 貴族세력의 大亂 끝에 中代 專制王權세력이 무너지고 下代(780~935)가 開幕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지방의 豪族들이 꾸준히 세력 기반을 확대해 갔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民衆世界가 갖고 있던 旺盛한 에너르기가 유감없이 發散되었다. 그것은 특히 海外進出과 交易活動에 있어서 하나의 新紀元을 劃하였다. 당시 韓·中 양국 모두 정부의 지방통제력이 느슨해진 때였으므로 巨利를 탐내는 신라의 민간 무역업자들은 唐조정의 禁令을 쉽사리 피해가면서 교역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張保臯는 이 시기 新羅人의 해외진출과 무역활동을 대표하는 가장 흥미있는 인물이다. 그는 9世紀 前半期 中國 山東半島의 남해안일대와 淮河유역의 여러 도시에 쭉 펼쳐있던 수많은 신라상인들의 商業基地를 호령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직접적인 장악하에 있었다. 나아가 그는 이를 발판으로 하여 한국과 中國·日本 사이의 三角貿易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실은 마침 張保臯의 全盛時期인 838~847년간 中國 沿海일대를 여행한 日本의 求法僧 慈覺大師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張保臯가 非業의 最後를 맞은 뒤 곧 淸海鎮은 閉鎖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地方豪族의 對唐 무역활동이 萎縮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沒落은 그간 淸海鎮세력의 강력한 統制下에서 氣를 펴지 못하고 있던 西南海岸지역의 群小 海商들에게 再起의 好機를 주었다. 그리하여 9세기 후반 해상세력가들은 新羅王朝의 衰亡期를 틈타서 보다 力動的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갔다.

高麗를 건국한 太祖 王建은 본래 開城지방을 거점으로 하여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家門의 後裔였다. 그는 祖父 이래 축적한 商業資本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권력에 파고 들어갔다. 그는 後三國時代의 動亂期에 後高句麗王 弓裔의 部下가 되어 禮成江 河口 가까운 貞洲(豐德)를 해상기지로 하여 西海上을 控制하면서 淸城(충남 唐津 沔)·羅州·靈巖·珍島등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세력가들을 자신의 휘하에 集結시키는데 성공했다. 한편 그는 多島海上의 해적소탕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점 王建은 어떤 의미에서 張保臯의 遺産을 계승한 後繼者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貿易業者의 후손에 의해서 開創된 高麗朝였던 만큼 韓國史上 다른 어떤 왕조보다도 무역에 대한 관심이 컸고, 실제로 高麗時代에 海上貿易은 매우 繁盛했다. 唐으로부터 五代를 거쳐 宋이 中國을 통일한 뒤 고려와 宋 사이에는 國交가 열려 朝貢을 통한 公貿易이 행해졌거니와, 그 뒤 11세기 초 顯宗 때에



이르러 宋商의 渡來가 갑자기 왕성해지면서 양국간의 民間무역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그 뒤 거란(遼)·女眞(金)의 압박에 의해서 麗·宋간의 國交가 一時 杜絶되었을 때에도 間斷없이 지속되었다. 今年 봄 張保臯의 本營이 있었던 莞島邑 長佐里 法華寺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綠靑磁 瓦片과 함께 北宋 徽宗 崇寧年間(1102~1106)에 제작된 崇寧重寶가 出土되었거니와, 이는 이 시기 民間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一例라 할 수 있다.

### III. 後百濟 및 高麗의 南中國(吳越)과의 交涉

羅末麗初에 있어서 韓·中海上交易의 展開와 더불어 人的·文化的 交涉도 활발했다. 高麗 太祖의 祖父 作帝建이 遊覽次 開城에 들른 唐皇子의 所生이라는 설화는 이같은 時代相을 배경으로 하여 꾸며진 이야기일 것이다. 그밖에 高麗의 開國功臣이었던 卜智謙은 본래 唐으로부터 泰安半島 櫟城에 정착한 移住民의 후예였으며, 南陽·溫陽 등지에는 이시기에 來投한 中國系 이주민의 전설을 남기고 있다.

당시 中國人の 來投와 더불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中國 江南지방 吳越國과의 교섭 및 그로부터의 渡來人들이다. 唐末로부터 五代·十國時代에 걸쳐 兩浙지방에는 鎮海節度使 錢鏐가 세운 吳越國이 强盛을 자랑했다. 越州黨는 바로 이 錢氏의 庇護를 받아 발전했으며, 978년에 錢氏가 몰락한 뒤에는 급격히 쇠퇴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吳越國과의 國交를 중시하여 일찍부터 교섭을 가진것은 다음아닌 後百濟였다. 甄萱은 900년 王을 自稱한 뒤 곧바로 使臣을 吳越國에 보내어 報聘 하면서 錢氏로부터 官爵을 받았다. 그 뒤 909년 그가 五越國에 파견하려던 船団이 光州 鹽海懸 부근에서 王建에 의해 拿捕되어 실패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 918년에 견훤은 또다시 吳越國에 사신을 보내어 名馬를 贈與하여 官爵을 받았고, 927년 말에는 吳越國의 班尚書가 사신으로 와서 後百濟와 高麗양국간의 和親을 勸告하는 國書를 견훤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견훤은 同 國書를 謄寫하여 高麗 太祖에게 移牒한 바 있다.

한편 高麗는 宋과 修交하기 이전에 五代の 曆代 王朝와 국교를 맺었지만, 건국 직후부터 吳越國으로부터 文士들이 來投한 사실이 『高麗史』에 보이고 있다. 즉 太祖 2년(919) 9월에 僭彦規가, 同 6년(923) 6월에 朴巖이 2來投했으며, 同 11년(928) 8월에는 新羅僧 洪慶이 閩府로부터 大藏經 一部를 배에 싣고 禮成江에 到着한 일이 있다. 이때 太祖는 親히 이를 맞이하여 帝釋院에

두도록 조치했다고 하는 바, 이 閩府란 吳越國에 隣接한 福建省 지방을 가리킨다. 뒤에 海龍王寺의 開山祖가 된 普耀禪師가 吳越國에서 船便으로 대장경을 구해 왔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新羅末 後三國時代에 韓半島와 吳越지방의 문화적 교섭이 자못 頻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高麗와 吳越國과의 교섭을 말해주는 자료는 이밖에도 많이 있다. 이를테면 太祖 때에 文柄을 장악한 崔彦爲의 아들 崔行歸만 하더라도 일찍이 吳越國에 留學하여 錢氏로부터 祕書郎의 요직을 除援받은 일이 있다. 그는 귀국 후 光宗의 倖臣이 되었다가 刑死했다. 또한 光宗 때 後周로부터 歸化한 雙冀와 더불어 草創期 科擧제도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등 高麗初期의 文風을 振作하는데 크게 寄與한 王融만 하더라도 吳越지방에서 來投한 것이 확실하다. 直觀禪師碑文에 의하면 崔承老는 그를 ‘閩川拂衣者’라고 했던 바, 이 閩川이란 福建省 북부를 흐르는 閩江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吳越國은 錢佐 때에 閩國內 王氏들의 亂을 틈타서 福州을 점령한 일이 있는데, 어쩌면 王融은 이 動亂을 피해서 高麗로 亡命했을 蓋然性이 크다.

#### IV. 西南海岸地域의 特殊性和 海上勢力家

이처럼 歷史書에는 吳越지방 文士들의 來投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羅末麗初期에 海商을 따라 南中國으로부터 各樣色의 사람들이 來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당시 中國 海商들의 활동범위가 禮成江河口로부터 靈巖에 이르는 西海岸지역에 集中되어 있었던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삼국통일 이후 山東半島 登州방면으로 부터 東北으로 거의 直線코오스를 따라 黃海道 椒島에 이르는 黃海 橫斷線路가 개척된데 크게 起因한다. 이 항로는 초도로부터 豐川·喬桐島·德積島를 거쳐 唐恩浦(南陽)에 이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 橫斷항로는 高麗건국 후에도 계속 이용되다가 11세기 후반 文宗 때에 거란(遼) 세력이 强盛하여 항로가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이보다 훨씬 남쪽인 이른바 東支那海 斜斷航路로 변경되었다. 이는 南中國 明州로 부터 黑山島 近海에 이르렀다가 다시 서해안을 따라 古郡山列島를 거쳐 終着地인 禮成港에 까지 北上하는 코오스였는데, 其實 이항로는 張保臯의 全盛時代에 이미 개척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羅末麗初期에 해상세력가들이 이 西海岸 일대에 집중적으로 布列하고 있었던 것도 이같은 貿易路와 깊은 관련이 있다. 地形的 條件을 보더라도 서해안은 屈曲이 매우 풍부하여 陸上交通은 不便한 대신 到處에 停泊處(港口)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海上交通이 발달했었다. 더욱이 西南海는 물살이 느린



까닭으로 船海에 편리한 利點을 갖고 있다. 비록 後代의 記錄이기는 하지만 『澤里地』에 의하면, 忠淸道 內浦지방을 비롯하여 京畿道, 全羅道, 海岸지방은 땅이 肥沃하고 특히 魚鹽이 매우 풍부했던 것으로 特書되어 있다. (『八道總論』). 또한 羅州·靈光·興德(高敞)·全州·恩津·江景 등 강과 바다가 서로 통하는 곳에는 商人들이 船便으로 往來하면서 巨利를 取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卜居總論』 生利條). 同書『卜居總論』 山水條에서 一節을 引用해 보기로 한다.

(A) 扶安 邊山은 높은 봉우리와 깎아지른 듯한 산꼭대기, 평평한 땅이나 비스듬한 벼랑을 막론하고, 모두 큰 소나무가 하늘을 치솟아서 해를 가리웠다. 洞口바깥은 모두 소금 굽고, 고기잡는 사람들의 집이고, 山中에는 기름진 밭들이 많다. 住民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下山하면 고기잡이와 소금 굽는 것을 生業으로 하여 땀나뭇과 조개따위는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풍족한다.(邊山, 無論高峰絶巔平地仄崖, 皆落落長松, 參天翳日, 洞外皆鹽戶漁夫, 山中多良田沃疇, 居民上山採蔬菜, 下山就魚鹽, 薪炭贏蛤, 不待價而足)

(B) 群山島는 전라도 萬頃바다에 있으며, 역시 僉使의 鎮을 두었다. 온통 돌산으로 못 봉우리가 뒤를 막았으며, 또 左右로 빙 둘러 안았다. 그 한복판을 두 갈래로 된 항구로 船舶을 감출 만하고, 앞은 漁場이어서 매년 봄·여름에 고기잡이 철이되면, 각 고을 장사배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모여들어서 바다 위에서 판매한다. 주민들은 이것으로써 致富하여 집과 衣食을 다투어 꾸미는데, 그 사치스런 것이 陸地의 백성보다 심하다. (群山島, 在全羅萬頃海中, 亦置僉使鎮, 而全身爲石山, 群峯障後, 左右環擁, 中爲汊港, 可藏船舶, 而前爲魚梁, 每春夏漁採時, 各邑商船, 雲擁霧族販賣於海上, 居民以比致富, 競治室衣食, 某豪侈甚於陸民)

그런데 (B)에서 볼 수 있는 18세기 群山島의 사정은 이보다 아주 오래전인 新羅末期에도 비슷했던 것 같다. 『東國輿地勝覽』 卷34 全羅道 萬頃懸 山川條에 실려 있는 群山島에 대한 記述을 보면 다음과 같다.

群山島는 “萬頃懸의 서쪽바다에 있는데, 주위는 60里이다. 벼랑이 있어 船舶을 감출 만하며, 무릇 漕運으로 왕래하는 자는 모두 이곳에서 順風을 기다린다. 섬 가운데 마치 君主의 陵과 같은 大塚이 있다. 近世에 이웃 고을 守令이 그 무덤을 파내어 金銀器皿을 많이 얻었는데, 사람들이 고발하자 逃走했다.(群山島, 在縣西海中, 周六十里, 有壩可以藏船, 凡漕運往來者, 皆候風于此. 島中有大塚如君主陵者, 近世有隣邑守令發其塚, 多得金銀器皿, 爲人所告而逃). 여기서 볼 수 있는바 朝鮮初期 盜掘時에 金銀器皿가 많이 出土된 마치 君主의 陵과 같은 이 大塚은 高麗時代 一個 지방 鄉吏의 무덤일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필경 中國과의

海上貿易을 통해서 巨富를 축적한 어떤 豪族의 무덤인 듯하며 그 시기도, 일단 張保皋가 활약하던 9세기 경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짐작된다.

## V. 맺는말

以上에서 보았듯이 新羅末期로부터 高麗初期에 걸쳐서 韓·中 양국간의 海上을 통한 交易은 韓國史에 있어서 하나의 新紀元을 劃하였다. 특히 新羅 下代는 정치적으로는 執權体制의 弛緩으로 無政府상태에 가까운 혼란기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農民層의 疲弊와 沒落 등 결코 惠澤받은 시대는 아니었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中央의 통제에서 벗어나 自活의 方途를 찾고 있던 韓國人의 숨은 底力이 한층 더 무섭게 폭발했었다. 高麗의 後三國統一에 의해서 이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收拾될 수 있었다. 하지만 新羅末期에 모처럼 일어난 民間의 무역활동은 高麗中期에 이를 때까지 거의 변함없이 持續되었던 것이다.

한편 韓·中 양국간의 교역활동에 隨伴하여 人的·文化的 交流도 활발했었다. 특히 唐末로부터 五代·十國時代에 걸쳐 南中國 兩浙지방을 지배하면서 越州黨의 보호 育成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 바 있던 吳越國과의 交渉은 주목되는 점이다. 後白濟王 甄萱은 이 吳越國과 緊密한 정치적 교섭을 갖고 있었다. 또한 高麗 역시 吳越國에 留學生을 파견한다든지 혹은 오월국으로부터 文士들이 續續來投한다든지, 또한 그곳으로부터 大藏經을 搬入하는 등 人的·文化的 접촉이 적지 않았다.

이 時期 韓半島의 西南海岸 지역은 韓·中 貿易船의 航路에 沿해 있었던 까닭으로 餘他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역의 利益을 오로지 享有했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海上勢力家들이 집중적으로 擡頭할 수 있는 基盤이 되었거니와, 그밖에 地形的 조건을 보더라도 이 지역은 江과 바다가 서로 통하는 곳이 많아 船便으로 內陸지방과 沿海지방의 各種 物貨를 集産·流通시키는 데 남다른 利点이 있었다. 더욱이 이곳은 土地가 肥沃하고 漁鹽이 풍부하여 富의 축적이 비교적 容易했다. 이같은 歷史的 및 地理的 諸般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일찌감치 吳越國으로부터 靑磁 製造技術을 받아들여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繼承과 中國 陶磁文化의 受容에 關하여

— 특히 韓國 青磁 發生時期를 중심으로 —

崔 健

海剛陶磁美術館

## 1. 序 言

이제까지 우리나라 陶磁史의 變遷과 性格을 糾明하는 방법은 中國의 陶磁文化를 宗主文化로 보고 그 文化의 波及과 受容問題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研究에 중심이 되어 왔다. 특히 青磁의 發生問題에 있어서도 中國의 唐·五代, 北宋時代의 青磁에 나타나는 현상을 念頭に 두고 우리나라 初期 青磁에 있는 다양한 形式들 중에서 中國의 要素를 찾아낸 후 그 要素들을 부각시킴으로써 影響關係와 編年을 설정하고 性格을 부여 하는 일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青磁의 發生時期와 初期 青磁의 性格들을 밝혀 내어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研究傾向이 中國과의 影響關係에서만 파악되어져 왔기 때문에 青磁 發生時期 以前에 硬質陶器<sup>1)</sup>와 初期 青磁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初期 青磁의 性格과 意義를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속에서 오랜 기간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온 硬質陶器의 傳統을 繼承하고 先進한 中國의 陶磁文化를 主體的으로 受容하였던 결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先進文化의 波及과 模倣의 결과로 잘못 인식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의 目的이 中國 陶磁文化의 影響力을 縮小시키거나 歪曲하려는 것은 아니다.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性格을 파악함으로서 그의 技術的, 造形的 傳統을 바탕으로 하여 先進한 中國陶磁文化를 主體的인 입장에서 取捨選擇의 과정을 통하여 受容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이

주1), 三國時代를 거쳐 統一新羅時代에 製作되어온 高火度還元焰으로 燒造된 것을 灰青色硬質土器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그의 質의 區分은 硬質陶器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崔健, 「陶磁器質의 分類」, 『統一新羅·高麗의 眞그릇』,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圖錄 16, 1987, pp.117~118참조.

발표의 目的이다.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 먼저 先學들의 研究 業績을 研究史的 觀點에서 파악하여 본 후에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特徵과 工藝的 意義를 糾明하고 이어서 靑磁와의 關係를 考察해 보겠다. 그러나 主題에서 밝힌 中國 陶磁文化의 受容問題는 다른 發表者의 發表內容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한 문제 제시로 대신하겠다.

## 2. 研究 視角의 變遷

우리나라 陶磁史의 研究 視角은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에 관한 研究와 認識이 증가함에 따라 中國의 影響關係에만 관심을 갖는 一元論的 視角과 그에 덧붙여 硬質陶器의 傳統에도 함께 관심을 갖는 二元論的 視角으로 양분할 수 있다. 물론 一元論的 視角은 硬質陶器의 資料가 微微했던 1970年代 以前의 學問的 限界에 원인이 있었다.

一元論的 視角으로 먼저 小山富士夫(『高麗의古陶磁』, 陶器講座22卷, 1937)의 高麗靑磁에 대한 研究가 中國 越州窯 靑磁와 器形과 紋樣의 類以性을 지적했던데서 시작된다. 이어서 野守健(『高麗陶磁의研究』, 1944)은 初期靑磁의 性格을 中國 越州窯의 製作技法을 전해받고 定窯와 汝窯의 樣式을 그대로 模倣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先學들의 研究時期에는 統一新羅時代의 陶器로 印花紋이 施紋된 소위 印花紋土器만 알려져 있던 資料的 限界가 있어서 불가피한 듯 보이지만 1970年代以後에 統一新羅後期 硬質陶器가 알려진 뒤에도 中國과의 關係속에서만 파악하려는 一元論的 視角이 계속되고 있다.

長谷部樂爾(『陶器講座』8, 朝鮮1, 1971)은 馮先銘의 越州窯에 관한 概括的 敍述을 인용하면서 韓國의 靑磁發生은 晚唐時代 越州窯의 影響으로 보았으며, 三上次男(「高麗靑磁と 起原ぞの 歴史的 背景」, 『朝鮮學報』, 99・100)은 越州窯와 함께 長沙瓦渣坪窯와 景德鎮窯의 影響을 받았으며 五代越州窯의 匠人이 직접 來韓하여 靑磁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一元論的 視角에서는 中國陶磁의 研究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靑磁 研究에 미치는 影響이 큰 폭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硬質陶器의 意義는 疏外될 수 밖에 없다.

한편 1970年代以後 統一新羅時代 生活遺蹟地인 雁鴨池, 皇龍寺址, 彌勒寺址에서 古墳 出土品이 아닌 日常生活用陶器가 알려지고 靈岩郡 鳩林里<sup>2)</sup>와

주2), 靈岩郡 鳩林里窯址는 1987년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에서 一次發掘調査를 하였다.

『靈岩郡鳩林里土器窯址發掘報告』, 1988. 여기서는 우선 窯의 위치만 확인하고 일부 堆積이 조사되었다.



保寧郡 眞竹里에서 대규모의 統一新羅後期 硬質陶器와 灰釉陶器의 窯址가 調査되어 初期靑磁와의 연관문제가 可視化하기 시작하였다. 研究者들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素材인 中國靑磁를 受容할 수 있는 與件이 이미 硬質陶器의 基盤에서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의 技術的, 造形的 傳統을 繼承한 初期靑磁의 要素를 檢出해 내는 二元論的 視角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崔淳雨(『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Vol.18.高麗, 1978)는 越州窯와 함께 北方靑磁의 영향을 지적하고 初期靑磁 形式의 경우에는 墳墓나 生活遺蹟址에서 出土된 無紋硬質陶器를 祖形으로하는 類形들을 제시하였다. 吉岡完祐(『高麗靑磁의發生에關한研究』, 1979)도 越州窯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製作技法에서 傳統을 繼承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鄭良謨(『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는 中國陶磁의 영향과 함께 雁鴨池出土의 硬質陶器나 靑銅器와 같은 器形이 初期靑磁에 있으며 이들이 初期靑磁에 있어 祖形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끝으로 崔健(『韓國靑磁發生에關한背景的考察』, 『古文化』 31輯, 1987)은 中國의 영향과 함께 硬質陶器에서 初期靑磁로 전환할 수 있었던 技術的 傳統의 基盤을 밝히고, 이어서 統一新羅前에는 用途에 따른 質的 構造가 大形器皿은 金屬器·木漆器·硬質陶器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後期에 가서는 木形器皿은 硬質陶器로 계속 제작되는 반면 小形器皿은 金陶器와 木漆器의 경우 材質을 바꾸어 靑磁로 제작되고 硬質陶器는 質的 上昇하여 역시 靑磁로 제작되었다는 假說을 세웠다.

이상과 같은 二元論的 視角은 종래의 學說과 같이 中國陶磁文化의 영향 관계에서만 파악하여 왔던 研究方法에서, 初期靑磁의 多樣性 속에서 統一新羅 硬質陶器의 樣式을 찾아 내고 構造的으로 연결시킴으로써 靑磁로의 質的 發展을 硬質陶器의 傳統을 바탕으로 하는 主體的인 입장에서 中國의 文化를 受容했던 결과로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3. 統一新羅時代 後期の 硬質陶器.

陶磁의 性格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資料의 分類은 研究의 視角에 따라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墳墓와 生活遺蹟址에 따른 分類法과 機能에 따른 器形別 分類法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總體의 性格 파악이 가능한 生産場, 즉 陶窯址 出土品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히 統一新羅後期에 대규모 生産遺蹟址인 靈岩郡 鳩林里窯址와 保寧郡 眞竹里窯址의 出土品에 초점을 맞추어 考察하겠다.



## 1) 編年

兩窯址의 編年은 無紋化 傾向, 盤口形 口緣部가 簡略化되고 高麗時代의 廣口形으로 連結되며, 方圓形甕・角瓶같이 器身의 面이 平面이 되는 器形의 出現 등의 特徵으로 統一新羅後期の 樣式<sup>3)</sup>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彌勒寺址에서 出土된 大中12年(858年)銘大甕片과 同伴하는 硬質陶器群이 眞竹里窯 生産品으로 糾明되어<sup>4)</sup> 대체적인 編年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眞竹里窯産이 彌勒寺址, 雁鴨池(小形油瓶類), 慶州 亥子遺址(梅瓶形四角瓶)등에서 出土하고 있지만 鳩林里産은 아직까지 出土品の 資料가 報告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와 유사한 것이 高麗時代 古墳에서 발견된 예도 없기 때문에 編年에 어려움은 있지만 眞竹里 特徵과 비교하면 어느정도 윤곽은 드러난다. 먼저 壺나 瓶의 形態에서 鳩林里式은 肩部가 팽창되고 강한 탄력성을 갖는 점에 비하면 眞竹里式은 평면적이며 方形에 가깝다. 廣口形口緣도 鳩林里는 예리하게 多重突起線이 나타나며 盤口形에 가까워서 新羅時代의 盤口와 유사한 반면 眞竹里는 거의 靑磁의 廣口形口緣에 가까운 형태이다. 器身의 側面을 두드려 面으로 만든 角瓶이나 角壺에서도 鳩林里는 器形의 탄력성에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量感이 있는 面을 만들었지만 眞竹里는 器形이 변형될 정도로 무리하게 面을 만들었다. 특히 靑磁梅瓶의 祖形인 梅瓶形四角瓶도 眞竹里瓶이 더 유사하며 鳩林里의 것은 原初의 梅瓶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形式上의 비교로 眞竹里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양쪽 모두 10基가 넘는 窯址의 존재와 거대한 陶片堆積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오랜기간동안 製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두 窯址의 編年은 統一新羅後期부터 高麗初期 즉 8~10世紀로 폭넓게 추정할 수 있다.

## 2) 製作技法

兩窯의 製作技法은 三國時代의 製作法을 잇는 傳統의 技法이 중심을 이룬다. 大形器皿의 製作은 券上法으로 윤곽을 만든다음 打捏法으로 器形을 정리하고 口緣部와 肩部의 表面을 다듬어서 완성하였다. 中形과 小形器皿은 打捏法이 사용되지 않고 券上法으로 윤곽을 만든 후 물레에 의한 水捺法의 흔적만 남아있다. 鳩林里의 壺・瓶등 中形器皿은 모두 平底로서 따로 굽을 만들어 붙이지 않았지만 小形油瓶은 接地面에 가까울수록 크게 벌어지는 統一新羅

주 3), 金元龍, 「統一新羅」, 『韓國史論』. 15・韓國의 考古學Ⅲ, 國史編纂委員會, 1985, pp. 538~540 참조.

주 4), 崔健, 「統一新羅・高麗時代의 陶器에 관하여—특히 器種別 材料와 質의 變遷을 중심으로—」, 註1)의 圖錄, pp.113~116. 참조.

前期式の 굽을 붙였다. 그러나 眞竹里의 中形壺・瓶은 平底의 경우도 있지만 接地面이 조금 벌어지는 낮은 굽을 붙이고 있어서 初期靑磁의 廣口瓶과 壺의 굽과 外見上 유사해 보인다.

이들 兩窯의 製作技法은 三國時代以來 발달되어 온 技術的 傳統을 繼承 發展하였다고 생각된다. 中形器皿에서 平底化 現象은 日常生活器皿으로서 實用的인 것이며 眞竹里 中形器皿에서 낮은 初期靑磁式 굽을 붙인것은 平底에서 靑磁式의 굽으로 발전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 3) 施釉問題

人工의인 高火度灰釉의 有無는 無釉硬質陶器에서 初期靑磁로 이행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兩窯址 出土品 중에서 특히 中形器皿인 瓶・壺의 경우 表面에 黑褐色의 釉層이 形成되어 있는 예가 많다. 鳩林里의 釉層이 高溫에 의한 自然釉 現像일 가능성도 있지만<sup>5)</sup> 眞竹里의 黑褐釉는 人工의 施釉이다.

### 4) 器皿의 質과 構成

兩窯址의 出土品은 質的으로 軟質陶器와 硬質陶器로 나뉘며, 硬質陶器는 다시 無釉陶器와 黑褐釉陶器로 나뉜다. 軟質陶器의 器種으로는 식루・자배기 등 調理用器나 헤드레그릇이 있으며 無釉硬質陶器는 大甕・壺・瓶 등으로 貯藏用器나 運搬用器가 있다. 黑褐釉陶器는 無釉硬質陶器나 함께 壺・瓶과 같은 中形의 運搬用器에 해당된다. 兩窯址에서 小形器皿으로 油瓶・小壺類는 있으나 日常生活에 가장 중심이 되는 飲食用器 즉 碗・鉢・櫛匙類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이들 窯址의 生産品이 調理用器나 貯藏・運搬用器를 중심으로하는 大形器皿만 專門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이들 大形器皿과 한 세트가 되는 小形飲食器皿은 어떤 材質을 어떻게 生産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sup>6)</sup> 初期靑磁의 器種이 小形飲食器皿 중심인 것과 연관되는 주목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 4. 硬質陶器의 造形的 傳統을 繼承한 初期靑磁

앞장에서 硬質陶器의 性格을 파악하기 위해 統一新羅後期の 대표적 生産  
주5), 崔健, 「韓國靑磁 發生에 관한 背景의 考察」, 『古文化』 31輯, p.27, (表2) 참조.

주6), 崔健, 註5)의 論文참조. 여기서 筆者는 大形의 硬質陶器와 한 세트가 되는 것으로 初期靑磁의 小形 飲食用器를 들었다.



遺蹟址인 鳩林里와 眞竹里窯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부분적으로 靑磁와의 관계를 밝혔다. 여기서는 硬質陶器의 造形的 傳統을 繼承한 靑磁의 器種에 대해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겠다.

#### 1) 碗・鉢・槃匙等 小形飲食器類

이 器種들은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兩窯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雁鴨池出土의 陶器 飲食器類에서 높은 굽과 口緣이 外反된 碗과 有蓋碗, 전 접시와 같은 形式은 初期靑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形式들이다. 물론 雁鴨池式 陶器가 직접 初期靑磁와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雁鴨池式 靑銅器가 陶器와 初期靑磁의 祖形이 되었을 것이다.

#### 2) 油瓶・小壺等 小形器皿

油瓶은 靑磁의 대표적 器種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 祖形은 兩窯에서 같이 발견되고 있으며 雁鴨池 出土品에도 眞竹里産으로 보이는 油瓶이 있다. 한편 彌勒寺址에는 다량의 眞竹里産 油瓶과 함께 初期靑磁 油瓶의 祖形으로 생각되는 靑銅製油瓶이 出土되고 있다.

#### 3) 廣口瓶

廣口長頸瓶은 雁鴨池 出土의 印花紋瓶이 있으며 兩窯의 중심되는 器種의 하나이다. 이 形態는 初期靑磁窯址인 康津 龍雲里9号에서 다량으로 발견된다. 특히 이 경우 陶器式의 불임굽을 하고 있기 때문에 形態는 물론 技術의 계승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高興 雲垆里 初期靑磁窯址에서는 靑磁와 함께 黑釉磁도 生産하였는데 靑磁는 小形飲食器類가 主種이고 黑釉磁는 廣口瓶을 포함한 壺等 中形器皿이 主種이었다. 특히 黑釉廣口瓶은 陶器式의 불임굽을 하고 있다.

#### 4) 梅瓶

梅瓶은 靑磁의 가장 대표적 器種이며 朝鮮前期까지 제작된\* 강한 傳統을 갖는 形態이다. 眞竹里의 四角瓶과 울릉도 天府洞2号墳出土의 四角瓶은 形態나 크기에 있어서 靑磁梅瓶과 똑 같다. 그리고 鳩林里와 雁鴨池出土의 梅瓶形 瓶들은 靑磁梅瓶의 祖形으로 생각되어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造形的 傳統이 靑磁의 形成에 기반이 되고 있었음을 밝히는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다.

### 5. 中國陶磁文化의 受容

初期靑磁의 現象중에서 硬質陶器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은 製作技



術에 관한 것이다. 造形에 관한 것은 앞장에서 보았듯이 강한 傳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 器形 즉 햇무리굽의 碗의 存在는 先進文化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받아 들인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技術의 克服은 中國陶磁의 交流가 전제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이며 또 交流가 있었다 하여도 受容能力이 없으면 새로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靑磁 製作을 위해 克服하여야할 技術的 與件이며 中國陶磁에서 배워 왔다고 할 수 있는 점은,

- ① 胎土와 釉藥 製造法.
- ② 耐火匣 製造와 使用法.
- ③ 굽받침으로 白色 耐火土 使用法
- ④ 耐火甌를 사용한 築窯法
- ⑤ 磁器式 成形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中國에서의 研究가 진행되고 國內의 調査가 축적되면 위의 문제점에 대한 윤곽이 밝혀질 것이다.

## 6. 結 語

韓國 靑磁의 性格을 밝히는 일은 최근들어서 中國과의 영향관계에서만 파악하는 視角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을 繼承한 靑磁에로의 視角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硬質陶器의 調査가 진행되면서 비로서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 靑磁가 中國의 先進陶磁文化를 受容하여 발전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韓國靑磁의 造形的 特徵이 中國과 달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삶의 체험 속에서 형성되어 온 硬質陶器의 造形的 傳統을 繼承한 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中國的 器形들은 主體的인 입장에서 取捨選擇의 과정을 통해 受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技術的인 문제에서도 先進技術을 받아들일 충분한 與件이 이미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 우리나라 출토 해무리굽 중국도자

姜 敬 淑

(서울 産業大學)

## I. 머리말

“해무리굽”이란 용어는 일훈(日勳)굽이라는 단어를 직역한 것이다. 해주 변에 둥글게 무리가 진것처럼 그릇의 굽을 깎을때 땅에 닿는 면이 넓게 되도록 굽을 넓적하게 깎는데서 유래하였는데 이러한 모양의 굽을 가진 그릇은 대 개가 완이나 대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옥벽저(玉璧低)또는 벽저(璧低)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사목고대(蛇目高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무리굽이 도자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제작되어 편년설정에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미 鄭良謨<sup>1)</sup>, 金載悅<sup>2)</sup>이 논한 바와 같이 해무리굽은 중국에서는 대체로 8~9세기경에 성하고<sup>3)</sup> 9세기 후반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唐代의 대표적인 굽양식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8세기후반~9세기에 唐의 수입자기에 힘입어<sup>4)</sup> 9세기후반경에는 해무리굽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sup>5)</sup> 이상과 같이 중국과 일본의 해무리굽의 제작시기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해무리굽완의 제작은 정양모, 김재열은 9세기 말엽경, 최건은 9세기 전반, 윤용이는 10세기 후반에 발생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sup>7)</sup>

1) 鄭良謨, 「高麗青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P.12 註<sup>1)</sup>

鄭良謨, 「高麗青磁」, 『高麗青磁名品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1989, PP.281-281

2)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韓國美術史學會, 1988, PP.7~8

3) 李知宴, 「唐代瓷窯概況與唐瓷的分歧」, 『文物』, 1972年3期, PP.34~44.

李知宴, 「唐窯瓷器發展에 대하여」,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陶磁篇』, 平凡社, 1985, PP.41~64.

4) 長谷部樂爾, 『日本出土의 中國陶磁』, 東京國立博物館, 1975, PP.60~61.

5) 高島忠平, 「平城京東三防大路東側滿出土의 施釉陶器」, 『考古學雜誌』, 57-1號, 1971, PP.65~80

吉岡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博物館, 1979.9.1.

6) 宋岡史・吉岡完祐, 『辛木遺跡』, 豊津教育委員會.



이처럼 해무리굽은 곧 우리나라 청자발생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출토 중국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무리굽도자와 우리나라 청자발생 문제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몇 학자들의 청자 발생설을 소개하면서 한 두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출토 중국도자

우리나라에서 출토되어 알려진 중국도자는 종합적으로 연구 발표된 바는 없지만 각종 보고서, 논문 그리고 개인적인 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알려져있다.

### 1. 고분출토

고분으로부터 출토된 중국도자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公州 宋山里 武寧王陵 출토 白磁<sup>8)</sup> 이 완은 백자이나 청자이나 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나 대체로 백자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완의 하한연대는 무녕왕이 죽어 합장하는 529년이며 중국의 南北朝시대에 해당된다.

### 2. 義城 출토 白磁瓶<sup>9)</sup>

이 백자병은 무덤으로부터 출토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金元龍의 글의 내용을 통해 보면, 石室墳 혹은 石槨墳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였고 9세기경의 唐那州白磁로 보고 있으며<sup>10)</sup>, 金載悅은 8세기 전반경의 唐代那州白磁로 언급하고 있다.<sup>11)</sup>

### 3. 慶州 拜里출토 청자항아리와 대접

경주 배리에서는 1960년 통일신라토기뼈항아리의 내호로서 중국 청자항

7) 주2, 金載悅 같은 논문, 9.10

주1, 鄭良謨 같은 논문, P.12, 註<sup>1)</sup>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筆』 31, 陶磁Ⅳ, 青磁,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PP 73~77.

崔建, 「韓國青磁發生에 관한 背景의 考察」, 『古文化』 제31집,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7, 9P, 17~35.

8)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 1974, P.44.

9) 金元龍, 義城出土唐邢州窯白磁瓶, 『亞細亞學報』 1輯, 亞細亞學術研究會, 1965, PP. 103~111.

10) 註9, 金元龍, 같은논문, PP. 104~110.

11) 주, 金載悅, 같은논문, P.5

아리와 대접이 각각 한 점씩 발견되어 보고되었다.<sup>12)</sup> 그 후 外壺인 토기배 항아리는 「元和十年」銘배항아리와 비교로 대체로 815년(元和十年)경의 제작용일 가능성을 제시한 글이 발표되었다.<sup>13)</sup> 따라서 배리출토 토기항아리 속에 있던 중국청자 두 점도 대체로 815년 언저리로 생각해 볼때, 중국산 도자기의 9세기 전반경의 사용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호로서의 청자 항아리는 치밀한 태토에 연한 청록색의 유약이 빙열없이 차분하며 중국의 長沙銅官窯의 제품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14)</sup> 해무리굽 청자대접은 내호의 뚜껑으로 사용되었는데 측면선은 둥글게 내만하였으며 청자류가 두 겹게 시유되어 빙열없이 차분하며 黃味が 감도는 올리브 그린같은 유색을 보인다. 이 해무리굽 청자는 三上次男이 9~10세기 초의 전형적인 越州窯靑磁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sup>15)</sup>

## 2. 寺址 出土

### 1) 慶州 皇龍寺址 출토품

#### ① 皇龍寺木塔址 心礎石下 출토 白磁小壺<sup>16)</sup>

이 백자소호는 心礎石의 南西끝 바로 아래 積心사이에 花崗岩으로 만든 덩개돌을 씌운 상태로 단독 출토되었다.

그 안에는 人骨성분이 담겨져 있었다는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骨壺였음을 짐작케 하며 唐白磁로 보고 있다. 이 백자소호는 木塔址 心礎石아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황룡사 목탑이 완성되는 646년<sup>167)</sup>이전의 것임을 알 수 있어 7세기 전반경의 唐白磁로 간주된다.

#### ② 皇龍寺址 출토 기타 청자, 백자편

황룡사의 中心內廊에서 출토된 陶磁器에 관한 報告書 내용을 보면 中國系 20点, 고려계 130점, 粉靑沙器 109점이 보고되고 있다.<sup>18)</sup> 中國系 도자기편

12) 姜弘燮, 「慶州出土 骨壺의 新例」, 『考古美術』, 제1~100호 합집, 上卷, 한국미술사학회, 1979, P. 105

13) 姜敬淑, 「慶州拜里出土 土器骨壺 小考」,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 刊行委員會公編, 1987, PP.215~227

14)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의 中國唐代陶磁과 그 歷史意識」, 『朝鮮學報』 87輯, 朝鮮學會, 1978, PP.16L23.

15) 卣14, 三上次男 같은논문, P.25

16) 文化財管理,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跡發掘報告書 I, 1984, PP. 325~326.

17) 「三國遺事」, 塔像 第4, 皇龍寺九層塔條.

으로는 항아리, 완, 접시, 뚜껑, 병 등 기형이 다양하며 시대는 7세기~10세기까지 걸쳐있다. 특히 해무리굽 청자대접과 백자편들이 주목되며 오대 북송초의 “官”字銘 백자편도 출토되었다.

## 2) 益山 彌勒寺址 출토 도편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大中 12年(858)銘 土器片이 출토된 층과 같은 층에서 세점의 해무리굽 백자와 한점의 월주요계 花形靑磁碗이 늦쇠사발 안에서 출토되어<sup>18)</sup> 이들 네 점의 백자와 청자는 858년 이전의 제작품임을 밝힐 수 있어 편년설정에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백자와 청자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 3. 안압지 출토

안압지는 1975~6년에 발굴되어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나 도자기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아 사실상 그 면모를 파악할 길이 없다. 다행히도 정양모가 안압지 출토 도자기 파편을 일부 정리하여 약간의 언급을 한 것<sup>20)</sup> 외에는 개인들이 몇몇 점만 개별적으로 논문에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sup>21)</sup>

안압지로부터는 월주요계 해무리굽청자편이 가장 많고, 그외 那州窯系 백자, 定窯系 白磁, 기타 백자,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층위별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압지 안에서의 사용 선후문제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압지의 건설이 647년이므로 上限年代는 추정되나 그 下限年이 문제이다. 『三國史記』에는 경순왕 5년(931) 2월 임해전에서 고려태조를 위한 잔치를 베풀기록이 마지막이다. 안압지는 신라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중심무대 역할을 끝난것 같으나 임해전 건물이나 못이 신라 멸망과 동시에 파괴된 기록이 없으므로 안압지 발굴에서 수습된 도자기편들의 下限문제는 대략 신라의 멸망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단순 소개하여 온 우리나라 출토 중국 도자기들은 6세기 전반경부터 10세기 전반경까지 다양한 종류들이 고분, 사지, 그리고 안압지로부터 출토되고 있어 당시의 무역, 왕실간의 교섭 등의 일단을 보여 준다. 특히 중국의 해무리굽완은 우리나라 9세기 유적지에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면 이들 중국 해무리굽완들이 한국도자사에서의 위치는 어떠한가?

18) 金正基·張敬浩·尹德香 『彌勒寺址發掘調査中簡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2, P.16.43·44.

20) 주1, 鄭良謨, 같은논문, 註<sup>1)</sup>

21) 주, 金載悅, 같은논문, P.32 도<sup>4)</sup>, P.36도<sup>4)</sup>

姜敬淑 「高麗白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172, 한국미술사학회, 1986, PP.38~39



### III. 해무리굽도자와 우리나라 청자발생 문제

해무리굽도자는 우리나라 청자발생 시기를 고찰할때 중요한 근거를 이루어 왔으므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해무리굽 편년자료를 먼저 간단히 열거한후, 우리나라 학자 네 사람의 청자발생 시기를 소개하면서, 과연 해무리굽이 우리나라 청자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경우 편년설정이 가능한 해무리굽으로는 ① 745년의 西安雷府君夫人宋氏墓 출토 백자완<sup>22)</sup>, ② 763년 湖南益陽縣赫山廟唐墓 출토 백자완<sup>23)</sup>, ③ 832년 王清墓 출토 청자완<sup>24)</sup>, ④ 858년의 廣州市 姚澹墓 출토 백자완<sup>25)</sup> 등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년설정이 가능한 우리나라 출토 해무리굽으로는 ① 815년 언저리로 추정되는 拜里 출토 土器배항아리 內壺 뚜껑으로 사용된 월주요 청자대접, ② 彌勒寺址에서 출토된 大中12年銘土器片(858)과 동일층에서 출토된 4점의 청자와 백자, ③ 931년을 잠정적인 下限으로 볼 수 있는 안압지 출토의 월주요 청자대접과 청자, 백자과편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해무리굽의 편년자료는 745년, 763년, 815년경, 858년, 931년 이전 등으로 요약되니 약 200년간인 대체로 8~9 세기경에 유행했던 굽양 식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즉 8~9세기 통일신라에서의 요업상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나?, 또 해무리굽 양식이 얼마큼의 시간과 간격을 두고 우리 기술자들이 받아 들이는가?, 아니면 중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기술 전수를 한 것인가?, 禪宗의 유행과 함께 해무리굽완은 飲茶容器로서의 특수 용도를 가진 그릇인가? 하는 중국 영향의 시간상의 거리, 기술 전수상황, 용도 등의 문제들이다. 그러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청자발생 시기를 살펴보자.

#### 2) 金載悅 발생론

이 문제에 대해서 金載悅은 中國의 해무리굽완이 음다풍습의 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馮先銘의 의견<sup>27)</sup>을 참작하여, 우리나라 茶의 유행을 629년

22) 張正嶺, 「西安韓森寨唐墓清理記」, 『考古通訊』, 1957, 5期, pp. 57~61.

23) 益陽縣文化館, 「湖南益陽縣赫山廟唐墓」, 『考古』, 1981年, 4期, pp. 315~318.

24) 周世榮, 「長沙唐墓出土瓷器研究」, 『考古學報』, 1982, 4期, pp. 509~523, 圖 1.

25)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三年來廣州市古墳葬的清理和發見」, 『文物參改資料』, 1956, 5期, p. 27, 圖 23. 甃 甃 甃

26) 馬先銘, 「從文獻看唐宋以來飲茶風尚及陶甃茶具的演變」, 『文物』, 1963年 1期, p. 10.

27) 주 2, 金載悅, 같은논문, p. 10. 10.

(『三國史記』), 931년(『高麗史』), 991년(『高麗史』)의 기록 例를 들면서, “수입茶碗으로부터 점차 다량의 茶碗이 자체 생산되었다고 보고 있지만……”<sup>27)</sup>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량 생산된 것이 반드시 해무리굽완이었느냐? 하는 등의 의견은 보이지 않고 하나의 가설(?)의 성격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해무리굽완은 唐代磁器를 模本으로 하고 통일신라 유적에서 이미 자체 생산된 것이 나타나고 있어…… 그 발생시기의 下限은 10세기초엽으로 일단 설정할 수 있을것 같으며, 중국에서 同形式의 완이 크게 성행한 8~9세기와 비교해 아무리 늦어도 9세기 말엽으로 생각한다.”<sup>28)</sup>라고 하여 해무리굽완의 발생시기를 9세기 말엽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열의 9세기말엽 설정설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이—이를테면 “통일신라 유적에서 자체생산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라고 막연히 언급한점— 큰 흐름 위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와 같은 9세기말엽 발생설의 애매한(?) 대 전제위에서 용인군 이동면 서리 고려백자 가마의 퇴적층의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 즉 퇴적층의 최하층은 古式靑磁, 그 다음 층이 古式白磁, 그 다음의 해무리굽 백자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어 西里의 경우에는 해무리굽 제작 이전에 이미 非해무리굽(혹은 先해무리굽, 초기청자 I 형식)인 古式靑磁와 古式白磁가 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1987년에 밝혀져서 도자사학계에 큰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래서 김재열은 해무리굽 양식의 발생을 이미 9세기 말엽이라는 대가설(?)을 설정하였기때문에 약 30년에 간격을 두고(변화의 시기적 단위를 왜 30년씩 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古式靑磁는 9세기전반, 古式白磁는 9세기중엽, 그리고 해무리굽은 9세기 말엽이라는 해무리굽 발생에 매우 중요한 김재열식 시기편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편년설정은 西里의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을 통해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얻어진 견해라고 보겠으나 어느 것이나 과학적인 증거나 절대편년자료의 근거가 없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해무리굽이 청자발생 시기에 대한 立論의 기준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2) 鄭良謨 발생론

정양모의 해무리굽 발생론은 9세기 후반설<sup>29)</sup>, 때로는 9세기 중엽설<sup>30)</sup>로 대체로 9세기 신라시대에 발생의 배경을 두고있다. 대체로 다음의 네가지 축

28) 주 27과 같음.

29)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1989, p. 268.

30) 주 1과 같음 ; 주 29, 鄭良謨, 같은논문, p. 281, 註 2



면에서 주장하고 있다.<sup>31)</sup>

첫째, 중국보고서에 의하면 해무리굽은 8세기~10세기 전반까지 제작되며, 일본의 경우는 10세기 중엽까지 일본토기에 해무리굽 방제품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만 유독 후대(구체적인 세기의 언급없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10세기 후반발생설을 가르키는 것 같음)에 만들었을리가 없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9세기 전반의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라든지 우리나라 자체내의 여러가지 여건이 施釉土器에서 靑磁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로 성숙하였더라는 이유를 들어 越州窯 기술을 바로 받아들였다고 봄, 셋째, 우리나라 해무리굽가마터 출토 도편을 통해 볼때, 해무리굽편이 많이 발견되는 가마터에서는 무늬가 없다. 해무리굽이 퇴화되기 시작하는 가마터에서는 음각무늬가 조금씩 나타난다. 이시기가 지나면 陽印刻문양이 조금씩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변화의 단계를 염두에 두고 중국측 보고에 의하면 唐代 월주요 청자에는 무늬가 없으나 唐末 五代에 가서는 무늬가 점차로 늘어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무리굽 청자가마터에서는 무늬가 없으므로 9세기 中頃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 넷째, 土器器形의 측면에서 볼때, 종래 고려토기라고 생각한 토기가 안압지 발굴조사 이래 그 편년이 그릇됨이 시정되어 통일신라시대로 정정되었다.<sup>32)</sup> 이를테면 통일신라 토기의 기형과 거의 똑 같은 기형의 청자(전전시, 油瓶, 귀달린 작은 항아리)가 초기 청자가마터에서 발견된다. 또 안압지에서는 鏤器 전접시와 대접뚜껑이 출토되는데 이들은 초기청자그릇에 있는 유형이다.

이상의 네가지의 측면에서 청자의 발생은 9세기 중엽경(혹은 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立論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부분-중국측 보고서와 일본측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객관적인 학술이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둘째부분-장보고 활동과 사회의 성숙에 따라 월주요의 기술을 바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점은 청자발생 시기에 대한 인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바로 받아들였다”라는 시기적 개념이 모호하며 학분적인 고증성이 결여되어 있어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부분-唐代 월주요 청자요지에서는 무늬가 없고 唐末 五代에 가면 무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무늬없는 해무리굽가마를 같은 성격으로 규명하여 중국의 변화와 같은 궤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왜 발생시기를 9세기 중엽경(혹은 후반)으로 보았는지 사실상 객관적으로 납득할 논조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넷째부분-고려초기라고 생각한 토기가 안압지 발굴 이후 통일신라시대로 정정되었다고 하나 고려초기 이를테면 초기라는 연대가 연

31) 주30과 같음.



제이나라는 문제와 또 통일신라는 935년에 망하므로 935년 근처의 통일신라인지, 통일신라는 약 260여년간 계속되었기때문에 어느 시점의 통일신라이나라는 구체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고증적이고 구체적인 비교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崔健 발생설<sup>32)</sup>

崔健은 唐代 後期사회와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사회적 배경의 비교와 硬質陶器와 磁器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청자가 갖는 일상생활기명으로서 이해하므로써 그 발생시기는 청자의 다량 생산여건이 갖추어진 9세기 전반에 생산되었다고 보고있다.

이외에도 吉岡完祐는 장보고의 활동과 康津일대의 청자가마의 운영과의 관계를 들어 9세기 전반의 청자발생설을 펴고 있다.<sup>33)</sup>

### 4) 尹龍二 발생설

이상과 같이 신라청자로 보는 네사람(吉岡完祐포함)의 9세기 발생설에 대해 尹龍二는 10세기 후반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다.<sup>34)</sup> 이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① 10세기 전반은 통일신라의 전통을 받으면서도 낮은굽, 새로운 기형의 灰青色 硬質土器가 제작되는 시기이다. 이런 예로는 안압지 출토 토기와 울릉도 天府洞고분 출토품들이 있으며 요지로는 전남 보령의 眞竹里와 영암의 구림리로 보고 있다. ② 10세기 후반에 가서야 청자가 제작되는데, 제작배경은 신지배 계층의 확대에 따른 文物의 수요층이 늘어나고 陶磁의 경우도 중국도자와 닮은 것을 제작 모색한 것이라고 본다. 三上次男과 李基白의 예를 들어 吳越의 중국 陶工이 도래했을 것으로 보아 製陶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으리라. 그리하여 기술 미숙의 초기 청자가마터들이 서남해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거대한 匣鉢의 퇴적층과 해무리굽 제작이라고 보고 이 점이 초기 청자가마터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시기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자료로서는 993년의 淳化四年銘항아리와 1022년(太平壬戌二年銘平瓦片)의 고창 용계리 청자가마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은 확실한 절대편년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

32) 주 7, 崔健, 같은논문.

33) 吉岡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관한 研究』, 崇田大學校博物館, 1979.

34) 주 7, 尹龍二, 같은논문.

입장위에서 피력한 立論이지만 필자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吳越시대 청자문화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둘째, 신지배층의 확대와 청자사용 판매를 고증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며, 셋째 10세기 전반으로 보는 灰青色 경질토기에 대한 기본되는 年代資料가 무엇인가?

해무리굽에 대한 절대편년자료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尹龍二와 같은 주장도 타당하다. 더우기 중국 자체에서도 해무리굽에 대한 시기별 연구, 지역별 연구, 또 형식변천에 대한 연구 같은 심층연구가 전혀 없기때문에 단지 8~9세기에 유행했던 唐해무리굽(앞에서 소개한 2,3점의 해무리굽 편년자료가 있을뿐)에다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문제를 너무나 의존하는 것도 학문적인 바른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해 과감한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 태도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해무리굽에 의한 청자발생설의 연구는 몇몇 대담한 9세기 전반 가설과 반면에 신중한 10세기 후반 발생설이 도자사연구에 학문적인 뜨거운 논쟁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가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태도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왕에 소개된 자료-황룡사지, 미륵사지, 부소산성등의 출토 중국 해무리굽에 대한 면밀한 조사

둘째, 안압지 출토 중국, 우리나라 청자, 백자편에 대한 면밀한 분류와 연구.

셋째, 기왕에 알려진 古式靑磁(先해무리굽, 初期靑磁 I 式)요지와 해무리굽 청자요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할 것이며 방법으로는 형식분류, 과학적인 분석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넷째, 서·남해안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초기청자 요지의 사회 경제사적 연구

다섯째, 연구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전거중심의 고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기초연구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술발굴에 의한 학술자료가 기본적인 연구대상의 하나이므로 발굴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해무리굽에 관한 연구의 관건은 용인 西里 고려백자가마 발굴의 학문적인 마무리이다. 뿐만아니라 10여년에 걸쳐 국립박물관이 행한 청자가마터발굴 보고서를 조속히 간행하여야만 이분야 연구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이상의 여섯가지 문제는 반드시 중국도자 연구와 병행해서 중국과의 도자 관계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일본도자 관계사로도 발전해야 할 것이다.





# 初期 靑磁窯址의 分布와 特色

尹 龍 二 圓光大學校

## I

현재까지 조사 확인된 高麗時代 靑磁窯址는 35개 지역 40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高麗時代 窯址들은 高麗靑磁의 研究에 있어 부족한 文獻記錄을 보완해 줄 뿐만아니라, 窯址의 地標調査, 發掘調査를 通하여 高麗靑磁의 起源과 전파과정, 製作方法, 製作年代, 窯의 구조 靑磁의 發展, 쇠퇴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들 高麗時代 靑磁窯址 중에서 初期靑磁窯址로 추정되는 窯址들의 分布와 出土遺物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이들 窯址들을 龍仁 西里窯址의 層位와 관련하여 製作時代, 起源및 發展과정 등을 考察하고자 한다.

## II

初期 靑磁窯址로 추정되는 窯址들을 지역별로 分布와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sup>註1)</sup>. 京畿道에는 仁川市 北區 景西洞窯址, 高陽郡 元堂面 元興里窯址, 龍仁郡 二東面 西里窯址, 楊州郡 長興面 釜谷里窯址가 있고, 忠淸南道에는 瑞山郡 聖淵面 梧沙里窯址, 保寧郡 川北面 沙湖里窯地가 있다. 全羅北道에는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窯址,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盤岩里窯址,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窯址, 鎭西面 鎭西里窯址가 있고, 全羅南道에는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 桂栗里, 沙堂里窯址, 七良面 三興里窯址, 高興郡 豆原面 雲垈里窯址,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窯址, 咸平郡 孫佛面 良才里窯址, 靈光郡 鹽山面 梧桐里窯址 등이 있다. 慶南의 釜山市 沙上面 德浦洞窯址와 慶北의 月城郡 見谷面 來台里窯址가 있고 北韓地方의 平南 江四郡 枋次面 二里窯址, 黃海南道 平川郡 鳳岩里窯址 등이 있다.

이들 窯址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1. 仁川市 北區 景西洞窯址는 해변가에 연한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1965年 仁川市立博物館이 國立博物館의 지도로 發掘調査된 곳으로 1990年 發掘報

1. 尹龍二, 「高麗陶磁窯址의 研究」

『考古美術』 171. 172. 1986. 韓國美術史學會

告書가 나왔다.<sup>註2)</sup> 出土陶片들은 胎土에 잡물이 많고 거칠며 釉色은 綠褐色, 暗褐色으로 器面이 고르지 못하다. 器形은 대접, 廣口瓶, 平底접시, 壺, 鉢片으로 굽주위는 시유되지 않은 예가 많고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구워냈다. 경사진 둥근 도지미가 다량 出土되었으며 發掘된 가마의 구조는 칸이 없는 통가마였으며 가마의 폭은 평균 1.2m, 현존 가마의 길이는 7.3m였다. 가마의 바닥은 三次의 보수가 있었으며, 경사진 가마바닥을 도지미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高陽郡 元堂面 元興里窯址로 50m×70m폭으로 구릉 위에 널려 있으며 出土遺物은 외반된 대접, 鉢, 碗, 항아리의 暗綠色, 綠褐色의 靑磁들로 文樣은 거의 없다. 굽다리는 비교적 넓고 좁으며, 灰白色의 耐火土받침으로 얇게 받쳐 구웠으며, 圓筒形과 화분형의 匣鉢片들과 匣鉢받침, 長方形의 가마벽돌이 무수히 쌓여 있으며, 거대한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碗의 경우 內底에 圓刻이 없으며, 굽다리가 좁은 햇무리완에 가까운 靑磁片들이 發見되고 있다.

3. 龍仁郡 二東面 西里窯址는 1930年代 李朝陶器窯蹟을 調査하였던 淺川伯教氏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으며, 1960年代에 鄭良謨先生에 의해 재조사되었고, 그후 1984年 11月 湖巖美術館에 의해 發掘調査된후, 1987年, 88年의 三次調査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sup>註3)</sup> 거대한 匣鉢片등의 堆積層과 함께 80m에 이르는 가마 그리고 作業場과 瓦家の 건물들이 조사되었다. 出土遺物은 주로 白磁片들이었으며 약간의 靑磁, 土器片들 그리고 圓筒形의 匣鉢片들과 長方形의 가마벽돌片, 窯道具, 瓦片들이었다. 器形으로는 碗, 鉢, 壺, 盒, 瓶, 접시, 주전자, 등으로 특히 햇무리굽완들과 大形器들이 많은 것이 주목되었다. 굽다리에는 灰色의 耐火土로 얇게 받쳐 구운 것들과 粘土가 섞인 것으로 받쳐 구운 예들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5m에 가까운 堆積層의 조사결과 크게 4層으로 區分되어 조사된 결과는 전국의 초기靑磁窯址 出土의 陶磁片을 區分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4. 楊州郡 長興面 釜谷里窯址는 구릉위에 넓게 널려진 窯址로 원통형의 匣鉢片들과 匣鉢 받침, 長方形의 가마벽돌 그리고 綠褐色을 띠는 靑磁의 완, 접시, 대접片들이 灰白色의 耐火土받침으로 얇게 받쳐 구운 예로 發見되고 있다.

완의 경우 內底에 圓刻이 없으며, 굽다리가 좁은 것, 햇무리굽에 가깝게

2. 鄭良謨, 金英媛, 具一會, 『仁川 景西洞 靑磁窯址』, 1990. 國立中央博物館, 仁川直轄市.

崔淳雨, 『仁川市景西洞 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 7권 6호 1966.

3. 湖巖美術館, 『龍仁西里白磁窯』 1987, 三星美術文化財團



넓은것 등이 出土된다.

5. 瑞山郡 聖淵面 梧沙里窯址는 50m×60m 규모의 큰 퇴적층으로 낮은 구릉위에 널려 있다. 무수한 圓筒形과 鉢形의 匣鉢片들과 함께 長方形의 벽돌片과 匣鉢받침片들이 쌓여 있고, 그와함께 暗綠色, 綠褐色의 靑磁片이 出土된다.

器形은 盃, 접시, 대접, 瓶, 鉢片들로 文樣은 거의 없으며, 盃이나 鉢의 경우 內底가 넓게 깔여 있다. 굽다리는 좁으며, 灰色의 耐火土받침으로 얇게 받친 흔적이 나있다.

6. 保寧郡 川北面 沙湖里窯址는 마을 入口와 안쪽의 두곳에서 發見되며 규모는 작다. 마을 入口에서는 綠褐色의 기벽이 얇은 옹기와 같은 鉢, 缸片들이 전과함께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안쪽에는 平底의 접시들이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구웠으며, 粗質의 靑磁片들로 匣鉢片은 없었다.

7.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窯址는 마을 구릉에 널려 있으며 쌓여 있는 퇴적더미가 비교적 큰 규모이다. 수많은 圓筒形, 鉢形의 匣鉢片들과 갑발받침드리고 長方形의 벽돌片들과 함께 靑磁片들이 發見된다. 綠褐色, 暗綠色의 釉가 얇게 시유된 靑磁의 盃, 접시, 대접片들이 주로 발견되며, 굽다리는 햇무리굽에 가까운 넓은 굽과 內底에 圓刻이 없는 鉢片들이 發見된다.

8.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盤岩里窯址는 1983年 雅山댐 수몰지구발굴조사의 일환으로 圓光大學校에 의해 조사보고된 窯址로 40m×80m 규모의 거대한 퇴적층을 이루고 있었다.<sup>註4)</sup> 圓筒形의 무수한 匣鉢片들과 小量의 靑磁, 瓦, 土器片이 出土되었고 44m의 가마와 작업장, 瓦家의 건물지등이 발견되었다. 出土 靑磁들은 전형적인 햇무리굽碗들과 접시, 탁잔, 瓶, 盒, 大鉢, 小瓶 등 다양하게 出土되었다. 文樣은 陰刻의 連弁文, 雲文, 樹木文 등이며, 釉色은 淡綠色의 얇게 시유된 釉에, 굽바닥에도 耐火土를 얇게 받쳐 구웠다. 현존하는 가장 규모가 큰 퇴적층을 지닌 窯로, 햇무리굽碗片들과 함께 太平壬戌二年(1022年) 銘의 瓦片이 발견되어 주목되었으며, 이곳 용계리 산 넘어 盤岩리에도 같은 규모의 靑磁窯址가 있음이 확인 조사되었다.

9.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窯址는 1984년에 조사된 곳으로 수기의 요지가 널려 있다. 灰靑色硬質陶器의 壺, 廣口瓶片이 黑褐色의 陶器片들과 함께 靑磁碗, 대접片들이 出土된다. 平底의 접시를 포함하여 外反된 대접, 굽다리의 폭이 고르지 않는 鉢, 경사진 둥근 도지미 등이 發見되며, 기벽이 얇다. 黑褐釉 陶器역시 廣口의 瓶, 壺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처럼 靑磁, 黑褐釉陶器, 灰靑色硬質陶器가 함께 發見되는 것은 주목될 사실로 생각된다.

4. 鄭明鎬, 尹龍二, 「古敞雅山댐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馬白研究所, 1985



10. 扶安郡 鎭西面 鎭西里窯址는 바닷가 마을 구릉에 34개소의 窯址群이 널려 있는데, 바닷가에 연한 곳에서는 平底접시류와 굽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鉢, 碗들이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구운 例들로 발견된다. 경사진 도지미를 사용하였으며, 綠褐色의 粗質의 靑磁片들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11.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 桂栗里, 沙堂里, 三興里窯址 중 초기靑磁요지로 알려진 곳은 50여개소에 달한다.<sup>註5)</sup> 圓筒形의 匣鉢와 匣鉢 받침대片和 함께 전형적인 햇무리굽 靑磁碗및 變形 靑磁碗이 발견되는 곳들로 규모는 작은 편이다. 靑色이 고르게 시유된 전형적인 햇무리굽 碗들의 片들과 함께 접시, 합, 대접, 잔, 廣口瓶, 전접시片들이 出土되어, 文樣으로는 陰, 陽刻의 連弁文이 주로 發見된다. 햇무리굽의 變形으로 작아진 굽다리의 碗들과는 平底접시류 들과 함께 기벽이 얇아지고 陰刻, 堆花, 鐵畫, 陽刻의 手法이 시문된 靑磁片들이 發見되고 있다. 햇무리굽 靑磁가마터에서 發見되는 匣鉢은 기벽이 얇고, 구멍이나 기호가 나있는 예가 많으나, 變形된 햇무리굽 靑磁가마터에서는 기벽이 두꺼워지고 커진 匣鉢과 약간의 기호가 나있는 예가 있어 대조되고 있다. 또한 햇무리굽 靑磁窯 주변에서는 灰靑色의 硬質陶器의 廣口瓶, 壺片들이 함께 出土되는 窯址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靑磁窯址는 龍雲里에 가장 많고, 桂栗里, 沙堂里에는 일부만 있으며, 三興里에는 초기요지만 分布되어 있다.

#### 12. 高興郡 豆原面 雲垌里窯址

석촌마을 윗구릉과 아랫구릉에 4개소가 확인되었다. 윗구릉에서는 햇무리 굽碗을 주로하는 대접, 접시片이 수많은 圓筒形의 匣鉢片들과 함께 出土되었으며, 특히 黑釉의 廣口瓶, 壺片이 함께 發見되고 있다. 햇무리굽碗의 경우 內底에 圓刻이 없이 넓으며, 햇무리의 굽다리가 넓고 폭이 컸다. 胎土도 정선되어 있고 靑磁釉도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아랫구릉에서는 작아진 變形햇무리굽碗들과 굽다리가 일정치 않는 鉢, 陰陽刻蓮弁文碗片도 出土되는 窯址가 있어 주목 되었다.

13.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窯址群은 1983年 발견되었고, 1984年 發掘調査된 莞島 海底出土 靑磁들을 제작한 곳으로 밝혀져 더욱 큰 관심이 되었던 곳으로 해안가 구릉에 30여개소의 窯址들이 확인되었다.<sup>註6)</sup> 이들은 약간의 시대차는 있었으나, 粗質의 暗綠色, 綠褐色의 靑磁碗, 대접, 접시, 瓶, 梅瓶, 鉢, 長鼓, 壺, 廣口瓶片 등으로 굽다리에는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과 얇은 耐火土받

5.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198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6. 金得豐, 「全南 海南郡山二面珍山里靑磁窯址調査報告」 ①~⑥ 1983.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침으로 포개어 구운 靑磁들과 드물게 良質의 靑磁, 匣鉢片들이 發見되었다. 특히 變形된 햇무리碗, 平底접시, 굽다리가 고르지 않은 外反된 대접, 접시 그리고 경사진 도지미의 존재 등이 주목되는 곳이다.

14. 咸平郡 孫佛面 良才里窯址는 1987年 光州博物館에 의해 발견 조사된 곳으로 註7) 5기의 窯地가 확인되었는데, 出土遺物은 粗質의 綠褐色靑磁가 주류를 이루며 匣鉢片도 발견되고 있다. 變形된 햇무리굽碗, 접시, 대접의 고르지 않은 굽다리, 廣口瓶, 陰刻蓮弁文盒 등이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구웠으며, 平底접시片도 발견된다.

15. 靈光郡 鹽山面 梧桐里窯址는 良才里요지와 산너머 계곡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같은 성격의 靑磁요지이다. 함께 발견된 것으로, 경사진 둥근 도지미와 함께 變形된 햇무리굽靑磁碗과 平底접시의 粗質靑磁片이 發見된다.

16. 釜山市 沙上面 德浦洞窯址는 지금은 공단조성으로 사라진 요지이다. 綠褐色의 거친 釉胎의 粗質靑磁들로 대접, 접시片이 出土되었으며, 鉄畵의 草文이 차유롭게 그려진 대접片이 있다.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포개어 구웠다.

17. 月城郡 見谷面 内台里窯址는 1970년대 정양모先生에 의해 발견된 곳으로 소규모이다. 綠褐色의 粗質靑磁鉢, 접시片들이 發見되며,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포개 구웠고, 平底접시에 경사진 도지미片이 發見된다.

18. 江西郡 苴次面 二里窯址는 1937년에 조사된 요지로 수많은 匣鉢片들과 함께 약간의 靑磁片들이 거대한 8개의 구룡을 이루며 堆積되어 있다. 靑磁碗, 접시, 대접, 片들이 出土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19. 平川郡 鳳岩里窯址는 1959년에 발굴조사되어 略보고서가 나온 곳으로, 圓筒形, 鉢形의 무수한 匣鉢片과 匣鉢 받침, 長方形의 가마벽돌이 거대한 퇴적층을 이루고 있으며 조사결과 45m의 등요가 발견되었다. 綠褐色, 淡綠色의 靑磁碗, 대접, 瓶, 접시片들이 얇은 耐火土받침으로 구워졌으며, 良質과 粗質의 靑磁片이 섞여 있었다. 鉢, 鉢의 경우 内底에 圓刻이 없고 굽다리는 좁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up>註8)</sup>

### III

初期靑磁窯址들의 分布는 대부분 西海岸 一帶에 집중적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가마의 규모와 堆積상태, 出土遺物의 특징 등을 비교 分析해 보면 몇가지

7. 국립광주박물관 「全南地方陶窯址 調査報告(II)」 1988. 국립광주박물관 pp.56~61

8. 리병선, 「황해남도고려자기가마터발굴보고-평천군봉암리자기가마터-」 1963. 고고학자료집3집. 과학원출판소.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初期窯址 중 層位조사가 잘 이루어진 龍仁 西里窯址 堆積層位調査에 의하면 크게 4개의 층위로 區分되는데,<sup>49)</sup> 가장 오래된 最古層인 四층에서는 內底에 圓刻이 없고 굽다리의 폭이 좁으며 기벽이 얇은 鉢, 鉢片들과 함께 기벽이 얇은 圓筒形, 鉢形의 匣鉢片들과 長方形의 가마벽돌이 發見되었으며, 이 층에서는 전형적인 햇무리굽碗이 전혀 보이지 않는 先햇무리굽層으로 부를 수 있었다.

그 위의 三層은 층의 두께가 얇으며 碗의 경우 굽바닥의 폭이 보다 넓어진 것이 나타나고 있다. 龍仁의 경우 제일 아랫층의 靑磁片들에서 三層부터는 白磁위주의 靑磁와 黑磁가 少量 나타난다.

전형적인 햇무리굽碗이 出土되는 二層에서는 다소 두껍고 거친 耐火土를 이용한 匣鉢片들과 함께 접시, 鉢, 盒, 瓶 등 다양하게 出土된다. 二層의 퇴적층위는 두꺼운 편이다.

最上層으로서 一層은 굵은 모래가 섞인 耐火土로 두껍게 만든 圓筒形의 匣鉢를 주로 하여 器形이 작아지고 좁아진 變形햇무리굽완과 粗質의 접시, 대접, 大形의 그릇들과 鉄畫의 長鼓片이 出土되고 있다. 접시, 대접의 굽다리는 두께가 일정치 않으며,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포개어 구운 例가 많다.

이와같은 龍仁 西里窯址의 堆積層位調査를 기준으로 전국에 널려있는 초기窯址들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最古層인 四層의 先햇무리굽層과 같은 窯址群으로 高揚 元興里窯址, 瑞山 梧沙里窯址, 鎭安 道通里窯址, 江西 二里窯址, 平川 鳳岩里窯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窯址들에서는 內底에 원각이 없고 굽다리의 폭이 좁은 碗, 鉢片들과 圓筒形 및 鉢形의 匣鉢, 長方形의 가마벽돌이 함께 發見되고 있으며 窯址의 규모가 큰 규모이다. 最古層인 四層에서 出土되는 碗과 鉢은 中國 江蘇蘇州 處邱塔納置品으로<sup>50)</sup> 1957年 塔수리시 발견된 961年の 3靑磁碗 2点과, 江蘇 南景李璟墓出土品으로 961年の 靑磁碗 5点의 器形, 釉色이 비슷하여 주목되었으며, 대체로 10世紀後年頃으로 四層位の 시대를 추정하게 한다.

三層의 窯址로는 楊州 釜谷里窯址, 高敞 龍溪里窯址, 高興 雲垈里窯址를 들 수 있으며, 靑磁와 함께 白磁, 黑磁 등이 함께 제작되었고, 10世紀末로 추정된다. 有名한 淳化四年銘(993年) 壺를 이 4, 3層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9.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pp.5~7. 1989. 『老古美術』, 韓國美術史學會.

10. 長谷部樂雨, 「十世紀の中國陶磁」 PP.199~201.



추정할 수 있다.

전형적인 햇무리굽의 二層의 窯址로는 龍仁 西里, 高敞, 龍溪里, 盤岩里 窯址 외에 康津 龍雲里, 桂栗里, 沙堂里, 三興里 窯址 등을 들 수 있다. 代表的인 샷갓모양의 햇무리굽碗과 접시, 廣口瓶, 鉢, 盒, 瓶, 托鉢, 鉢, 鉢, 鉢, 鉢 등이 다양하게 出土되며, 陰, 陽刻의 蓮升文碗, 盤, 盒이 出土되기도 한다. 제작시기를 高敞 龍溪里 窯址에서 햇무리碗과 함께 太平壬戌二年銘平瓦片이 發見된 것과 日本九州지방에서 發見되는 高麗靑磁햇무리碗이 11世紀後半의 層에서 中國陶磁와 함께 發見되고 있어<sup>11)</sup> 二層의 시기를 11世紀初에서 1070年代에 이르는 시기로 추정하고자 한다. 즉 전형적인 햇무리碗의 중심시기로 11世紀初半에서 中半에 이르는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最上層인 1層의 變形햇무리굽碗과 平底접시, 경사진 도지미의 出土, 굽다리의 두께가 일정치 않고 굽바닥에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굽는 窯址로 仁川 景西洞 窯地, 保寧 沙湖里 窯址, 扶安 牛東里 窯址, 鎭西里 窯址, 咸平 良才里 窯址, 榮光 梧桐里 窯址, 海南 珍山里 窯址, 康津 龍雲里, 桂栗里 일부요지, 釜山 德浦里 窯址, 月城 來台里 窯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약간씩 시기의 선후의 차가 있으나, 위와같은 몇가지 공통점이 보이며 가마의 규모가 작은 점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이들 요지에서는 드물게 硃石받침의 예도 있으며, 鐵畫, 堆花, 陰刻, 陽刻의 技法이 고르게 쓰였다. 추정年代로는 1085年 楊平 梅月里古墳出土의 靑磁碗으로 보아 11世紀後半인 1070, 80년경부터, 12世紀初半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莞島海底出土의 30,000여점의 靑磁들이 이 시기로 址定된다.<sup>12)</sup>

11. 山本信夫, 「日本における初期高麗靑磁について一大宰府出土例を中心として」 pp.13~15. 1985. 貿易陶磁研究. No5.

12. 文化財管理局, 『莞島海底遺物』 1985.  
文化財管理局.



# 龍仁 初期 白磁窯址發掘調查報告

金載悅

## I. 序

京畿道龍仁郡二東面西리에 소재하는 初期白磁窯址는 1930年代에 淺川伯教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1960年代에 鄭良謨선생이 고려초기요지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湖巖美術館에서는 '84, '87, '88년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생 및 展開에 관한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내는 수확을 올린 바 있다

이 발굴조사에서는 가마유구조사와 퇴적층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최초의 벽돌가마유구와 최대의 진흙가마유구를 발견하였고 퇴적층조사에서는 해무리굽과 관련된 4개의 층위를 확인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 도자기 발생 및 변화의 계보를 고고학적 층위에 의해 밝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본 발표에서는 발굴경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뒤, 층위별 출토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II. 發掘概況

○ 유적형상 : 龍仁西里 가마터유적은 해발 120~130m의 산능선을 따라 M形의 퇴적구릉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체크기는 길이가 80m, 폭이 50m이며, 北便丘가 80×20m, 南便丘가 70×30m이며 퇴적높이는 6m에 달하고 있다. 이 퇴적구릉의 가운데 움푹한 폭 2m여의 골짜기에서 가마유구가 발견되었다.

○ 발굴경과 : 3차례 발굴조사의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가마유구 : 구릉 가운데 골짜기에서 나타난 가마는 동일지역 내에서 중첩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아래층에서 벽돌가마가 나오고 이 벽돌가마와 잇대어 위에서 진흙가마가 있어 먼저 벽돌가마를 사용하고 이어서 진흙으로 축조한 가마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양자가 공히 舊地表面을 파서 축조한 半地下式의 登窯로 바닥에 모래를 깔고 갑발을 받침으로 삼아 수평을 유지한



일종의 계단식가마인데, 초기벽돌가마의 존재확인은 처음이다.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1차 발굴조사	1984. 11. 19 ~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적의 범위 확인과 대체적인 성격파악</li> <li>• 진흙가마 노출 및 건물지 발굴</li> <li>• 출토유물 분석을 통한 고려백자 개념 정립</li> </ul>
1차 보고서 발간	1987.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물, 출토지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li> <li>• 폐기 지역분석에 따른 가마위치 추정</li> </ul>
2차 발굴조사	1987. 10. 15 ~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최대 진흙가마 발굴(83m)</li> <li>• 벽돌가마 존재 확인</li> <li>• 퇴적구의 연속층위조사(先해무리굽 청자, 백자)</li> </ul>
3차 발굴조사	1988. 5. 6 ~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窯床下部調査</li> <li>• 벽돌가마 外壁 연장조사</li> <li>• 퇴적구 층위조사(E<sub>1</sub>N<sub>1</sub> 지역) : 해무리굽층에서 상갑片 발견</li> </ul>

① 벽돌가마 : 1, 2차조사에서 大形의 진흙가마가 발견되고 이어 진흙가마 아래에서 벽돌가마가 나타난 관계로, 진흙가마의 보존을 위해 벽돌가마는 대략적인 규모파악에만 그쳐 벽돌가마의 세부사항은 아직 미확인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조사로서는, 이 벽돌가마는 폭 1.8m, 殘存高1.4m, 殘存長40m가량이며, 7×15×32cm에 달하는 長方形의 큰벽돌과 작은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完形외에 깨어진 것들도 상당수 이용되고 있으며, 특이하게 앞머리 부분에서는 화강편마암계의 장방형돌을 함께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현재 약 30cm에 이르는 벽돌가마 窯床堆積에서는 해무리굽片들이 나오고 있어 이 가마가 퇴적의 3층과 2층에 관계된 것으로 믿어진다.

② 진흙가마 : 이 진흙가마는 해무리굽 末期단계부터 최종시기까지 사용된 가마로 벽돌가마가 폐기된 후, 벽돌가마 벽에 잇대어 축조하여 폭이 훨씬 좁아들었고, 처음에는 봉통부를 여러곳으로 옮겨가며 30~40m 길이의 가마를 사용했던 것 같으나, 최종에는 이들을 모두 연결시켜 83m에 달하는 超大形가마를 운용하였다. 이 최종시기의 가마는 진흙과 匣鉢을 사용해 축조했으며, 현재 봉통부, 窯室, 초벌칸들이 잘 남아 있는데 가마바닥에 깔린 모래퇴적은 약 30cm에 이르며, 여기서 출토된 磁片들은 모두 해무리굽 이후단계의 것들로서 퇴적구의 맨 윗층의 퇴적물들과 일치되고 있다. 이 가마에는 왼쪽편에 23개의 出入門이 나 있으며, 진흙가마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및 규격	구 분	내용 및 규격
재 료	진흙+갑발	窯室 길이	66.5m
총 길 이	83.26m	초벌칸 길이	11m
폭	1.2~1.5m	출입문 수	23개
現窯壁높이	1m 内外	출입문의 간격	2.5~3m
봉통부 길이	5.7m	窯床 경사도	약 11°

### III. 堆積丘調査에 따른 層位別 出土狀況

현재 M形의 丘陵狀으로 보이는 퇴적은 조사결과 거의 平地 위에 쌓여진 匣鉢등의 요폐기물로 구성된 거대한 순수퇴적임이 밝혀졌으며, 퇴적깊이가 5~6m에 달하고 있다. 퇴적구 조사는 구릉의 6곳을 절개하여 퇴적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각 지점에서 3~4개의 자연층위가 발견되었으며, 층위상태는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해무리굽보다 이른시기층, 해무리굽시기층, 해무리굽 이후시기층으로 구분됨은 명확하여 해무리굽碗類 생산시기보다 이른 시기의 청자 및 백자의 존재가 층위상 확인되고 있다.

퇴적층위조사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지역은 퇴적이 가장 높게 쌓인 W<sub>1</sub>N<sub>1</sub> 지역으로 전체높이가 6m에 달하는데 이곳에서는 4개의 자연층위와 1개의 인공층위가 뚜렷이 나타나 이것이 용인요지 층위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용인요지의 층위는 I期層, II期層, III期層, IV期層으로 나눌 수 있다.

① I期層 : 퇴적층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용인요지에서 最古期の 層으로 현재까지 W<sub>1</sub>N<sub>1</sub>지역의 퇴적에서만 나타나며 두께는 약 2m에 달한다. 이 퇴적층은 기벽이 얇고 잘 정선된 耐火土로 만든 匣鉢片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磁片은 매우 드문편인데, 生土層가까이에 가마벽으로 사용된 벽돌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다시 그아래에 50cm깊이의 구덩이가 있으며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는 古式의 청자만이 출토한다. 그리고 生土面의 약 30cm 위에서 부터 청자와 백자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출토상황을 고려해 이 퇴적층을 다시 I期-a層, I期-b層으로 구분하였다.

• I期-a層 : 얇고 小形의 갑발들과 5~6形 갑발받침대 및 청자편들이 나온다. 청자류는 크게 2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벽이 매우 얇고 胎色이 적갈색에 가까우며 釉層이 얇으면서 유리질이 거의 안되어 얇은 토기같은 모습의 종류와, 또하나는 기벽이 前者보다는 두터우나 역시 얇은 편이고 釉色은 올리브·그린이나 暗褐色계통의 색조를 띠며 釉層이 고르고 유리질이 잘 된 편이다. 이들 청자류는 기형상 굽의 직경이 5~6cm가량의 碗類와 굽직경이 7.5~8.5cm가량의 鉢類로 크게 나뉘지며 양자 모두 굽바닥의 폭은 해무리굽 보다 좁아서 0.5~0.8cm로 1cm미만이다. 기벽모양은 해무리굽류에 비해 약간 弧形을 이루며 内底에는 圓刻이 없고 소성받침은 耐火土를 사용해 굽바닥면의 거의 전면에 얇게 바르거나 4~5곳에 얇게 받치고 있다. 그리고 鉢類는 거의 포개어 소성했으나 碗類는 거의 포개구운 흔적이 없다.

• I期-b층 : 퇴적양상은 a층과 동일하나 여기서 부터 백자가 나타나 청자와 백자의 비율이 반반 정도가 된다. 청자류는 아래 a층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백자류는 碗의 경우 청자완들과 同形으로 弧壁에 굽의 바닥쪽이 해무리굽 보다 많이 좁으며 內底圓刻이 없다. 백자의 胎土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기벽의 두께가 얇고 정제되어 있고 白色의 純度도 꽤 양호한 편이며 유리 질산화가 잘 되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上品의 백자질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해무리굽계 백자류에 비해 다소 軟質이며 일반적으로 표면에 미세한 빙얼이 자잘하게 퍼져있고 약간 누른기를 띠고 있어 해무리굽계 백자와는 시각적으로도 금방 구분이 갈 정도이다.

이 층에서 출토된 백자鉢중 밑등에서 꺾어져 올라간 大形鉢 1점에서는 外面에 蓮瓣文이 희미하게 음각된 것이 있어 주목되며, 기타 이다음 시기에 크게 유행하는 花形접시류가 소량보이는데 일반 백자질과는 달리 푸른기를 띤 경질에 예리한 품격을 보이며 II期層 출토 것에 비해 구연이 波狀인 것이 특징이다.

② II期層 : 이 층은 W<sub>1</sub>N<sub>1</sub>지역에서 I期層과 자연퇴적이 뚜렷이 구별되는 赤褐色混土層에 해당되나 出土磁片이 워낙 소량이어서, 오히려 맞은편, 北便口의 W<sub>2</sub>N<sub>1</sub>지역의 III층과, W<sub>1</sub>N<sub>1</sub>지역과 같은 구릉의 맞은 편인 E<sub>1</sub>N<sub>1</sub>지역의 IV층, III층이 이 시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 층에서는 대부분 백자가 다량으로 출토하고 있어 이시기 부터 白磁全燒窯址로 바뀔을 알 수 있다. 백자류는 I期層의 전형적인 백자와 함께 새로이 푸른기가 있는 보다 경질의 백자류가 생산되었는데, 역시 碗・鉢類가 주로이며 기형은 I期層의 형식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많으나, 굽바닥면의 폭이 보다 넓어진 것도 많이 나오며, 극소량이지만 굽바닥폭이 1cm가 넘는 해무리굽류 백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해무리굽류 백자片은 기벽이 두텁고 直斜壁에 묵직한 느낌을 주며 보다 硬質이면서 녹색이나 청색기운을 띠고 있다. 이 시기층에는 白磁花形접시류가 상당량 출토하는 것이 특징으로 口緣直下에서 밑등까지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어 좁은 수직대를 만들었는데 내면에 凸帶가 뚜렷하다.

이 층에서 출토한 백자류들은 퇴적의 윗쪽으로 갈수록 硬質白磁類의 量이 많아지고 해무리굽片도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E<sub>1</sub>N<sub>1</sub>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청자류는 소량이지만 I期層과 유사한 것들이 소성된 반면, 기벽이 보다 두텁고 거친 소성형태를 보이는 것이 새로이 나타나며 해무리굽片이 한두점 보인다.



③ III期層 : 다소 두텁고 약간 거친 耐火土를 이용해 만든 갑발과 가마 폐기물로 이루어진 층으로 각 지역의 II층에 해당되며 출토하는 자편들에 굽바닥폭이 1~1.5cm의 전형적인 해무리굽백자완들이 많고 청자는 극소량이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해무리굽 백자완 변조시기의 퇴적층으로, 백자의 釉色이나 제작수법등이 앞의 II期層에서 일부 보았던 해무리굽碗類와 동일하며, 이것이 이 시기에 와서 다량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기벽은 거의 直斜形을 이루며 內底圓刻이 생겨 있고, 전체 포개굽지 않으며, 기벽의 두께가 많이 두터워져 둔중한 느낌을 준다. 釉色에 연한 녹색이나 청색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광택이 다소 무딘 것이 많아 II期層의 백자류에 비해 오히려 질적으로 못해진 상태이다. 한편 II期層에서 흔히 보았던 先해무리굽 형식의 碗, 鉢도 아직 소량 존재하고 있다.

이 III期層은 다시 퇴적의 윗쪽에서 부터 퇴화된 형식의 해무리굽碗이 나타나는데, 굽전체폭이 5cm이하로 器形이 작아지고 태토에 細砂粒이 섞인 粗質이 많고 釉面도 탁해지면, 특히 굽다리가 심하게 內傾되면서 밑둥과의 격임이 거의 없어 굽다리 外樣이 희미해진 상태가 되어 일견하여 퇴화형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E<sub>1</sub>N<sub>1</sub>지역에서 이 III期層의 아랫부분, 즉 전형적인 해무리굽碗 소성시기에 象嵌片들이 출토된 점이다.

④ IV期層 : 자연퇴적의 最上層으로 흑갈색부식토가 섞여져 있으며 요지 전면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데 특히 구룡의 산쪽으로 갈수록 이 퇴적층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이 퇴적층은 굵은 砂粗가 섞인 거친 耐火土로 만든 두텁고 무거운 갑발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마중 후기의 진흙가마를 운용하면서 생긴 퇴적임이 확실하다. 해무리굽 다음 시기의 퇴적층으로, 이 층에서는 대부분 질이 조잡한 백자류가 보여 급격한 질적 하락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砂粒이 섞인 거친 胎土에 外面의 下半部를 施釉하지 않은 半施釉가 많으며 덜굽힌 상태의 것이 많고, 여러개를 포개구운 粗質접시류가 가장 많다. 器種이 다양해져 특히 立体的인 大形器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형상에 지방적인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碗, 鉢類들은 輪形굽이나 오목굽으로 변해져 있으며, 質은 거칠지만 기벽이 얇고 弧形的의 기벽이 上部에서 약간 오무라졌다가 다시 벌어지면서 外皮口緣을 이루는 날렵한 형태의 碗, 鉢에는 內面の 口緣아래 一條陰刻線이 돌아가 있어 전형적인 11세기 靑磁碗, 鉢의 모습과 상동하고 있다. 또한 이 IV期層에서 鐵畫白磁類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⑤ 窯床面出土品 : 퇴적층은 아니나 가마의 최종바닥면에서 출토한 것이

므로 본요지에서는 최종시기에 해당된다. 이 最終窯床面出土品들은 IV期層 것과 동일하게 鉢, 접시류나 大形の 盆類들이 있다. IV期層에서 자주 보이는, 内面 口緣아래 一條陰刻線이 있는 外皮口緣 鉢들이 역시 이 窯床面에서도 채집되었다.

이상 퇴적층의 출토현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이 요지는 처음에는 청자를 번조하는 요지로 시작하였다가 곧 백자를 굽게 되고 뒤이어 백자전소요지로 변화하며, 둘째, 해무리굽碗類 보다 이른 시기의 청자와 백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셋째, 해무리굽을 중심으로 볼 때, 굽바닥面의 폭이 좁은 것(先해무리굽)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 이 선해무리굽 후기부터 전형적인 해무리굽이 나타나는데, 先해무리굽碗의 경우, 内底圓刻이 없고 포개구운 예가 많다는 점등이 새롭고 중요한 사실로 여겨진다.

#### IV. 結語

지금까지 龍仁西里窯址의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성과들을 堆積層位調査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 層位學的 증거들은 美術史學的의 가장 기본이 되는 形式學的의 研究를 최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므로, 앞으로 더욱 분석,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층위별 상황을 보면 龍仁西里요지의 성격이나 변화과정이 나타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생 무렵의 諸樣相들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碗, 鉢類의 굽형식을 기준으로 요약하면, 先해무리굽靑磁時期(I-a期)→先해무리굽白磁時期(I-b期)→先해무리굽, 해무리굽混用時期(II期)→해무리굽全盛時期(III期)→退化해무리굽時期(III期末)→輪形굽時期(IV期)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기별 先後관계의 변천을 놓고 우리는 개략적으로 한국도자기의 발생시기 및 展開課程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① 龍仁西里요지의 성립은 중국백자의 영향이 아닌 한국청자의 영향아래 발생하였다고 본다. 즉 I-a期の 靑磁類들은 瑞山 梧沙里, 鎮安道通里, 高陽元興里등의 초기청자요지 출토품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데, 기형은 물론 벽돌가마의 존재, 원통형 匣鉢및 갑발받침대의 존재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이 최초의 청자류에서 영향을 받아 곧 동일한 유형의 백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先해무리굽백자류들은 물론 唐代的 유명한 邢窯나 定窯白磁와는 기형이나 제작기법상 차이가 나며, 앞의 초기청자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③ 발생시기는 이들 先해무리굽, 해무리굽, 花形접시류들이 중국의 경우 대체로 唐代에 크게 유행한 것들이므로 우선 그 下限을 唐末인 9세기末로 보고, 上限은 신라인의 浙江省 이동이나 張保皐의 海上活動등 역사적 사실과 관련짓고, 雁鴨池, 皇龍寺址, 彌勒寺址의 통일신라시대層 출토磁器類의 상황이나, 飲茶의 流行, 통일신라末의 토기요지에서서도 小器皿의 소멸, 日本内の 考古學的 成果 및 중국의 越州窯調查등에 의거하여 일단 청자의 발생은 9세기 前半頃으로 보고자 한다.

④ 浙江省寧波市부근의 唐代청자요지조사(林士民, 「勘察浙江寧波唐代古窯的收獲」, 1984,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에 의하면 해무리굽의 기형뿐 아니라 원통형匣鉢및 갑발받침대가 龍仁西里窯의 I, II期에 사용된 것과 同一하여 기술적으로 越州窯영향을 거의 따르고 있음이 확실한데, 이들이 사용된 9세기 前半(819年頃) 무렵에 龍仁窯址 I期層도 존재했으리라 믿어진다.

⑤ 龍仁西里窯址의 백자발생의 경우, 퇴적상으로 보아 청자에서 곧바로 백자로 넘어온 감이 짙어, 늦어도 9세기 中葉頃에는 발생하였다고 믿어진다.





# 경서동가마를 중심으로 한 綠靑磁문제

金英媛

國立中央博物館

良質靑磁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粗雜한 靑磁로 綠靑磁라고 命名된 一群의 청자가 있는데 이 청자에 대한 발굴보고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녹청자에 대한 최초의 발굴약보고가 1966년 6월에 崔淳雨선생에 의해 발표되면서 고려청자의 선구적인 유형이라는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 완도발굴보고서에서는 尹龍二교수가 녹청자는 지방관청 및 세력층 그리고 사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지방가마의 產品이며 시기적으로도 청자 이전의 시기가 아닌 11세기 중후반경(文宗 1047~1082)에 속한다고 하는 매우 이색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경서동요출토 녹청자를 중심으로 녹청자의 양식비교, 가마구조, 他 지역출토품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한국 陶磁史에 있어서 綠靑磁가 갖는 意義와 位置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1. 경서동가마출토 녹청자

경서동녹청자의 종류는 대접·완·접시·항아리·병·자배기 등인데 대접·완·접시 저부편이 약 3,500개가량, 盤口長頸瓶片은 약 150개가량, 항아리片은 30여개에 달한다.

대접은 ① 口緣 外反 형식 ② 갈고리모양으로 특이하게 內彎한 曲口형식 ③ 口部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온 형식의 세종류가 있다. 內底円刻이 있는 경우는 ③의 대접에만 해당되고 ①, ②대접에는 內底円刻이 없다. ②의 曲口형식은 경서동에서만 발견되는 형식으로 통일신라의 토기 高林밀짚에서 흔히 볼 수 있다. 曲口대접은 口緣外反대접보다 4배정도로 많아서 경서동녹청자에 토기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굽은 소홀히 깎은 다리 굽인데 간혹 죽절굽형식이 발견된다.

완은 內底円刻이 있고 口緣이 外反한 것과 直口式인 것이 있다. 이와 유사한 직구식 완은 강진 용운리에서도 수습된 바 있다. 굽은 다리굽(죽절굽형식포함), 平底, 平底굽(굽안바닥을 깎지 않고 편편하게 만든 굽), 안굽의 네 형식이 있다.

접시는 구연에서 굽에 이르기까지 直口式인 것, 구연이 外反한 것, 內彎한 것의 3형식이 있다. 內底円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굽은 다리굽(죽절굽형식포함), 平底굽, 平底, 안굽의 4종류이다.

盤口長頸瓶은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부분에 이음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굽다리를 뚜렷이 짚은 예는 없고, 안굽형식으로 굽안 바닥이 우묵하게 들어가는 정도이다.

이 외에 항아리片, 뚜껑片, 손잡이片, 대발(자배기)片 등이 있다. 항아리는 구연부형식에 따라 16가지로 분류되고 바닥은 平底 일색이다. 특히 外反된 口部는 土器의 그것과 같은 형식이고 완도해저에서 인양된 녹청자·흑갈유·토기 항아리의 口部와 흡사하다. 뚜껑은 半破된 片 1개가 발견되었을 뿐이며 손잡이 片이 몇개 나왔는데 항아리에 부착된 파편이 있어 항아리의 손잡이였음을 알 수 있다.

경서동녹청자의 몇가지 특징적인 형식은 통일신라 토기고배의 구연부와 유사한 대접의 曲口형식, 토기 盤口瓶과 같은 盤口형식이 병과 항아리의 口部에 나타나는 점, 內底円刻이 있는 대접이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점 경서동의 완·접시의 중앙이 우묵하게 들린 바닥은 안압지 토기잔과 접시의 바닥과 같은 형식인 점 등이다. 중앙이 우묵하게 들린 굽의 형식은 안압지나 울릉도 天府洞, 木川土城에서 나온 통일신라 토기의 전통을 따랐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서동녹청자에서 대접의 다리굽, 합·접시의 平底·안굽·다리굽의 각 유형은 안압지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그러나 다리굽의 형식에는 차이가 있어 안압지 토기 대접은 전형적인 토기의 벌어진 다리굽이지만 경서동녹청자대접에선 이미 청자의 다리굽으로 변형되었다.

胎土는 비교적 精選되어 기벽이 얇고 회색 내지 회흑색을 띤다. 그런데 釉에는 雜物이 섞여 있어 器面이 울퉁불퉁하며 發色이 좋지 않은 暗綠色·綠褐色계통이다. 게다가 가마 안에서 釉의 용융상태도 좋지 않아서 작은 斑點모양으로 유약이 묻쳐 있고 變色된 것이 많다. 이러한 釉色과 釉面의 상태는 가마구조가 靑磁窯로서 부적합했음을 의미한다.

대접·완·접시는 포개어 구웠기 때문에 그릇의 안바닥과 굽다리바닥에 耐火土받침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다.

## 2. 경서동요의 구조와 窯道具

경서동가마는 해안 구릉지대에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축조한 登窯로 경사도는 22°이다. 가마에는 通焰孔이나 隔壁이 없는 單室窯인데 길이는 5m가량



남아있음이 확인되었고 추정되는 본래 길이는 7.3m이다. 天井과 窯口部는 파괴되었다.

가마바닥은 2次에 걸쳐 보수되었다. 처음에는 生土 위에 모래를 깔았으며 1次 보수할 때에는 모래 위에 粘土, 그 위에 板石을 깔고 다시 5~7cm정도로 모래를 깔았다. 이 두번째 가마바닥이 가장 잘 보존되어 봉통쪽의 모래가 高溫에 녹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남아 있다. 2次 보수할 때에는 모래 위에 粘土, 얇은 板石, 다시 粘土, 맨 위에 5~7cm두께로 모래를 까는 순서로 가마바닥을 축조하였다.

요도구로는 경사진 바닥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도지미[陶枕]을 깔았다. 따라서 경사진 도지미가 다량으로 발굴되었다. 그러나 포개구이를 했기 때문에 匣鉢은 단 한개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窯道具와 가마구조는 전남 영암 구림리의 가마보다는 훨씬 발달했으나 良質청자를 구워내던 전남 강진가마의 계단식의 칸가마에 비하면 원시적인 구조인 것이다.

### 3. 他地域녹청자와의 比較

인천 경서동가마 외의 녹청자가마로는 全南海南郡山二面珍山里·草松里 일대, 全南咸平郡孫佛面良才里·靈光郡鹽山面梧桐里·忠南保寧郡川北面沙湖里, 慶北月城郡見谷面來臺里, 부산德浦里(이미 현상변경됨) 등지가 발견되었다.

#### ① 沙湖里녹청자와의 비교

앞에 소개한 가마들 가운데 가장 이른 양식을 지닌 녹청자를 구웠던 곳이 충남 보령 사호리가마이다. 이곳에서 수습된 綠靑磁片은 모두 향아리이고 완·鉢이나 접시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이곳의 녹청자향아리片들은 거의 대부분이 口緣部를 밖으로 말아붙인 특이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법상으로는 말아 붙였으며 마치 옹기독의 口緣 같은 전의 형식, 粘土帶를 붙인 것같은 형식, 그리고 盤口瓶의 口部처럼 위·아래가 턱이지며 돌출한 형식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사호리출토 土器壺의 口部는 매끈하고 부드러운 線을 나타내는 청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토기의 특징에 가깝다. 또한 器面에는 打捺文이 있어 口緣部형식과 함께 토기제작기법과 직결된다.

胎土는 비교적 精選된 것도 있으나 氣孔이 많은 편이며 표면이 파괴처럼 부풀기도 했다. 완전히 燻造되지 않아서 태토가 2~3개의 층을 이루고 있으며

釉도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斑點모양으로 묻혀있다. 경서동녹청자의 釉胎와 비교하면 한층 粗質이며 토기에 더 가깝다.

항아리의 바닥은 모두 平底이므로 바닥을 파들어가서 가장자리에 굽을 만들거나 굽다리를 붙인다거나하는 제작기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사호리녹청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초기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유태나 그릇의 형식, 특히 平底의 바닥과 말아붙인 口緣部형식, 器面의 打捺文 등은 土器와 연결되는 특징이다.

특히 沙湖里출토 녹청자의 주된 器種이 壺인 점과 경서동출토품이 주로 鉢・碗・접시류인 점은 일상생활용품으로 土器보다는 녹청자사용이 증가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녹청자가 보편화되면서 가마에 따라 번조해 낸 전문 器種이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사호리에서는 壺를, 경서동에서는 더욱 일상생활과 밀접한 鉢・碗・접시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호리와 경서동의 녹청자양식을 비교해 보면, 사호리쪽이 경서동에 先行함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珍山里녹청자와의 비교

진산리가마는 녹청자의 종류와 質에 따라 크게 두개의 群으로 구분된다. 제1군은 靑文靑磁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태토가 粗質인 녹청자를 제작한 가마들이다. 이들 가마의 녹청자는 유가 얇게 시유되었으며 황녹・청녹・암청 등의 색조를 띤다. 외면에 물레자국이 있고 굽은 다리굽으로 거칠게 깎았다. 또 어떤 대접의 다리굽은 높고 밖으로 벌어진 토기대접의 굽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 口緣이 外反한 花形碗이 출토되어 「太平壬戌」銘(1022년)기와와 同伴한 高敞龍溪里出土 花形碗과 유사하여 상대편년에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포개구이하여 그릇 內底와 굽다리바닥에 耐火土받침자국이 4~5개소에 남아 있다.

그리고 측면 斜面式[直口式]에 內底円刻이 있는 碗이 발견되는데 굽은 變形해무리굽이고 비교적 단정하게 번조되었다.

이 지역의 철회청자 역시 粗質胎土에 鉄繪草文이 간략하게 시문되었다.

다른 가마군에서는 陰刻・透刻・象形・鉄繪・堆花 등의 여러 기법을 사용한 청자가 출토되었다. 良質胎土이며 유약의 質도 전자에 비해 진일보하여 透明度가 높고 다소 두껍게 입혀졌으며 釉色에서 갈색조가 사라지고 녹색이 두드러진다.

器種도 다양하여 대접・접시 뿐 아니라 병, 합, 장고, 자배기, 뚜껑 등이



나왔다. 鉄繪靑磁 역시 전자에 비해 한층 세련되어 草花·唐草·牡丹·蓮花 등의 문양이 기면에 가득차실적으로 시문되었다.

이상과 같이 진산리녹청자는 그 양식에 있어 두 종류로 구분되며 유태나 시문·제작수법으로 보아 전자가 후자보다 앞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진산리와 경서동의 녹청자를 비교해 볼 때, 경서동에선 그릇의 종류와 기형이 한정되고 유태의 質도 粗惡하며 문양장식이 거의 없는 원시적인 단계의 녹청자가 생산되었고, 진산리에선 한층 다양하고 발전된 양식의 녹청자가 만들어졌다.

### ③ 莞島해저인양 녹청자와의 비교

1983,84년 2차에 걸쳐 완도 어두리해저유물의 발굴에서 많은 도자기와 소수의 금속기·목제품들이 인양되었다. 도자기는 대부분이 녹청자며 약간의 黑褐釉, 토기 4점이 포함된다.

녹청자는 대부분이 無文靑磁며 鐵繪靑磁가 15점 발견되어 주목된다. 청자의 유색은 황갈·녹청·암녹·회청·흑갈의 색조를 띠며 유약의 두께는 얇고 미세한 병렬이 있다. 태토는 회색~회흑색을 띠며 유태의 밀착도는 강한 편이다. 기벽은 얇고 그릇의 표면은 우둘두들하다.

굽다리는 일정치 않으며 즉절굽형식도 있고 굽안바닥의 시유상태는 유약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시유된 것도 있다. (갑발을 사용한 것도 있으나) 거의가 포개구이하여 內面과 굽안바닥에 粘土섞인 耐火土받침자국이 있다. 또 매병의 바닥에는 둥근 도지미가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완·접시 등 일상용기가 대부분이며(청자 30,646점 중 30,000여점에 달함) 매병·盤口瓶·壺·장고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 녹청자 완은 태토가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無文으로 直口형식이 가장 많고 구연이 약간 外反한 것도 있다. 굽다리는 폭이 넓고 낮은 變形해무리굽이 있다.

철회청자는 대부분이 동부에만 草花文이 시문되었으나 어깨·저부에 蓮瓣文帶를 구비한 것이 1点, 어깨에만 연판문대가 있는 것이 1点이다. 또 盤口瓶의 경우 無文이 대부분이지만 3점에선 음각연판문과 草文이 발견되었다. 목에는 이음자국이 없다. 굽다리는 얇고 낮으며 밖으로 벌어졌고 뚜렷하게 굽썩기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완도해저출토 녹청자는 器種이 다양한 점과 해무리굽계통의 굽을 지닌 직구식의 비교적 정제된 완과 이 중 몇 점은 구연이 약간 外反된 점, 철회청자의 문양과 구도가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점, 盤口瓶에 음각문이 나타나는 점, 굽안바닥까지 시유된 예가 존재하는 점 등은 경서동녹청자보다는



늦은 시기이고 진산리녹청자의 이른 시기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 ④ 함평 양재리출토 녹청자와의 비교

대접·접시·잔·합뚜껑·盤口瓶·장고 등의 녹청자가 수습되었다. 요도 구로는 갑발·갑발받침·도지미등이 발견되었는데 많은 편들에는 포개구이를 한 내화토받침자국이 內底面과 굽다리바닥에 남아 있다.

태토는 良質도 있으나 대부분이 粗質이고 유는 약간 잡물이 섞인 녹청색 유인데 비교적 얇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간혹 맑은 녹청색유가 발견된다. 그릇의 표면은 우둘두들하다. 시유상태는 굽안바닥까지 유약이 있다. 굽은 높고 거칠게 깎은 다리굽인데 높고 벌어진 굽도 섞여 있다.

대접의 외측면에 연판문을 음각한 것이 상당량 있고, 접시의 내저면에 가득 국화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또 盤口瓶의 동체에도 연판문이 음각된 片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가마터 출토품 중에 가장 주목되는 중요한 파편은 흑상감된 청자장고片이다. 상감청자편에 대해선 후일의 상세한 고찰로 미루기로 한다.

유태와 제작·변조·시유수법 등을 기준으로 볼때 양재리 장재동녹청자는 이미 양질청자의 영향을 받은 녹청자로서 진산리 이른 시기나 완도와 유사하고 매우 특이하게 상감문이 등장한다해도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의 제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4. 良質靑磁와의 비교

경서동이나 완도, 진산리 등지의 녹청자는 처음부터 제작의도와 변조수법이 良質靑磁와는 구별된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최근까지 발굴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의 최하층에서 나온 초기 청자대접들을 들 수 있다.

이 청자대접은 비록 변조상태가 불량하여 釉가 제대로 용해되지 않고 뿌옇게 변색되었다할지라도 胎土가 매우 精選되었고 기벽이 매우 얇다. 태토는 높은 온도로 구운 경질토기와 같은 상태로 두드리면 쫄소리나 난다. 유는 녹청자유에 비해 잡물이 거의 섞여 있지 않고 기면이 매끈하다. 녹색·녹갈색·갈색 등의 색을 띤다. 굽은 다리굽인데 굽안바닥까지 시유되었으며 어떤 것은 接地面의 폭이 0.8~0.9cm정도로 해무리굽으로 가기 직전의 다리굽이다. 포개구이하여 내면과 굽다리바닥에 4~5군데 회백색을 띤 내화토받침자국이 있다.

이와같이 서리최하층의 청자대접은 유태의 質이나 제작수법 등에서 경기도 부곡리·원흥리, 충남 오사리에서 수습한 청자들과 유사하다. 더우기 이들

가마에서 사용된 窯道具들도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녹청자와는 전혀 다른 양식과 제작수법을 보이는데 녹청자의 경우 유태의 질이 현저하게 조잡함은 물론 굽과 그 언저리가 전혀 시유되지 않아 태토가 그대로 노출되며 요도 구로서 갑발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면 양질청자는 녹청자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생겨났으며 처음부터 중국청자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의 양질청자의 제작기술도입에는 통일신라 말기 한·중·일의 해상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장보고의 해상활동(828~846)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 5. 結 論

이상 살펴 본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 1) 녹청자의 정의문제

경서동 진산리, 완도해저, 사호리, 장재동 등지에서 출토된 청자들을 보면 유색이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갈색이 가미되기도 하고 연두색이 짙게 섞이기도 하여 정통적인 翡色과는 거리가 멀다.

유약에는 잡물이 섞여 그릇의 표면이 우둘두들하고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된다. 태토의 질은 양질청자의 영향을 받은 진산리나 장재동녹청자에선 양질도 있으나 대부분이 조잡하며 土器質이어서 두드리면 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녹청자란 토기질의 태토에 조잡한 녹청색유를 입힌 조질청자를 말한다.

### 2) 녹청자의 제작시기

우선 녹청자의 가마별 출토상황을 보면, 사호리에선 항아리류만이 수습되고 경서동에선 대접·완·접시류와 盤口瓶·항아리의 비율이 120:5:1의 비율로 대접·완·접시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완도해저 녹청자에서도 거의가 盤口瓶에서 음각문이 나타난다.

그런데 진산리·녹청자에서는 이른 시기에선 대접·완·접시류가 대부분이나 늦은 시기에선 良質胎土의 鐵繪靑磁 장고나 奩, 매병 등 여러 器種과 다양한 장식기법이 나타난다.

녹청자가마에서 대접·완·접시류의 일상용기가 주로 제작되었던 사실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토기가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서면서 녹청자로 대체된 생활용기의 변화·발전을 전해준다. 이와 함께 일상식기뿐 아니라 접차 호·병·합·장고 등 다른 기종까지 청자로 제작하게 된 청자문화의 점진적 확산현상을 살필 수 있다.



사호리에서는 항아리片만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종류를 원하던 그 지방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사호리의 녹청자 항아리는 완전히 토기식이고 경서동, 장재동, 완도, 진산리의 순서로 토기전통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장재동·진산리에서는 양질청자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제작시기는 사호리·경서동·장재동·완도·진산리의 순서이며 완도는 진산리의 이른 시기에 속한다.

경서동녹청자보다 조금 발전된 예가「大中十二年」(858)銘 토기편들이 출토된 彌勒寺址에서도 출토되어 경서동가마의 연대를 9세기중엽으로 比定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기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胎質과 형식을 갖춘 바탕에 원시적인 청자유가 입혀진 사호리녹청자는 양식상 9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완도를 포함한 진산리 이른 시기의 녹청자는 경서동보다 한층 발달된 양식을 지니지만 高敞 龍溪里의 「太平壬戌」銘(1022년)기와와 출토된 청자들과 비교해 볼 때 下限이 다소 떨어지는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花形碗의 경우 진산리녹청자의 花形이 더욱 강하게 돌출하고 구연의 외반정도가 심하다. 또 굽형식에 있어서도 고창 용계리출토 완은 변형해무리굽인데 진산리에 오면 굽다리가 높아지고 굽다리바닥의 폭이 좁아진다. 釉胎를 보면 진산리녹청자가 한층 맑고 투명도가 높아져서 양질청자유에 가깝게 다가섰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하여 진산의 이른 시기는 고창 용계리보다 제작기간이 더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으며 완도해저 녹청자와 함께 11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고창 용계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속하는 것이 함평 양재리 장재동녹청자로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의 연대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늦은 시기의 진산리가마는 비교적 짜임새있는 구도와 양질의 철회청자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12세기 초까지로 보았다.

그러므로 사호리·경서동녹청자는 토기질에 거친 유약이 얇게 입혀진 초기 양식의 녹청자이지만, 10세기 말경의 함평 양재리녹청자나 11세기 초의 고창 용계리녹청자, 11세기 전반 이후 12세기 초까지의 해남 진산리녹청자들은 부분적으로 갑발을 사용하고 유태가 정선되고 문양과 구도가 안정된 예가 포함되어 있고 기종과 시문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재리녹청자에서는 녹청자 초기의 음각국화문이나 반구병 동체를 장식한 음각연판문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상 소개한 양식상의 특징은 10세기 말 11세기 경의 전북 부안 유천리에서 수습된 청자파편들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경서동녹청자와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이 시기의 녹청자는 양질청자의 강한 영향으로 모든



점에서 양질청자화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 3) 양질청자와의 관계 및 한국도자사에서의 위치

녹청자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호리녹청자가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며 그 연대는 9세기 중엽에 가까운 전반기라고 간주된다. 양질청자의 초기자료는 용인 서리 최하층에서 나온 古式청자로서 9세기 전반기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자는 처음부터 통일신라의 토기전통을 계승한 녹청자와 중국 청자의 영향으로 제작된 양질청자의 두 계통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청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양질청자가 중국의 청자양식에서 비롯된 데 대해서 녹청자는 국내적으로 自生한 초기청자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의 토기전통을 계승하면서 발전하여 청자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녹청자는 앞 장 끝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세기 말 11세기 초의 함평 양재리와 고창 용계리서부터 서서히 양질청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 11세기 중엽이후 고려청자는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된 청자가 대규모로 제작되어 11세기 후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청자가 더욱 세련되어지므로 강진·부안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녹청자는 지방양식 혹은 주변양식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 같다.

### 4) 수요계층

지금까지 살펴 본 녹청자는 대접·완·접시 등의 일상생활용기가 주된 기종이므로 지방 수요층의 일상용기로 만든 것이다. 사용계층은 아직 일반인들이 토기를 주로 사용했으므로 지방의 특수계층이었으리라고 본다.



# 越州窯 靑磁의 編年の 考察

亀井 明德

## I. 越州窯 청자체계

넓은 의미의 월주요는, 춘추시대 越의 영역인 浙江省을 중심으로, 후한시대 이후 본격적인 청자를 구워낸 窯群을 지칭한다. 후한 이후 이 가마들은 성쇠를 거듭하나, 중당에 이르러 크게 전환하고, 만당·五代를 거쳐, 북송 중기까지 질·량 모두 다른 가마들을 압도하여 무역 도자기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후 11세기 중엽을 경계로 해서 같은 절강성의 龍泉窯에 그 지위를 넘겨주고, 서서히 쇠퇴하고 조락한다.

무역 도자기로서의 월주요는 中唐이후 커다란 의미를 갖지만, 그 이전의 東晉시대, 4세기로부터 6세기에 걸친 南朝시대에는 韓半島의 왕묘 등에 월주요의 자기가 -이것을 총칭하여 古越磁라고 한다- 부장되고 있다. 그 예로는, 강원도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서 羊形器, 충청남도 天安郡 城南面 花城里의 초기 백제묘에서는 天鷄壺와 盤口雙耳壺, 등 모두 전형적인 東晉양식의 청자가 출토되었다. 경주 98호 고분에서는 흑유盤口雙耳壺가 부장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南朝德清窯제품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접국의 출토상황을 보면, 일본에서는 고분등에서의 고월자의 확실한 발견례는 지금까지 없으나, 倭五王의 南朝와의 조공관계 등을 감안하면 앞의 將來된 고월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만하다.

中唐이후의 월주요는 窯의 수효가 급속히 증가하고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일상생활의 식기로서 사용된 새로운 스타일이 생겨난다. 이것은 「安史의 난」 후의 서민생활의 향상과 越磁의 대외수출의 급신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勤縣이나 鎮海洞 등의 가마가 이 시기에 대규모화 하는 것은 당시 대외수출항이었던 明州(현재의 寧波)에 가까이 위치하여 수출도자의 수요에 부응한 결과일 것이다. 中唐의 시인 陸羽는 『茶經』에서 월주요 청자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8세기 중엽에는 이 지역 가마의 흥룡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만당·五代의 월주요는 무문이 많고 북송초기의 10세기 후반 부터는 毛彫, 片切彫, 투조 등의 刻文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듯 하다.

오늘날, 광의의 월주요 체계는 浙江, 江蘇, 江西, 福建, 廣東의 여러성에 퍼진



唐·宋代의 청자생산요이지만, 협의로는 절강성내를 3분하여 越窯, 甌窯, 婺窯의 3계열로 가르고 있다.

협의의 월주요는 中·晚唐이후 杭州만 남부와 동지나해에 접하는 동남부의 여러요로, 紹興, 上虞, 余姚, 茲溪, 鎮海, 寧波, 勤縣, 奉化, 象山 등을 포함한다. 이 이외의 甌窯와 비교하여 월요는 요업의 역사도 오래고 중당이래의 생산량도 다른 窯를 압도하고 있다. 태토는 회색, 담회색의 精細한 흙으로 유약은 소위 올리브색의 불투명한 황청색이다. 中唐이전에는 匣鉢을 사용하지 않고 겹쳐 구웠기 때문에 대접이나 접시의 구경을 크게 하고 바닥을 두껍고 좁게하고, 내외에 눈자국이 남아있다. 만당이후 갑발사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벽이 얇아지고 撥高台의 기형과, 습자 등의 소형정품도 대량으로 출현하고 전체적으로 유면이 광택있게 마무리 되어 있다. 대접, 접시, 水注, 小壺, 壺, 타구, 합자 등의 기종이 만들어지고 있다.

五代에 이르면 월자는 秘色으로도 불리며, 余姚上林湖일대에 吳越王 錢씨에 대한 進貢用의 가마가 축조되며, 「金釧瓷器」(金覆輪) 등의 우수한 청자가 번조된다. 上林湖窯 채집품의 대접 밑에는 「太平戊寅」의 刻銘이 있는데 北宋 太平興國3년(978)의 吳越이 北宋에 항복할 때의 것으로 생각된다.

9세기 후반부터 성행한 越磁의 彫文樣에는, 동물文으로는 앵무, 거북, 물고기, 飛鳥, 오리, 용봉, 나비 등이 있고 식물文으로서는 연화, 모란, 보상화 등이 당초, 빗살, 배듭 등의 연결무늬와 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무늬들은 陳萬里씨의 『越器圖錄』에 집성되어 있다.

다음, (東) 甌窯는, 절강성 동남부의 甌江유역의 가마군으로써, 永嘉와 溫州市를 중심으로 하여 북방의 黃岩, 臨海를 포함하고 瑞安, 麗水에 이르며, 이 甌江상류에 龍泉縣이 있다. 甌窯의 청자와 越磁와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으나 甌窯제품은, 태토에 철분이 적어 흰맛이 강한, 회백 내지 담회색이고, 유약은 만당때부터 순수한 靑黃色으로 박락이 적다. 해무리 굽으로 직구(구연이 직선적으로 올라간 기형)형의 대접의 體部는 45°의 경사로, 越窯의 그것보다 급하다.

婺州窯는 『茶經』에 「碗, 越州上, 鼎州次, 婺州次」로 기재되어 있는데 절강성 중앙부의 金華지구에 널려있는 가마무리이다. 이 중의 東陽, 金華, 武義 등에 窯跡이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漢代이전부터 시작되어 五代, 北宋시대에 생산규모가 신속히 발전을 보였다. 그의 제품은 越, 甌窯와 비슷한 것도 있으나, 중만 唐 이후, 粗製品이 많아서, 대량생산된 碗, 皿, 瓶 등이 민간용으로 공급된 듯하다. 일본 출토품 중에는 福岡縣筑紫野市大門출토의 水注, 久留米市西谷火葬墓출토의 壺 등의 靑磁(황색이 강한) 褐彩陶는 婺州요 제품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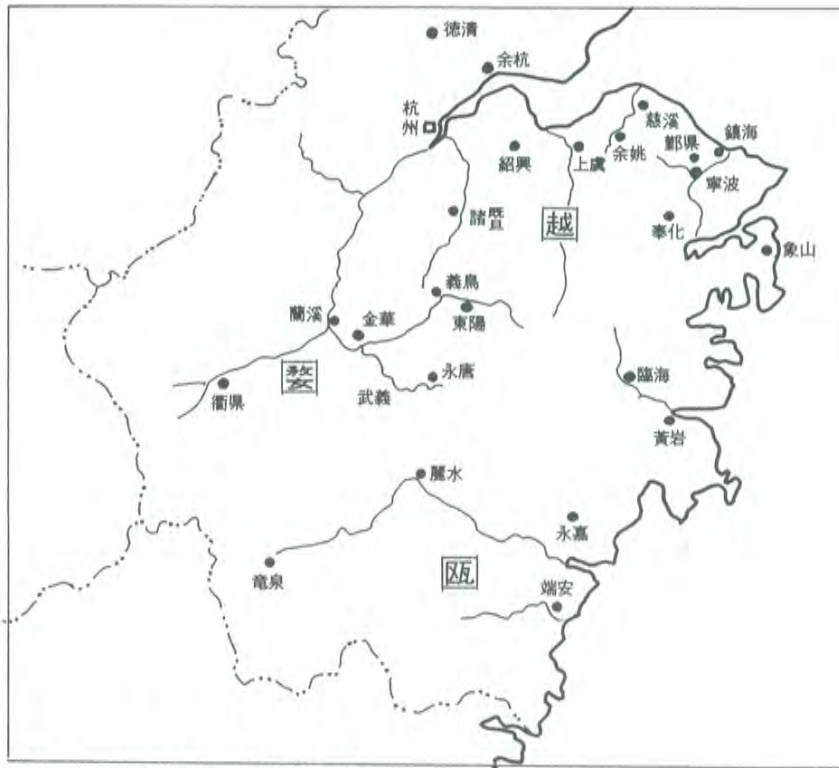


圖 1. 越・甌・婺の主な窯跡

## II. 日本出土越州窯青磁의 기형분류

현재까지 일본 출토의 월주요 도자기 중에서 확인된 기종은 碗・鉢・皿・杯・水注・合子・壺・睡壺・香爐・托 등이다. 이 중에서 碗과 皿의 출토량이 가장 많고 형태도 다양하다. 그 밖의 것은 출토량도 적고 기형을 나누기도 어렵다.

이런 기종을 대별하면, 정제품과 조제품의 두계통이 있다. 그 양자의 다른 점은 태토와 시유방법에 가장 명료하게 나타난다. 태토를 보면 정제품은 수비를 거친, 회백색 내지 백회색의 치밀한 磁質土이지만, 조제품에는 이러한 질의 것은 적고, 대부분은 일본의 須惠器태토와 유사한 회색내지 암회색을 나타내는 陶質이다. 시유방법을 보면 정품에는, 현대에 담가입히기로 불리는 방법으로, 유약을 외저부를 포함하여 내외전면에 시유된다. 한편, 조제품은 굽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유약속에 담갔다 꺼내는 방법으로 시유하며 몸통 하반부이하에는 시유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 두종류의 특징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제품을 A류, 조제품을 B류로 하여 그 같은점과 다른점을 기술하고자한다. 성형은 양자 모두 물레성형인데, 그 회전은 거의 모든것이 그런 것은 아니나 좌회전의 가능성이 있다. 굽은 기형에 따라 있는 것, 없는 것이 있으나 A류의 굽있는 기형은 굽칼로 예리하게 몸체로부터 회전시켜 깎아낸 것이 눈에 띄고, 굽없는 것도 바닥을 깎아내서 다듬은 흔적이 눈에 띈다. 이것에 대하여 B류의 굽있는 기형에 관해서는 A류의 그것과 동일한 수법을 취했으나 굽없는 기형은 실로 잘라내는 것만으로 그치고 다듬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시유방법은 전술한 것과 같으나 태토와의 관계로 A류는 상대적으로 발색이 좋은, 담목색~녹황색이지만, B류는 때묻은 느낌의 암녹색~녹황색이며, 발색도 좋지않다. 번조시에 가마에 채우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碗・皿에 반드시 받침눈의 흔적이 보이는데 7. 8개의 반점상의 자국인 백색모래가(규사・알루미나가루) 둥글게 남아, 겹쳐구운 것을 알 수 있다. 이 눈자국을 자세히 보면 그 부착위치는 a: 내저부-외저굽밑, b: 내저부-외저輪高台내측, 또는 내측, c: 외저굽밑의 3종류가 있다. 편년상 後出하는 輪高台로서 굽이 좁고 긴 형태(A類-碗Ⅲ・皿Ⅲ)의 것에는 c의 외저굽밑에만 눈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에 관해서는, 1匣1件의 번조라고 생각된다. 또 대접 안 바닥에 釘彫를 가진 優品들은 내저부에 눈자국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하 A・B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글중의 번호는 별첨의 실측도와 대응).

## A류

[碗Ⅰ]. 굽을 폭넓게 깎아낸 소위 햇무리(玉壁)굽의 특징을 갖는 碗으로 몸체의 형태로 보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a-1.

몸체가 거의 직선적으로 구연까지 뻗어 올라가고 그대로 둥글게 마무리된, 비교적 소형의 것이 많다. 유약을 내외 전면에 녹~녹황색에 이르는 색조로 시유되어 있으나 유약에 얼룩이 있는 것도 보인다. 또 빙열이 있는 것이 많다. 성형・조정을 보면 몸체는 정성스럽게 물레로 처리했지만, 외저부는 칼로 깎아냄으로써 중앙부를 오목하게 함과 아울러 굽밑과 몸체 측면에 모서리를 내고 있다. 태토는 백회색의 것이 많으며 정제되어 있다. 내저부에 눈자국이 있고, 이것이 없는 것은 외저 굽밑에 백색, 모래가 부착되었거나, 혹은 눈자국의 부분이 저화도가 되기 때문에 태토가 적갈색의 반점상으로 남아있다.

### b-2.

a와 비교하여, 몸체가 약간 안으로 굽어들며 뻗어 올라간 대형품이다. 유약은



내외면에 시유되었으나, ②는 외저부는 露胎 그대로인데, 전술한 홀려 입히기의 시유법이었을 것이다. 빙열은 거의 없으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색조는 a와 같거나, 약간 황색을 띤 것도 있다. 성형·조정은 a와 같이 정성을 들이고 예리하다. 기타 태토, 번조도 a와 다르지 않다.

#### 〔碗Ⅱ〕

3. 輪高台를 갖는 기형으로 굽의 형태로 구분된다. 굽이 상대적으로 두터우며 짧고 직립한다. 내만되는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몸체에서부터 구연을 그대로 정리한 것과 가볍게 외반하는 것이 함께 있다. 前者에는 구연부에 바깥쪽으로부터 칼로 새겨 넣어 6花로 구획하고 몸체에도 그것에 대응하는 세로줄을 넣은 것이 있다. 굽의 높이는 1cm 이하로, 짧고 직립한다. 유는 내외전면에 시유되고, 담록색~황록색까지 있으나 대체로 황미를 띤 것이 많고, 또 유약이 태토와 밀착하지 않아 박락된 것도 보인다. 빙열은 없는 것이 많다. 태토는 백회색으로 치밀하다. 번조할 때의 눈 자국은 내저부에 백색모래가 부착되었고, 노태의 굽밀이 적갈색을 나타내거나, 혹은 백색내지 백황색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것과, 내저부에는 그런 눈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 〔碗Ⅲ〕

4. 유물로써 출토량은 적으나, a와 달리 굽이 좁고, 길게 직립하거나, 약간 외반하는 특징을 갖는다. 몸체의 형태도 輪花를 갖는 것이 있고 碗Ⅱ와 유사하다. 유약은 내외면에 시유되고, 황록색을 나타내며 태토는 회색의 자질이다. 번조할때의 눈 자국은 내저면과, 외저부에는 굽밀이 아닌 輪高台안에 6개의 흰 모래 빔음이 둥글게 부착되어 있다. 이 형태의 碗의 안쪽 바닥에는 釘彫에 의한 초화문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으나<sup>27)</sup> 그런 것들에는 눈자국이 내저에는 없다. 이 기형은 「太平戊寅」銘의 것과<sup>28)</sup> 닮고 있으나 일본에서의 출토량은 적다.

#### 〔鉢〕

5. 기형에서는 I類와 유사한 요소가 보이지만, 대형의 기물로 굽의 만들새가 다르다. 口徑 20cm 전후의 것이 많고, 몸체는 Ia와 같이 직선적으로 뻗어 오르고 구연은 그대로 둥글게 마무리 되고 있다. 굽은 輪高台로 처리되었으나 그것을 성형할 때 굽칼을 한번써서 깎아낸 것은 아니고 2회내지 3회에 걸쳐서 사용함으로써 내저부에 2~3회전의 깎아낸 자국이 보인다. 유약은 내·외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외저부는 풍화된 때문인지 유약이 박락된 것이 많다. 태토는 회백내지 회색으로 치밀하다. 눈자국은 내저부와 외저 굽밀에 확인되고, Ⅱ와 같이 輪高台안에 있는 것은 없다.

〔皿Ⅰ〕

6. 몸체 중간 부위에 모서리를 이루어 굴곡시키는 형태로, 平城京東三坊大路東側溝와 太秦廣隆寺등지에서 출토했으나 양자는 크기·형태 모두 대체로 같은 것이다. 몸체는 중간부위에서 굴곡된 내면에 가는 沈線을 넣고, 구연은 그대로 둥글게 마무리했다. 굽은 짧게 깎아낸 輪狀으로써, 굽안쪽은 공들여서 깎아 내었다. 유는 내·외전면에 시유되고 황록색으로 빙열이 보인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밀한데, 번조시의 눈자국은 내저에는 없고 굽밑에 백색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소형품도 조금 있다.

〔皿Ⅱ〕

7. 몸체에 굴곡이 없는 형이다. 비교적 두텁고 짧은 굽을 갖는다. 몸체는 완만하게 굽어들며 올려뿔고, 구연부는 약간 얇고 뾰족한 듯하게 마무리되고 輪花로 처리한 것도 있다. 釉는 약간 광택이 있는 암록색~암황록색유가 내·외전면에 시유되었고, 가는 빙열이 있는 것도 있다. 태토는 암회색의 고운 흙이며 눈자국은 내저에 있는 것은 적고 굽밑부분에 백색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皿Ⅲ〕

8. 皿Ⅱ와 비교하여 얇고,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며 예리한 맛이 있는 輪高台를 갖는 大小 두 종류가 있다. 대형의 기물은 굽에서부터 부드럽게 굽어들어간 구연부가 얇고 예리하게 마무리 되어 있다. 전체가 공들여 조정되어 있다. 소형품도, 완형기물은 없으나 공들여 만들어진 것이다. 大·小 모두 유는 담록색 내지 황록색유가 내외 전면에 시유되었고 빙열은 없는 것이 많다. 태토는 회색 내지 회백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형에는 大·小 모두 내저면에 草花文의 釘彫가 있는 것이 있고, 이 경우 輪高台의 내측에 눈자국이 있다.

〔杯Ⅰ〕

9. 굽이 없는 大·小의 杯가 있다. 얇게 처리한 바닥에서부터 몸체에 굽어들은 그대로 구연부에 이른다. 유는 내·외 전면에 시유되고, 황록색을 타나내며 빙열이 있다. 태토도 백회색으로 정제되었고 조정도 공을 들였다. 내저에는 눈자국은 없으나 외저부에 圈狀으로 유가 박락되고 흰모래를 굽어낸 흔적이 있다.

〔杯Ⅱ〕

10. 전체에 시유된 굽이 없는 杯이다 구연은 화형으로 만든 것이 많고 몸체는 거의 직선으로 뿔어 올라가고 평평한 외저는 중앙을 향해 안쪽으로 칼로 흠을 파고 있다. 저부의 끝은 유를 닦아냈고 그 부분에 눈자국이 보인다.

이상 정제품인 A의 碗·皿에 관하여 기술했고, 다음으로 조제품인 B류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B類

### 〔碗Ⅰ〕

11. 넓은 굽을 갖는 기형인데, A類의 碗Ⅰ과 형태가 비슷하다. 체부는 약간 안으로 굽고 굽은 바깥쪽 모를 깎았다. 굽 중앙부는 얇게 처리했으나 바깥 주변부위가 위로 올라간다. 굽바닥은 다듬지 않아서, 실로 꿰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 내측은 거의 시유되었으나 외측은 몸체 하반부까지만 굽을 손으로 잡고 덩빙당갔다 꺼내는 방법으로 시유하였으며, 황록색의 것이 많고 아름답게 발색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빙열은 전면에 나타난다. 태토는 細土이기는 하나, 일본의 須惠器의 그것에 가까운 암회색을 나타낸다. 번조시의 눈자국은 내저와 외저 굽 바닥에 흰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또 적갈색으로 발색된 것이 많고 산화염 번조이며 磁胎로 되어있지 않다.

### 〔碗Ⅱ〕

12・13. I類의 굽 중앙부를 깎아내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굽의 측선은 직립하고 짧게 깎여 있으나, 어떤 것은 물레 성형인 채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바닥은 중앙보다 주변을 높게 깎았으며 꿰임질의 흔적이 남아있고, 성형후 손질이 되어있지 않다. 이런 타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대형품<sup>13)</sup>을鉢로해서 구경 20cm에 이르는 것이 있고 소형품의 몸체는 직선적으로 뺀 것과 굽어드는 것이 있으며, 유약은 몸체 하반부까지 얇게 시유되고 황녹색 또는 암황록색으로 발색이 나쁘며 가는 빙열이 눈에 띈다. 태토는 須惠器의 질과 같이 회색은 나타낸다. 저온 번조로 보이고 눈자국은 내저에 백색내지 황백색의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 〔碗Ⅲ〕

14. 굽을 깎아내지 않고 아래에서 몸체까지 직선적으로 뺀어올라 구연에 이르는 형태이다. 기벽이 두껍고 육중한 감이 들고 저부의 두께는 1cm가 넘는 것도 있다. 외저부의 굽은 깎아내지 않았으나, 몸체측면으로부터 도드라진 바닥의 밑부분에 걸쳐서 칼로 깎아내서 다듬었다. 유약은 몸체 하반부까지 담황록 내지 담록색의 유가 시유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얇고, 태토와 밀착성이 나빠 박락된 것이 있다. 태토는 담회색이며 치밀한 것이 많다. 외저부에는 적갈색의 반점상을 이룬 눈자국이 있다.

### 〔皿〕

15. B群의 접시형은 수요가 적은데 京都西寺출토품에 1점이 있다. 특수한 형태로, 내측에 고리모양의 손잡이가 있어서 등잔으로 생각된다. 전체의 특징은 碗Ⅲ과 닮은 것이 있고 두터운 아래쪽부터 약간 직선으로 벌어진 몸체는 구연부를 약간 외반시키고 있다. 바닥은 깎아서 다듬었다. 유약은 몸체 하



반부까지 황록색의 광택유가 입혀졌고 일부에 기포가 보이며 빙열이 있다. 露胎部는 적갈색 내지 갈색이며, 태토는 약간 갈색을 띤 회색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접시에 관해서 흥미깊고 중요한 점은, 이것과 꼭 닮은 기형<sup>16)</sup>이 米内山씨가 채집한 余姚上林湖畔窯跡유물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리 모양의 귀가 결손되었으나 크기·유조·태토는 西寺출토품과 전적으로 같다.

〔水注〕

21·22. 출토량은 파편을 포함해도, 碗·皿과 비교하여 적다. 그중 완형품은 宇治淨妙寺출토품과 博多聖福寺출토품의 2 점이 있다.

우선 이 2 점에 관하여 비교기술 하면 전체적으로 淨妙寺출토품<sup>21)</sup>은 정품이고 聖福寺출토품<sup>22)</sup>은 만들새가 조잡하다. 기형은 모두 胴部 최대폭이 중간쯤에 있는 완형으로, 聖福寺에는 頸部に 조그만 단이 있으나 그대로 연장되어 올라가고 구연부는 약간 두껍다. 이것에 대하여 淨妙寺에는 胴部和 頸部の 접점에 단을 만들고, 口頸部는 직립하고 구연의 외반 정도가 작다. 손잡이는 모두 胴部 윗부분에서 구연 아래로 연결되어 있으나 聖福寺에는 손질이 약간 조잡하고, 귀도 형태는 같으나 보다 큼직하다. 注口部는 모두 중간부위에서 가볍게 굴곡되고, 끝부분은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절단되었다. 이 정묘사에는 모두 물레성형인데 비하여 성복사에는 胴部중간 이하는 거칠게 깎은 자국이 뚜렷이 보인다. 유조는, 정묘사예가 짙은 황록색유가 얼룩없이 저부를 포함한 외면 전체와 頸部내측까지 입혀졌고, 빙열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성복사에는 해무리 굵으로 깎여진 외저부는 노태인채로, 胴·頸部에는 黃味が 강한 녹황색유가 시유되어 있으나 태토와의 접착이 나빠 박락되어서, 황색 내지 태토가 노출된 갈색이 드러나고 있다. 또 注口部の 半面은 적갈색을 나타내는데, 본래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半面은 유약이 흐른 것이 눈에 띈다. 이상으로 보아, 성복사에는 전체적으로 정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힘차고, 淨妙寺에는 優美하다.

〔合子〕

17·18. 合子の 출토자료는 적지만 仁和寺丹堂跡출토의 大·小 2 점은 완형으로써, 2 점 모두 제작·조정·유조·번조 등의 방법이 같다. 소형품<sup>17)</sup>의 몸체 외면은 담암록색의 약간 광택을 가진 유가 입혀졌고, 깎아낸 굽에는 겹쳐 구웠기 때문에 흰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몸체 구연의 뚜껑과 맞물리는 부분은, 뚜껑과 겹쳐 구웠기 때문에 적갈색을 나타내는 露胎로써 흰 모래가 붙어 있다. 뚜껑은 특이한 輪高台狀의 꼭지를 갖고, 외면에는 담황록색의 유가 입혀졌으나, 내면은 露胎로 담회갈색을 나타내고 중앙부는 여러방향으로 문지른 흔적이 뚜렷하다. 뚜껑과 몸체 모두 번조는 약간 둔한 느낌인데, 유면이 약간

거칠거칠하며 빙결은 없다. 대형 습자의 몸체는 소형품과 같은 형태인데 몸체 외면은 다갈색으로 변색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암 황록색이 보이는데 불충분한 번조로 유면이 녹지않고, 땅속에서 변색된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얇게 시유했고, 검은 색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 또, 뚜껑과 맞물리는 부분은 노태인데, 적갈색을 나타내고 소형품과 같게 겹쳐 구운 눈자국이 보인다. 뚜껑은 파손이 심해 보수되었으나, 외면은 윗부분과 측면의 경계를 深線으로 나누고, 암황록색의 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이러한 것과 함께 金銀製の 大・小 습자, 청백자 합자가 출토하고 있다. 이러한 출토품은 延喜四年(904)三月二十六日 丹堂이 건립될 당시, 鎮地具로써 土壇중에 매납된 물건으로 보인다.

# 〔壺〕

23 ; 24. 다음의 완형자료 2 점을 예로 들고자 한다. 23은 福岡縣太宰府市 大字通古賀字立明寺출토의 소위 鍔라고 하는 獸脚이 붙은 壺인데 현재 복원 보수되어 완형으로 되어 있으나, 獸脚 한개와 구연부의 대부분은 결손된 것을 후에 보수한 것이다. 전체의 형상은 짧은 <字형의 구연부・약간횡장한 球形胴體・3개의 獸脚의 세부분으로 되었고 바닥은 위로 깎아 올린 바닥인데 약간 조잡하게 칼로 깎은 후, 물레로 조정하였고, 갈색을 나타내는 노태이다. 몸체 중위 이하는 깎아서 조정한 흔적이 보이고, 유약은 광택이 적은 암황색으로 빙결은 거의 없다. 내면에는 담록색의 유가 시유되고, 일부는 노태이다. 獸脚中 유존하는 2개는 거의 동형으로 정성들여 매끈하게 조정을 한 것이다. 이 다리 접합부 부근의 동체 하반부에는 釉彫가 고르지 않다. 눈자국은 다리의 접지면에는 없고, 몸체 바닥부분에 흰 모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筒형의 받침대 위에 올려 구웠다고 생각된다.

제2의 출토예는, 24의 청자 雙耳壺인데, 太宰府市君畑第一經濟大學內에서 발견되었다. 출토상황 등 밝혀지지 않은점이 많으나 藏骨器로써 사용되었었다. 동체가 길며, 동체부위를 종선으로 6구획의 참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어깨 위에 마주보는 위치에 새로운 귀를 달았다. 귀의 둥근 부분에 세로로 선을 깊게 새겨서, 귀 모양이 힘차게 보인다. 직립하는 목 부분에 붙은 구연부는 뚜껑을 받기 좋게 만들었고, 노태이며, 끝부분에 모래 눈자국이 붙어있다. 동체부위의 내외면, 특히 내면 하반부는 물레자국에 의한 요철이 있다. 하반부이하는 노태이고 바닥은 원반을 붙인 모양의 위로 올려깎은 바닥이고, 모래가 많이 섞인 회색의 약간 거친 태토가 보이고 있다. 유약은, 황색기운이 강한 녹색으로 광택이 있고, 어깨 부근은 무광택상태로써 재가 내려앉아 붙어 있다. 내면은 목 부분에는 시유되었으나 그 아래는 노태이고, 유약이 튀어있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되어있다.

이 雙耳壺와 비슷한 것은 廣東省 禹縣石馬村的 劉晟磚室墓(乾和16년:958) 출토품이 있다. 바닥의 만들새등 다른점도 있으나 전체의 모습은 잘 닮고 있다. 따라서 太宰府출토의 이 쌍이호도 시기적으로는 이와 가까운 五代, 10세기 전반기의 제품으로 생각된다.

### III. 曆年代에 관하여

다음으로, 제2절에서의 기형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형식의 曆年代에 관하여, 土師器 등, 주로 일본제 토기의 편년을 기준으로 한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당시 월주요 청자는 기형의 변화가 완만하여, 동일 형식이 다른 중국도자보다 장기간 존속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傳世」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연대가 생산연대와 동떨어진 경향도 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상한의 1점과, 중복되는 빈도가 많은 기간, 다시말해 그 형식의 성행기의 것 2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싶다.

결론은 別表(圖2)와 같으나 曆年代比定の 근거와 그 자료를 기술한다.

#### A類

##### 〔碗 I〕

해무리굽으로 형식상 만당 타잎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출토의 예는 9세기 전반것이 가장 이르다. 佐賀・下中杖유적의 SE201에서 9세기 전반의 토기와 함께, 이 碗 I 은, 碗 II, 皿 I, 杯 I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9세기 중엽 전후의 예로는, 太宰府 사적 제70차 조사의 SK1800에서 輪高台碗(II), 刑窯 양식 백자 碗 등과 함께 나오고, 따로 平城京 東三坊大路東側溝와 北野廢寺의 SK23의 예가 있다. 9세기 후반으로 생각되는 것은 胆沢城跡, 京都深草古墓, 北野廢寺SK20이 있고, 10세기 初로는, 同寺SK15가 있다. 따라서 이 碗 I 의 중심시기는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기까지로 생각된다. 10세기에 들어오면 이런예는 적어지는 듯하다. 浙江省 諸暨縣 牌頭の 貞元10년(794)墓에서 이런 타잎이 출토했다.

##### 〈資料〉

- ① 『下中杖遺跡』 佐賀縣報告第54集 1980
- ② 高鳥忠平「平城京東三坊大路東側溝内出土 施釉陶器」考古學雜誌 57-1 1971



③ 堀内明博의 「北野廢寺」 1983

④ 伊東博幸의 「胆沢城東方官衙南地區出土の 施釉陶器」

考古學雜誌 70-1 1984

⑤ 酒詰仲男 「深草地球の 遺跡發掘調査概報」

『名神高速道路線地域内埋藏 文化財調査報告』 1959

〔碗Ⅱ〕

輪高台의 기형으로, 상한으로 보이는 것은 太宰府筑前國分寺跡SK053에서 8세기 말~9세기 초엽의 標式土器인 SK400과 함께 출토되었다. 9세기 중엽의 출토예로써는, 碗Ⅰ과 같이, 平城京東三坊大路東側溝, 胆沢城 출토유물이 있고 9세기말부터 10세기 전반의 것으로써, 太宰府史跡SD205A(學校院 東邊部), 現和西侯古墓의 자료를 들수 있다. SD205A는, 延長5년(927)銘의 목간이 출토하고 碗Ⅱ 외에, Ⅰ, B類碗Ⅱ, Ⅲ, A類皿Ⅲ, 杯Ⅱ, 鉢, 水注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런 타일이 8세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초로 수입된 월주요 청자의 한 형식이며, 碗Ⅰ과 같은 상태로 10세기 중엽까지 존속한다. 10세기 전반까지는 碗Ⅰ보다도 성행하고 있다.

〈資料〉

⑥ 『太宰府史跡－昭和56年度發掘調査概報』 1982

⑦ 森田勉 「九州の 紀年銘資料共伴の 出土陶磁器」 貿易陶磁研究 No. 7 1987

⑧ 亀井明德 「現和侯發見の 灰釉陶と 中國陶磁」 『湖流』 第2號 1978

〔碗Ⅲ〕

桴形高台를 갖는, 타일이나 碗形品은 적고 일본 출토예로는 平安京右京二条二坊SX1에서 天曆年(953) 목서명이 녹유碗과 共伴하고 있다. 余婁窯출토의 「太平戊寅」刻銘品이 이것에 해당하며 戊寅은 태평흥국3년(978)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전반의 형식이라 할 것이다.

〈資料〉

⑨ 『平安京跡發掘調査概報 昭和56年度』 1982

〔皿Ⅰ〕

體部에서 굴곡하는 형태의 접시인데, 平城京東三坊大路東側溝에서 9세기 중엽의 1점이 발견된 것을 예로 들수 있다.

〔皿Ⅱ〕

體部가 만족하는 형으로, 앞서 927년 기년명을 가진 SD205A에서 출토하고 皿 I 보다 형식적으로 後出하는 것이다.

〔皿Ⅲ〕

揆高台의 접시로, 최근, 鴻臚館跡, 太宰府条坊跡에서 양호한 자료를 얻었다. 모두 내면에 편절조로 複弁花文을 새기고, 黃味が 강한 滿釉로 외저에 눈자국이 있다. 「太平戊寅」타인의 굽으로 보아, 제작년대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이다.

〈資料〉

⑩ 山本信夫 「北宋期貿易陶磁器の 編年－太宰出土例を中心として」 貿易陶磁研究 No. 8 1988

〔杯Ⅰ〕

상기의 太宰府史跡SD205A에서 출토하고,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의 1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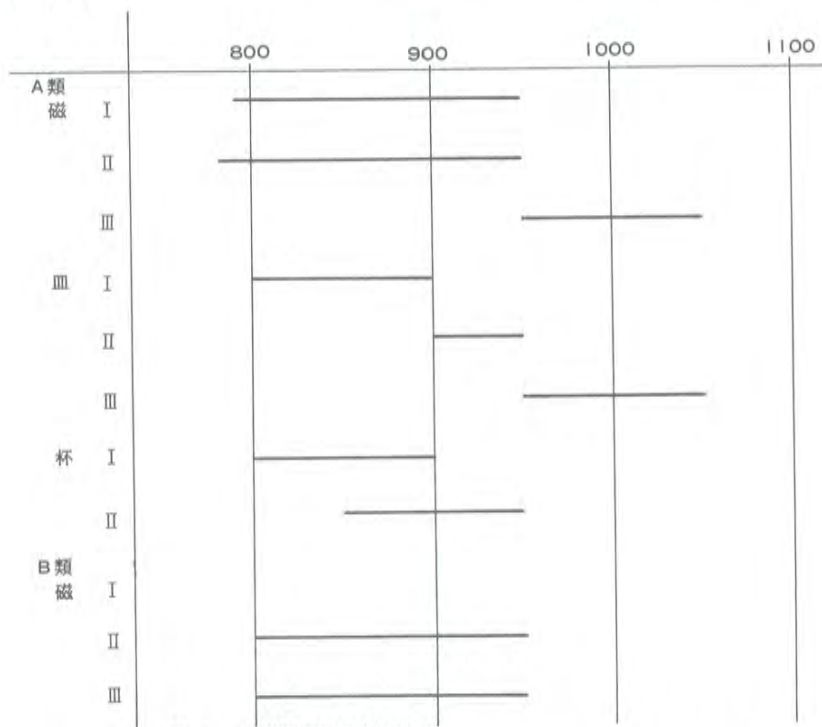


図 2. 越州窯青磁の器形変遷

이 원고는 필자에게 주어진 平城 元・2年度 문부성과학연구  
월주요 청자의 기형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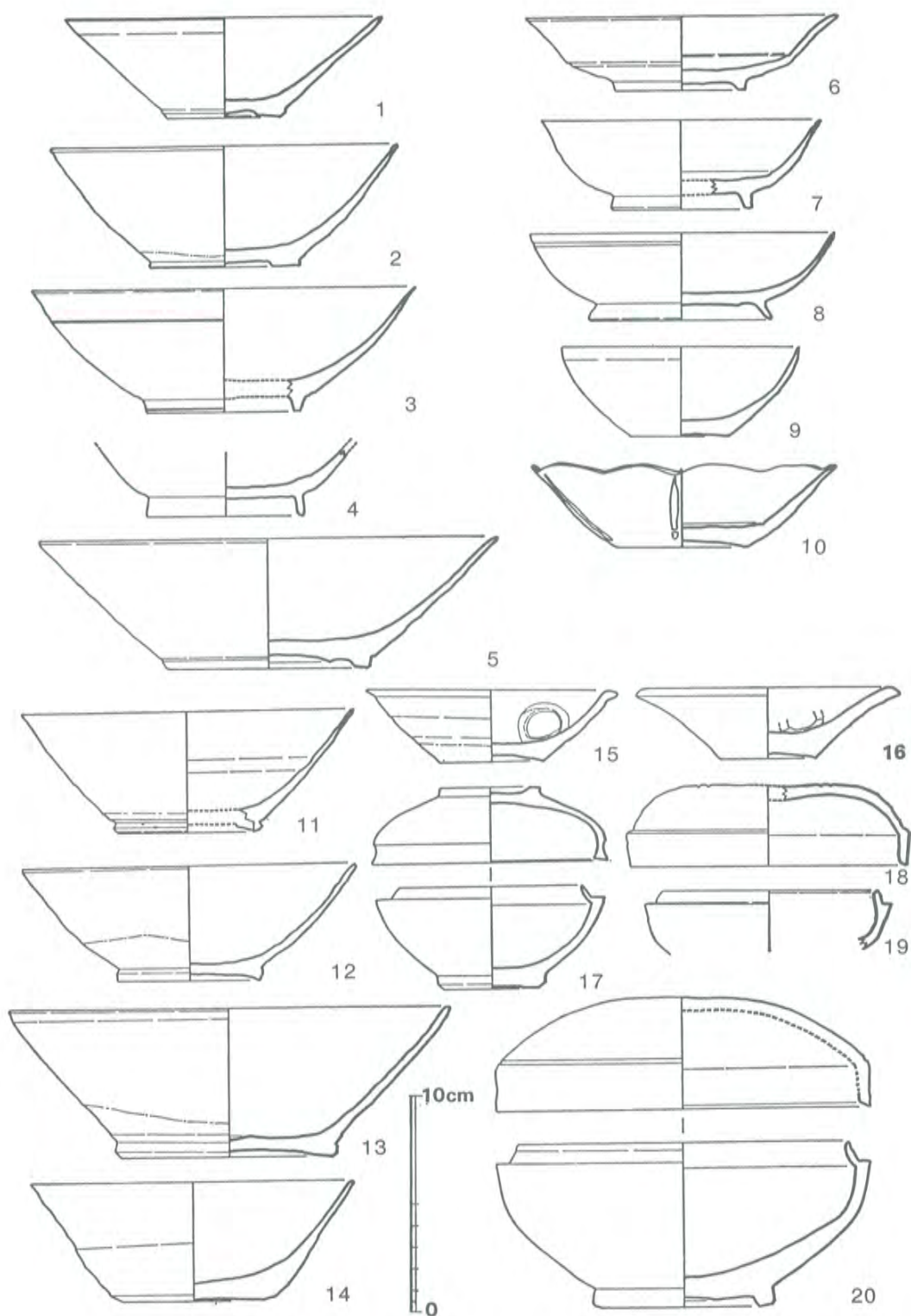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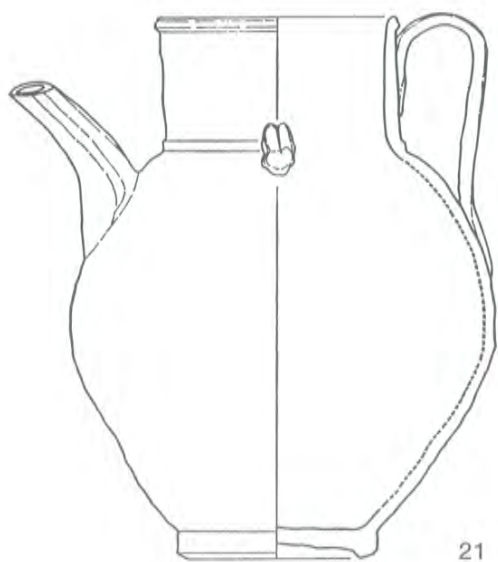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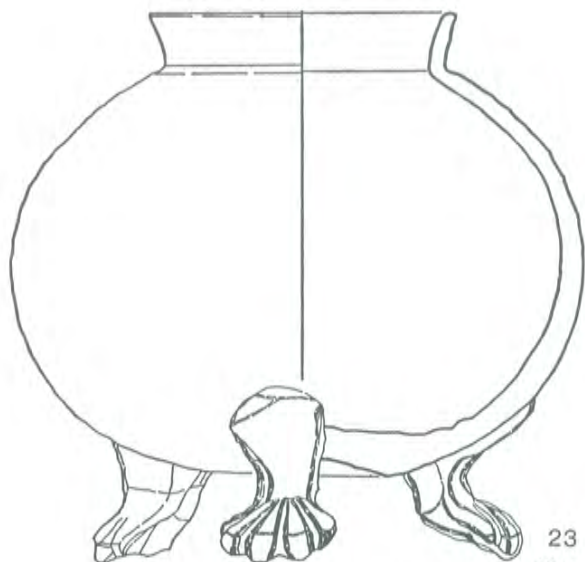
図 3. 越州窯青磁の器形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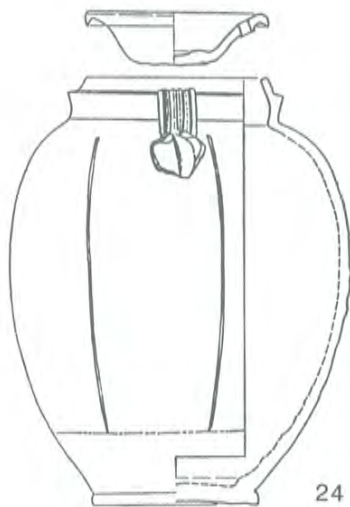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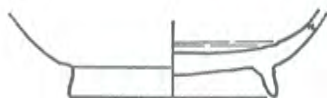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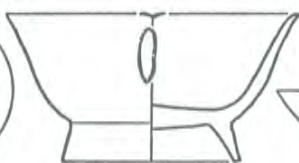
0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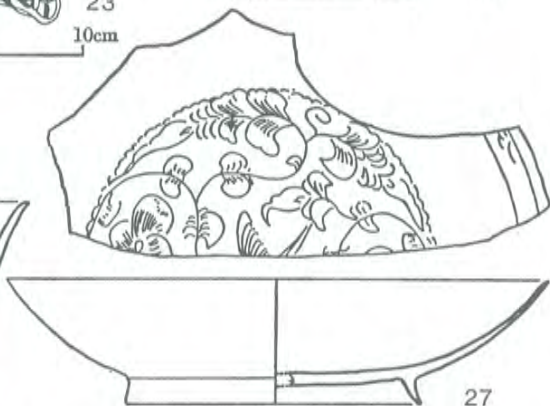
24



25



26



27

# 日本古代における施釉陶器の生成過程

名古屋学院大学

檜 崎 彰 一

## I. はじめに

わが国最古のやきものは新石器時代文化の所産である縄文土器であり、これに続く農耕社会において弥生土器が、さらに古墳時代の前半期には弥生土器の系譜をひく土師器が用いられており、還元焰焼成による灰色硬質の須恵器が出現したのはようやく5世紀初頭、朝鮮半島諸国（百済・新羅・伽耶）からの渡来系の人々によってその技術が伝えられてからのことであ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その後11世紀末まで、古墳時代から奈良・平安時代を通じて土師器と須恵器は煮沸・貯蔵の機能を分担しつつ、日常窯器の基礎を形成した。その一方、7世紀末から鉛釉を施した三彩・緑釉陶器が、9世紀代に灰釉を施した高火度焼成の灰釉陶器が生れ、奈良・平安時代を通じて、土師器・須恵器・瓷器（施釉陶器）の3種のやきものを基調として推移し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

しかし、施釉陶器の生成過程の詳細についてはまだ必ずしも明らかにされたとは言い難い。したがって、ここでは日本最古の施釉陶器である三彩・緑釉陶器などの低火度鉛釉瓷および高火度焼成の灰釉陶器の生成過程について、最近の成果を基に述べてみたい。

## II. 三彩・緑釉陶器の生成過程

日本における三彩・緑釉陶器の最も代表的なものは世界最古の伝世品である正倉院三彩・緑釉陶器57点であるが、近年日本の各地からの出土例が相次ぎ、現在では秋田県から鹿児島県までほとんど日本全域に亘って、335ヶ所の遺跡が発見されている。これらの彩釉陶器は周知のように、緑・黄・白三彩、緑・白二彩・各単彩など、さまざまな色釉が施されている。彩釉陶器は奈良・平安時代の文献や古文書によると、「瓷」、「瓷器」という文字が当てられており、『倭名類聚抄』ではこれを「之乃字豆波毛乃」（シノウツワモノ）と読ませている。



この瓷器という言葉は平安時代には「青瓷」「白瓷」に分けて呼ばれており、灰釉陶器である白瓷と区別し、緑釉陶器を「青瓷（アオシ）」あるいは「青子」と呼んだことが『西宮記』や『江家次第』、永久5年（1117）銘の正倉院文書「綱封蔵見在納物勘検注文」などによって知られる。

彩釉陶器は唯一の伝世品である正倉院三彩を除くと、現在知られている335ヶ所の遺跡は、宮殿・官衙跡、寺院跡、神社跡、祭祀遺跡、墳墓、集落跡、城柵跡、古窯跡などであるが、いずれも祭祀に関する遺跡を主としており、日常生活容器として用いられた形跡は認められない。

それでは日本古代の彩釉陶器はいつごろ、どのように生成されたものであろうか。彩釉陶器は低火度焼成の鉛釉瓷であり、唐三彩の技法を模倣してつく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定説となっている。現在、その年代の明らかな、最古の三彩釉陶器は奈良県都介野の小治田安万呂墓出土の三彩小壺で、墓誌銘によつて7神亀6年（729）に葬られ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ところが、1957年、奈良県川原寺の発掘に際して、東回廊東南部から緑釉水波樽が出土し、1974年には川原寺西北の板蓋神社の西南斜面から、大量の方形三尊樽などとともに約80個体分の緑釉水波文樽が出土した。すでに1957年の出土緑釉樽について、田中琢氏が川原寺創建時、すなわち7世紀後半代のものとしている。1974年度のものについては創建時のものとするか、奈良時代のものとするか、2つの考え方がある。現在知られる最古の唐三彩は上元元年（674）に没した唐高祖李淵の第十五子李鳳墓からの出土品である。日本に齊らされた唐三彩は著名な福岡県沖ノ島の花瓶をはじめ、奈良県御坊山古墳の二彩硯、三重県縄生廃寺の三彩碗など10ヶ所の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が、7世紀末を遡りえない。

一方、日本における三彩釉器の発生を考えさせる注目すべき発見は1966年の奈良県大安寺出土の唐三彩陶枕30数個体と日本製の三彩瓦などである。この唐三彩については藤岡了一氏が大安寺の造営を指揮した道慈律師が718年（養老2年）、唐より帰国した際に持ち帰ったもので、日本での三彩釉器焼造の見本とされた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解を提出している。大安寺の造営は729年であり、小治田安万呂墓と同年である。

同墓出土の三彩小壺よりも古い様式をもつ大阪府大藏官山出土の三彩蔵骨壺をどこまで遡らせるかが問題であろう。それにしても川原寺出土の緑釉水波文甗の方が古く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つて、三彩釉陶器に先立って緑釉陶がつくられていたことになる。

一方、朝鮮半島ではすでに太平洋戦争以前に百済の国都のあった扶余面の錦城山廃寺や東南里廃寺をはじめ、各地から緑釉陶器が出土しており、近年では全羅北道益山郡の弥勒寺跡からも出ているという。また慶州北方の安康邑にある法光寺跡では金堂内の全域から緑釉甗が出土しているという。したがって百済の滅亡したAD. 663年以前に緑釉陶器の焼かれ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最近、奈良県藤原京において新羅産と考えられる緑釉円面硯が出土しているが、大官大寺中門前の創建以前の層から出土した盤口瓶（口縁部の一部のみ）も朝鮮半島産と考えられる。さらに古い資料では1968年に発掘された大阪府アカハゲ古墳（7世紀第3四半期）の褐釉円面硯と1984年に発掘された塚廻古墳（7世紀第4四半期）出土の緑釉棺台・ガラスがある。これらは鉛の同位体比の測定によって朝鮮半島産という結果が出されている（馬淵久夫・平尾良光『考古学雑誌』68-1、1984年。山崎一雄：第12回古文化財科学研究会講演、1990年）。このような7世紀後半代でも古い時期の製品が唐三彩成立以前に日本に甞され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三彩釉陶器の焼造以前に緑釉陶器の焼造が朝鮮半島諸国の影響によって7世紀代に始まっていたことは十分考えられることであり、日本の鉛釉陶器は唐三彩の模倣以前にすでに緑釉陶器の製作技術をもっていたことになる。

8世紀前半代のうちに製作の始まった奈良三彩は三彩、二彩、黄・緑・白の各単彩釉器が8世紀中葉代をピークに焼かれているが、それ以後三彩釉器は減少し、二彩・緑釉陶が主体を占めるようになる。安祿山の変による唐王朝の衰退によって唐風模倣にかげりが出てきたためであろう。9世紀、平安時代に入ると、多彩釉器はなくなり、緑釉陶器のみとなる。そして奈良三彩とは別の系譜をもつ二彩（白釉緑彩陶）陶器が9世紀代から10世紀始めにかけてつくられている。なお、平安時代に声価の高かった尾張青瓷については次の灰釉陶器の項で述べる。



### Ⅲ. 灰釉陶器の生成過程

灰釉陶器は奈良・平安時代に愛知県の猿投窯を中心として、東海地方一円において製作された、植物灰を原料とした高火度焼成の施釉陶器のことである。平安時代の辞典である『伊呂波字類抄』巻九に「白瓷 シラシ 瓦器 白一青一等」、また藤原実資の日記『小右記』の万寿2年(1025)の条に「素用白瓷器者 可令召尾張之由」「仏器料瓷器等 可令召尾張 美濃物」などがあり、『島田文書』の建久2年(1191)の長講堂目録によれば、美濃・尾張の荘園から長講堂に対して白瓷鉢などを貢納していたことを記しており、それらの荘園の所在地の中に灰釉陶器の生産地を多数含むところから、当時、灰釉陶器を「白瓷」と呼んでいたことが知られる。なお、『延喜式』『民部下』記載の年料雑器である尾張瓷器はその器種からみて緑釉陶器(青瓷)を指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日本における灰釉陶器の生産は8世紀後半代に愛知県尾張南部の猿投窯において始まったと考えられる。猿投窯とは名古屋市東部の丘陵地帯20キロ四方に亘って、古墳時代から鎌倉時代にかけて、1000基以上の築窯をみた大窯業地のことである。現在知り得る最も古い灰釉陶器を焼成した窯は鳴海32号窯を標式とする古窯跡において焼かれていて、この窯式に属する長頸瓶が平城宮跡の天平宝字年代の木簡を伴って出土していることから、760年ごろにはすでに灰釉陶器の生産が始まっていたことを知りうる。筆者は古墳時代(5世紀中葉)の須恵器から平安時代末の灰釉陶器までを大きく6段階に分けているが、灰釉陶器の生産の開始は第Ⅳ段階からである。この第Ⅳ段階は8世紀中葉から9世紀初頭までで、鳴海32号窯―折戸10号窯―井ヶ谷78号窯の順に推移した。この段階の灰釉陶器は予め人工釉を塗ったものではなく、窯内の焚口近くにおいて自然釉がかかるようにしたものである。筆者はこれを原始灰釉と呼んでいる。この原始灰釉を施した器種はいずれも水瓶・浄瓶・花瓶(多口瓶)などの仏器や平瓶・短頸壺などに限られていて、いずれも良質の陶土を用いている。これに対して日常の供膳具(杯・高杯・盤など)や調理具(鉢類など)は灰黒色の須恵器である。窯内上半部で焼かれていて、自然釉はかかっていない。この段階においてはまだ白瓷という言葉は生じていない。



この段階の窯は多くの場合、燃焼室と焼成室の境に木芯スサ入り粘土貼りの分焰柱を窯詰後に設置している。高火度発生と燃焼効率を上げるための装置であって、猿投窯において独自に発明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愛知・岐阜・静岡西部など、東海地方の須恵器は7世紀代から瓶・壺類に自然釉のかかったものが多くみられるが、原料陶土が耐火度の高い良質の粘土であるため、焼結のために高温を必要とした結果である。その高火度発生装置はすでに8世紀初頭の高蔵寺2号窯において燃焼室と焼成室の境に天井から貼った障壁の出現に始まる。それを意識しはじめたのは仏器（金属器）の模倣を始めた鳴海32号窯式からである。やがて8世紀末葉の折戸10号窯式の終末期の窯である黒笹7号窯の終りごろに中国の白磁を模倣した灰釉碗を焼き始めている。人工施釉ではなく、つく（窯道具）の上に置いて自然降灰を狙ったものである。この種の碗と皿は8世紀末から9世紀初頭にかけての井ヶ谷78号窯期の段階において顕著に見られるようになるが、灰釉は上面にのみかかっていて、手法的には変りはない。しかし、この段階に属する岩崎45号窯では操業の終末期に三叉トチンが出現しており、刷毛塗りによる人工釉を使用し始めたことが知られる。恐らくこの時期に出現した緑釉陶器（尾張青瓷）の焼成技法の影響を受けたものであろう。猿投窯では次の黒笹14号窯期からを第Ⅴ段階においている。第Ⅴ段階は現時点においては黒笹14号窯期（X窯－黒笹14号窯－黒笹5号窯）－黒笹90号窯期（黒笹90号窯－黒笹89号窯）－黒笹21号窯期の順に推移したと考えている。この第Ⅴ段階は第Ⅳ段階と大きく製品内容を異にしており、碗・皿・瓶類における刷毛塗りによる人工灰釉の一般化（三叉トチンや各種支具使用）とともに陰刻花文を施した緑釉陶器の素地を多数焼いていることである。近年、平安京をはじめ、畿内各地の官衙・寺院・邸宅などから出土する尾張産の美しい緑釉花文陶器が9世紀初頭に比定されるもののあるところから（平安京・冷然院跡出土品など）黒笹14号窯をそこまで遡らせる考え方が有力であるが、それら初期の緑釉花文陶の碗形態をみるとむしろ前段階の井ヶ谷78号窯期のそれに近く、黒笹14号窯期の最古形態の緑釉陶器を焼成したX窯の存在を考慮せざるを得ない。それでは第Ⅳ段階と第Ⅴ段階の転換期をいつ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か。

また従来、筆者はこの第Ⅴ段階への転換に際してその器種構成や各器種の形態から仏器としての金属器の模倣とともに、窯道具の類似から中国からの新しい技術の導入を考えてきた。しかし、名古屋大学大学院留学生熊海堂氏（南京大学講師）の研究と教示によると、窯の形態や窯道具あるいは釉薬技法などからみてこの時期の中国陶磁の製作技法の影響は考えられないとし、盛唐時代の三彩陶器の技法（三叉トチンや各種窯道具の形態など）を導入した奈良三彩の技法の伝統のなかで理解すべき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とくに三叉トチンは唐代の北方系のための窯道具であり、越州窯をはじめ、南方系窯には存在しないという。聴くべき見解である。

第Ⅴ段階への転換を考える上で重要な文献資料はいわゆる弘仁瓷器の問題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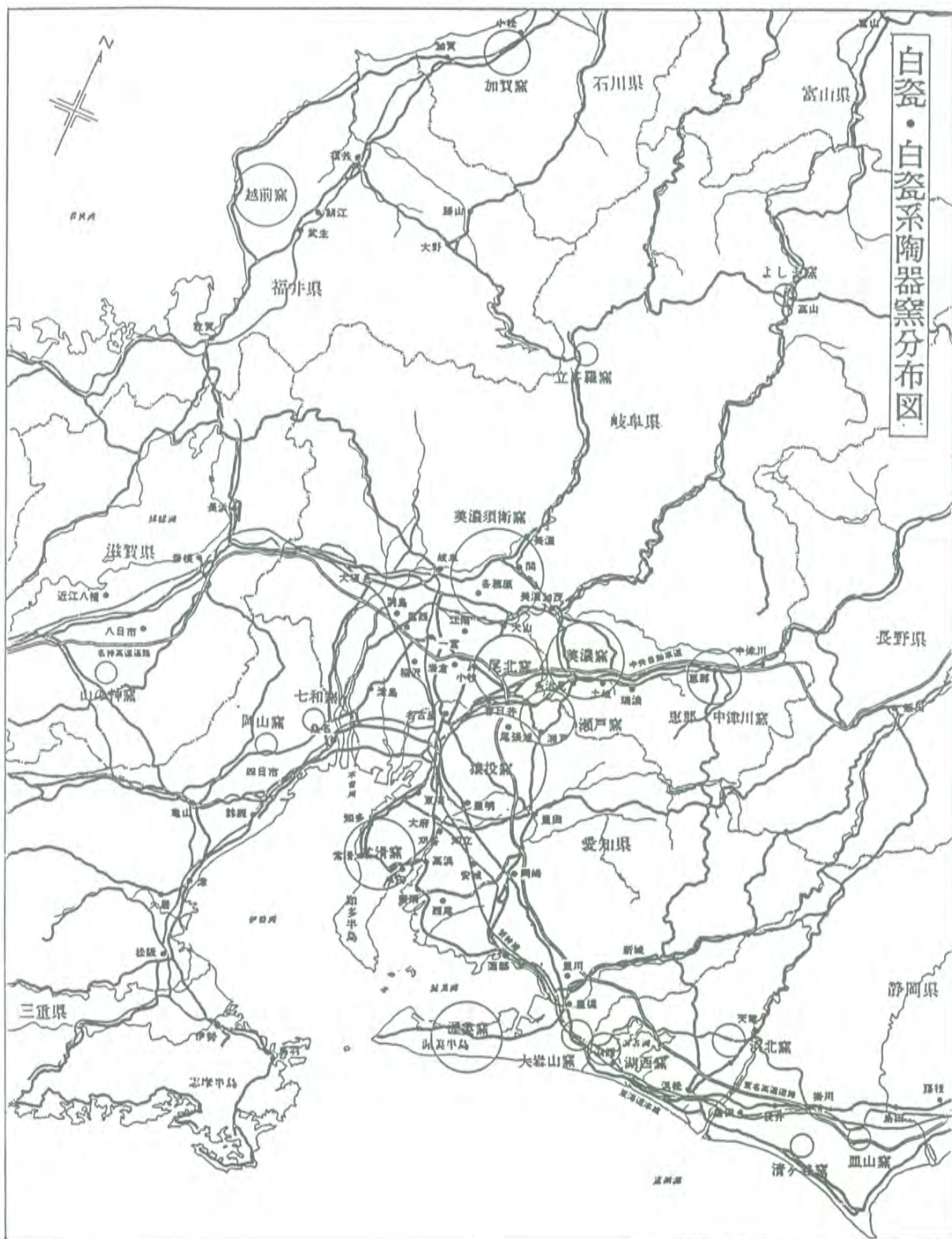
『日本後紀』巻第廿四、弘仁六年正月の条に「丁丑、造瓷器生尾張国山田郡人三人人部乙麻呂等三人伝習成業、准雑生聴出身」とある記事がそれである。従来、この記事を中心の官営工房において、当時絶えかかっていた緑釉陶器の製作技術を伝習によって復活させた功績を記録したものという解釈が行われてきた。815年のことである。しかし、当時、中央において緑釉陶器の生産は続いており、もし中央の官営工房でのことであるならば、尾張青瓷のような美しい緑釉陶器が中央においても生産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その伝習場所は尾張国衙を通じて中央から技術の伝達を受けた国衙工房（猿投窯）での出来事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その背景には8世紀以来の猿投窯の灰釉陶器生産があり、中央から注目されていたと思われる。灰釉陶器製作技法のなかに三叉トチンなど、奈良時代以来の鉛釉陶器の技法が取り込まれたのは乙麻呂らの尾張青瓷の完成の結果に基づくものであろう。この第Ⅴ段階において尾張青瓷と白瓷が同時発生したと考えられる。黒笹14号窯期を9世紀前半に、黒笹90号窯期を9世紀後半におく見解があるが、1988年に和歌山県高野山において発見された真然大徳の蔵骨器（猿投窯産緑釉四足壺）は黒笹14号窯期のうちに入るものであり、その没年が891年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黒笹90号窯期は9世紀の終末頃に置かざるを得ないであろう。

灰釉陶器生産のその後の展開については省略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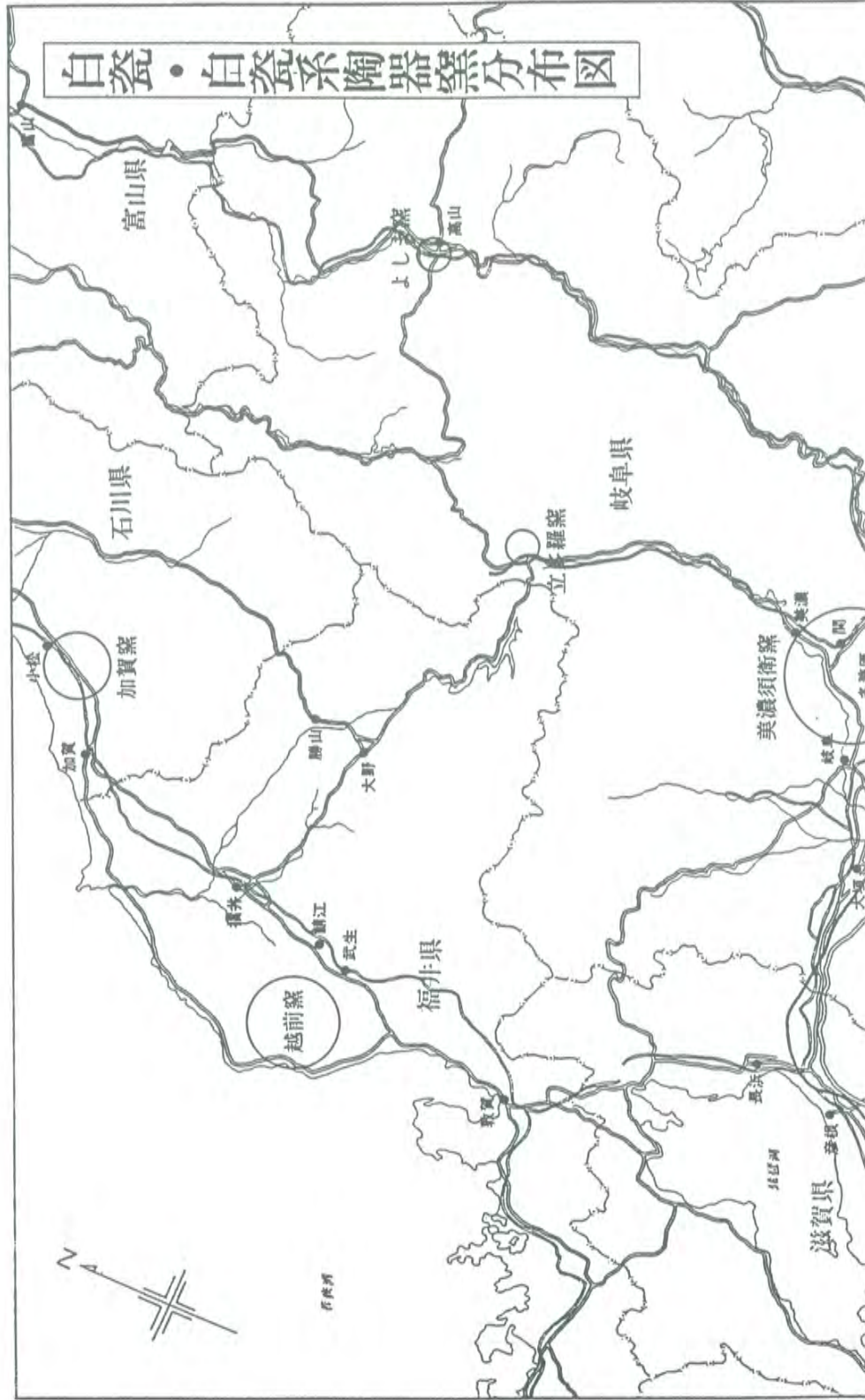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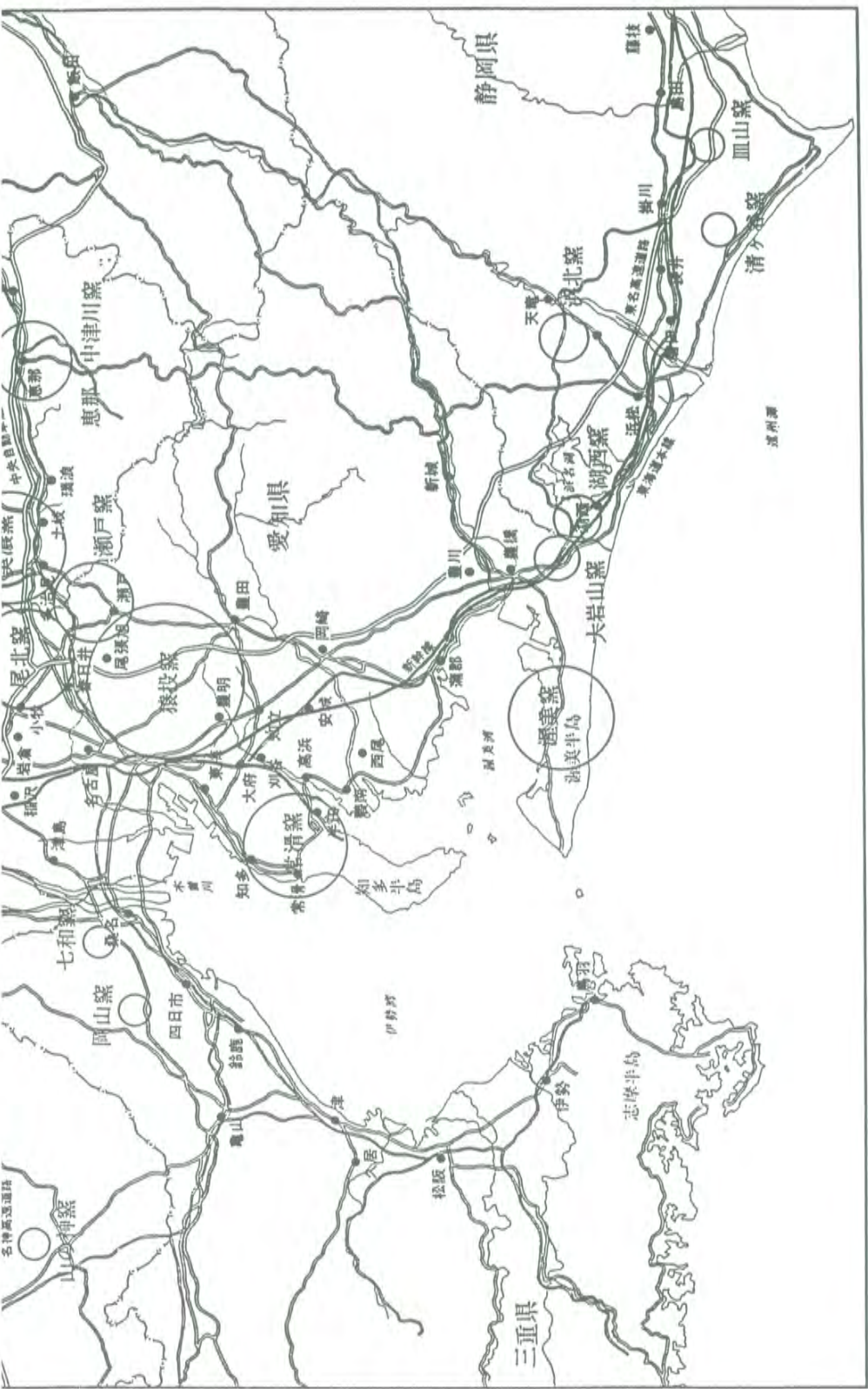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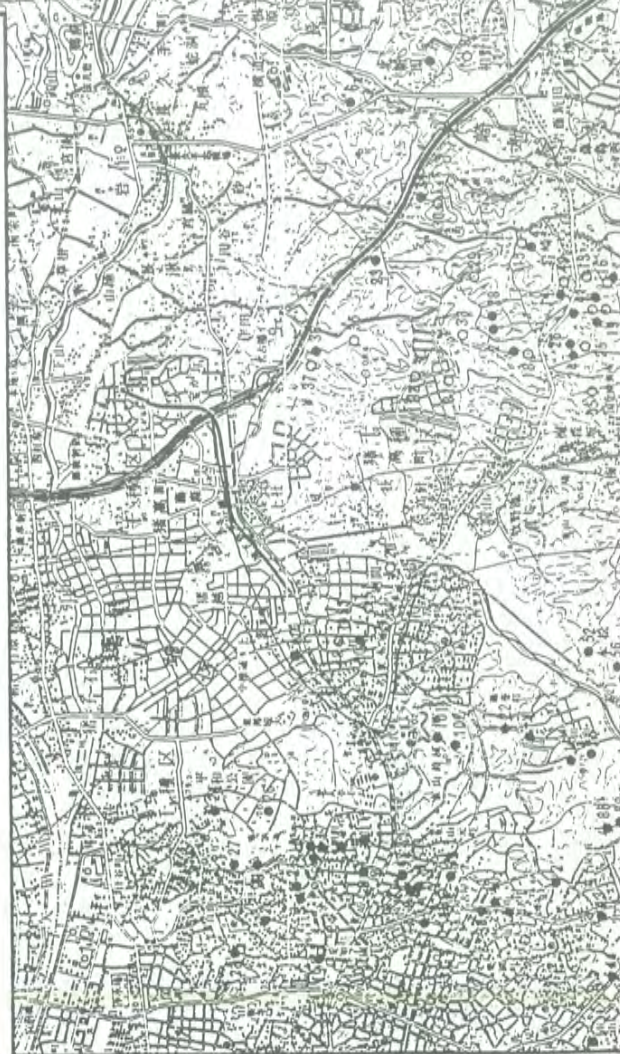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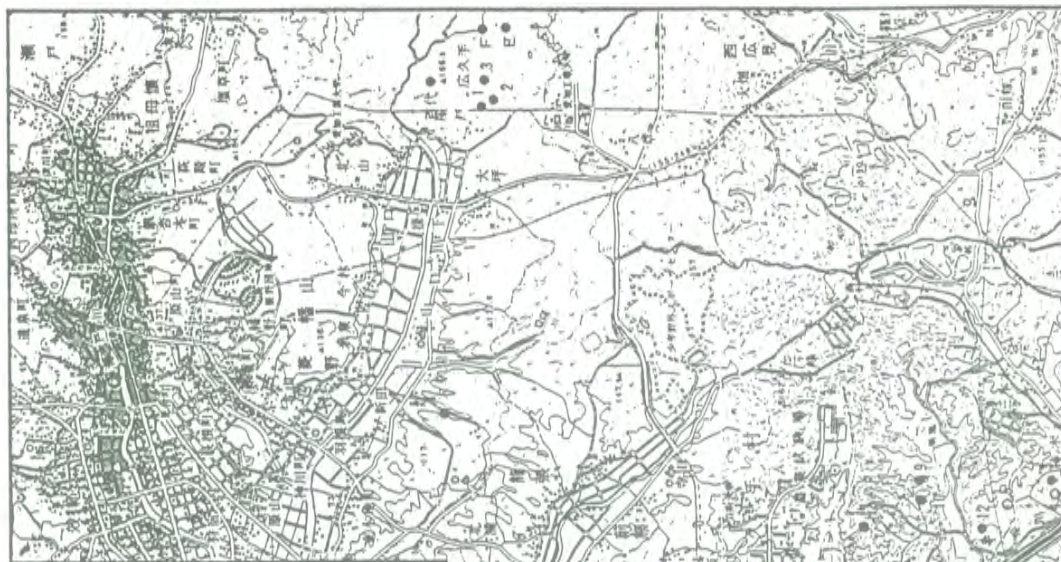
# 白瓷・白瓷系陶器窯分布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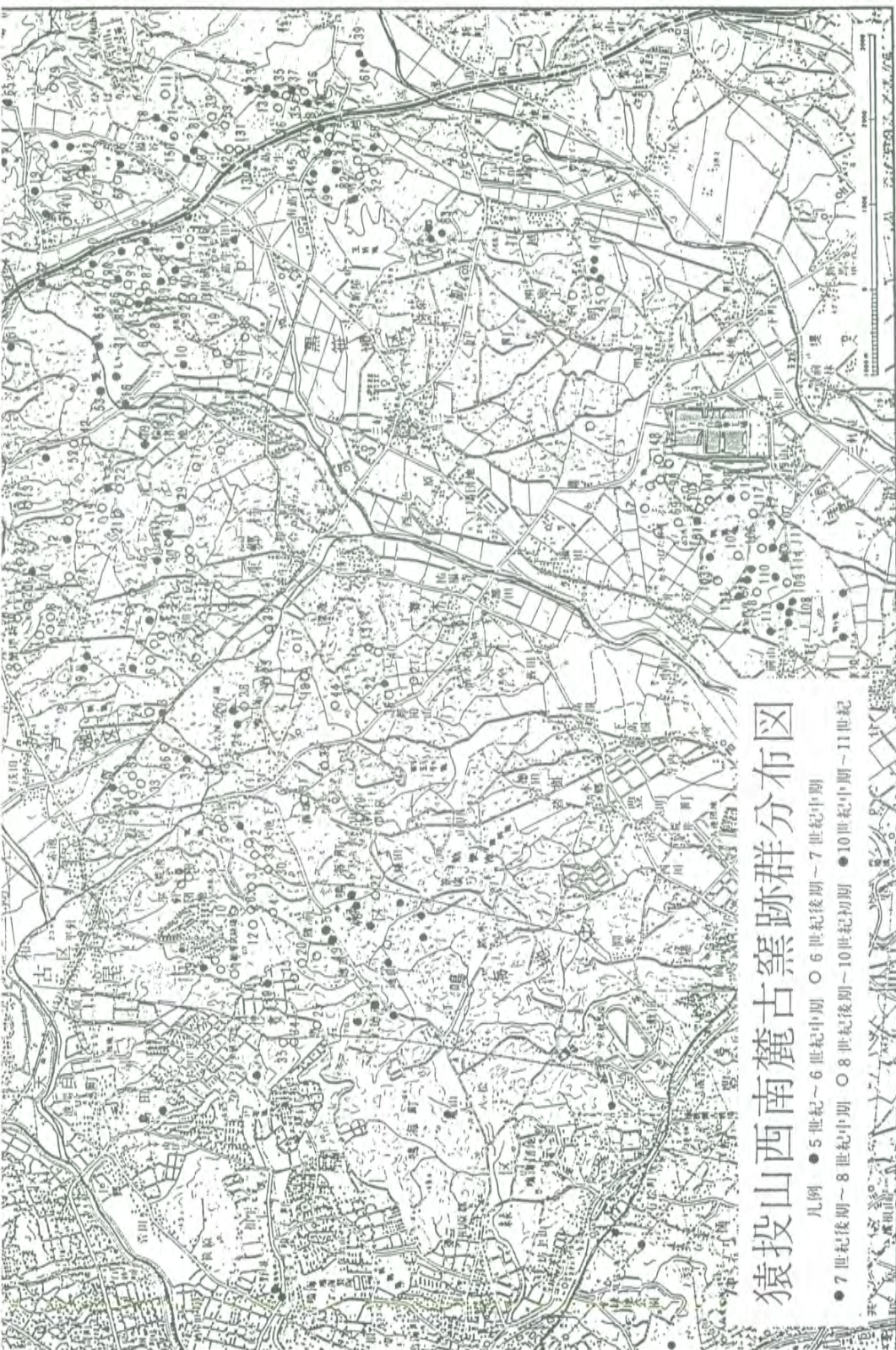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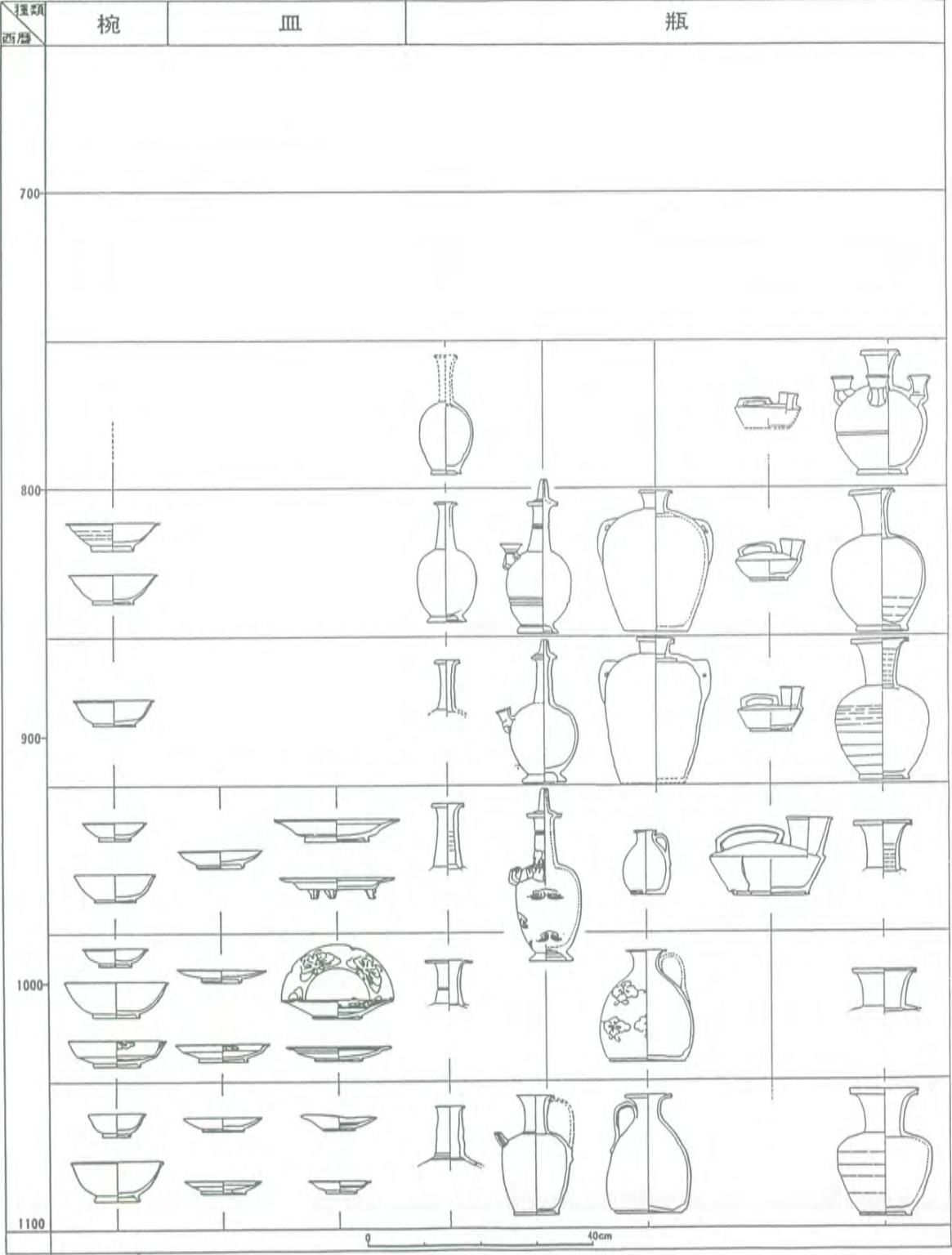




# 猿投山西南麓古窯跡群分布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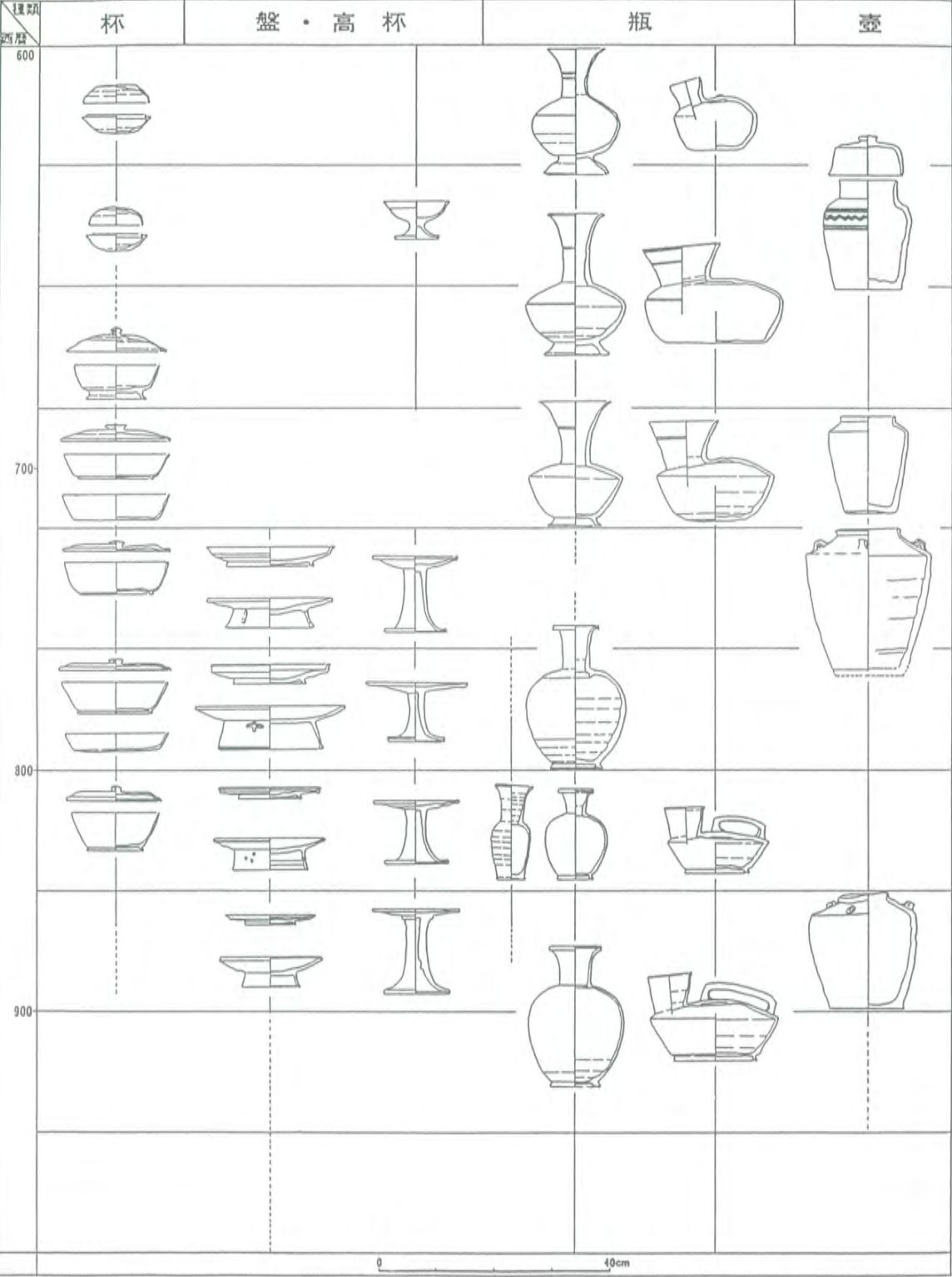
凡例 ● 5世紀～6世紀中期 ○ 6世紀後期～7世紀中期  
● 7世紀後期～8世紀中期 ○ 8世紀後期～10世紀初期 ● 10世紀中期～11世紀

白瓷編年図





須恵器編年図





제 1 회 東垣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韓國 磁器 發生에 関한 諸問題

---

1990년 11월 20일 인쇄

1990년 11월 21일 발행

편집 · 발행인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22  
762 - 1235

연락처 국립중앙박물관  
738 - 3800





